



4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4 호

(루계 제 606 호)



◇◇◇◇◇◇◇◇◇◇

## 차 례

◇◇◇◇◇◇◇◇◇◇

위대한 태양절이여 .....	4
고향의 가을날에 .....	5
빛나라 주체의 원년이여 .....	12
인민의 첫 생각 .....	12
《호박풍년이 들었다》 .....	13
소사하의 아침 .....	15
안도의 밀림에 올린 고고성이여 (외 2 편) .....	15
노래는 울려울려 .....	16
병사는 서있다 .....	16
추억의 밤에 .....	17
태양절 .....	19
영생의 노래 .....	22
흙모의 노래 .....	27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	27
심오한 철학성을 지닌 노래가 되도록 .....	28
나도 그 꽃중의 한송이 .....	29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의 위대성 .....	30
인민이 안겨사는 집 .....	32

내 나라의 자랑 .....	33
해빛밝은 4 월의 봄날에 .....	35
이 아침에도 (외 1 편) .....	37
그날의 고지정점에서 .....	37
전선길의 3 일이야기 .....	38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	44
명언해설 .....	48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	49
영생하는 벗 .....	52
제힘을 믿자 .....	60
삶의 좌표 .....	61
《우리 딸》 .....	70
이웃집 할머니에게 (외 1 편) .....	79
통일에 대한 생각 .....	79
락원은, 태성은 (외 1 편) .....	80
두달 .....	80

# 위대한 태양절이여

리영철

달리는 부를수 없노라  
어버이수령님 탄생하신 날  
4월 15일  
아, 이날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하라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날  
이날이 있어  
어둡던 이 나라의 하늘이 열리고  
꽃없던 이 강산에 꽃들이 만발했거늘

우리는 이날을 태양절로 부른다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사랑과 행복, 감사와 은혜...  
천백마디 고마운 말을  
이 한마디에 담아

참으로 밝고밝은 우리의 명절날이다  
참으로 눈부신 우리의 명절날이다  
우리 즐기는 모든 명절도  
이날이 있기에 있고  
이날이 있기에  
누리에 빛나는 내 조국이 있어라

아름다워라  
기쁨넘쳐라  
내 사는 통일거리 열려진 창문들마다  
따사로운 햇빛을 안고

붉게 붉게 피어난 꽃송이 꽃송이...  
아기를 안은 녀인들의 그윽한 미소가  
끝없는 행복을 불러주는 날

아, 태양절!  
이날은 진정  
초롱불 켜들고 달맞이하며  
가슴속 꿈과 소원을 기원하던 인민이  
만복의 주인으로 태어난 날  
운명의 봄을 맞은 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래서 해가 갈수록  
다함없는 충성과 효성을 바쳐  
우리 이날을 맞고  
우리 이날을 빛내여간다

이날을 어이  
다른 말로 부를수 있으랴  
부르고싶어 그렇게만 부르고싶어  
인민이 마음속에 안고살던 념원을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시였거니

수령님 영생과 함께  
수령님 그리는 우리 마음에  
이날은 영원하리라  
아, 태양절!  
인류와 함께 봄과 함께 영원하리라

## 고향의 가을날에

박춘섭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뒤짐을 지신채 천천히 걷고 계시었다.

그이께서 가시는 멀지 않은 앞에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회령고향집이 있었다.

무한대한 추억의 갈피를 한장한장 번지시듯 그이의 걸음은 고르로우시었다.

이따금 건듯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그이의 흰 머리카락을 조심히 날리고있었다.

그이께서 쓰시던 회색중절모를 들고 뒤따르는 책임부관도 연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처녀강사로 수령님의 사색에 방해가 될세라 발끝을 저거디디고있었다.

걸음걸음 깊어지는 수령님의 사색의 숭고함이 이 세상 그 누가 다 알것인가!

초가을 한낮의 따스한 해빛이 무성한 나무잎새사이로 줄줄이 녹아내리고있었다.

곧추 뻗은 포석길우에 어롱이는 백살구나무그늘을 밟으시며 천천히 걷고계시는 수령님앞에 빨강게 물든 잎새 하나가 뱅글뱅글 돌며 떨어져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눈길을 드시었다.

파아란 하늘을 가리며 무성하게 아지를 펼친 백살구나무에는 어느새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벌써 가을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손이 닿는대로 백살구나무잎 하나를 뜯으시었다. 그러자 가지끝에 앉아 조울던 고추잠자리 한마리가 가볍게 뿜겨나 투명한 날개를 파르르 떨며 땀을 돌더니 다시 그자리에 조심히 앉는다.

그리고는 동그란 눈을 뱅글뱅글 돌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마음이 놓이는듯 다시금 날개를 드리운다.

숲도 길도 온 주위가 끝없이 고요하다.

수령님께서서는 나무잎새를 손에 드신채 다시금 뒤짐을 지시고 천천히 걸으시었다. 그이의 손에서는 단풍든 백살구나무잎이 뱅글뱅글 돌고있었다.

마치도 아득히 흘러간 세월의 년륜을 되돌려잡으시는듯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수령님께서 감아올리시던 세월의 돌기가 주체 38(1949)년도의 가을에 가서 멎어섰다.

참으로 억이 막히시던, 회고하시기도차 싫은

가을이었다. 그이의 눈길은련련히 뻗은 산너머 아득한 창공으로 향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지 않는 저택으로 밤늦게야 돌아오시었다.

아무리 밤에 늦게 돌아오셔도 어머님께서 기다리고계시기에 운전사는 저택가까이에 오면 늘 경적을 세번 울리곤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승용차가 조용히 들어서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보실가봐 우정 운전대에 몸을 바싹 붙인 운전사는 솟구쳐오르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며 참고있었다.

그렇수만 있다면 수령님의 무릎을 꿇고 두드리며 마음껏 울고싶었지만 수령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기에 눈물조차 흘릴수 없는 운전사였다.

무슨 말로 위로해드려야 수령님의 가슴에 쌓이고 덧쌓이는 슬픔을 가셔드릴수 있단말인가!

승용차가 소리없이 정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수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운전사동무, ...왜 경적을 울리지 않소?》

《...》

승용차는 그자리에 멈춰섰다. 참고참던 울음을 왈각 터치며 운전사는 운전대우에 얼굴을 묻었다.

수령님께서도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재촉하시었다.

《그러지 마오. 동무까지 그러면...어서 경적을 울리오. 정숙동무가 기다리고있소...》

《장군님!》

운전사의 씹어삼키는 흐느낌속에 경적소리가 울렸다. 《뽕- 뽕- 뽕-》

40년전의 그 경적소리가 지금 울리는듯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앞을 바라보시었다.

(정숙동무, 내가 왔소.)

수령님께서서는 금시라도 김정숙동지께서 걸어왔던 팔소매를 끌어내리며 마중나오시는듯싶으셨다.

그가 늘 입고있던 저고리가 저 색깔이던가?...

자주빛으로 물든 백살구나무에 둘러싸인 회령고향집이 사립문을 활짝 열고 숙연히 서있었다.

(정숙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손에 쥐시였던 백살구나무잎을 길썰 잔디우에 던지시었다.

(정숙동무와 함께 회령고향집에 가보자고 약속만 해놓고는 결국 이렇게 나 혼자만 왔소.)

지금껏 이어오시던 사색의 봉우리에 얹혀지는 가슴아픈 일이 수령님의 심중에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때 왜 함께 오지 못했는가. 그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왜 그의 자그마한 소원마저도 풀어주지 못했는가! 아무리 일이 바쁜들 그만한 시간이야 왜 짜내지 못했는가!

그는 아마도 고향에 함께 가보자던 그 약속을 기다려 조국에 개선한후 청진에 것처럼 오래 머물러있으면서도 지척인 고향에 한사코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청진이야 기차로 오면 만나절도 안걸릴데가 아닌가? ...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 수수한 농가가 앞에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강사동무, 앞서라구.》

수령님의 뜻밖의 부르심에 처녀강사는 당황하여 앞서야 할지 어쩔지 몰라 머뭇거렸다. 북스럼게 생긴 얼굴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수령님께서는 그제야 이 처녀강사와 미처 통성을 못했다는것을 느끼시였다.

《강사동무, 이름이 뭐지?》

《김영순입니다.》

《영순이, 나이는 몇이구?》

《스물넷입니다.》

《여기 본토배기인가?》

《예, 오산덕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 그런데 말씨는 잘 알리지 않누만. 강사가 돼서 그런가?》

《저두 강의도중에 이따금 사투리가 튀어나와 애를 먹습니다.》

영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씀드렸다.

《그렇거야, 여기 북쪽사람들의 말씨가 여간 아니거든. 뽕찌산때도 거의 모두가 여기 말씨를 썼어. 그래서인지 난 북쪽말씨가 싫지 않거든. 투박하고 억양이 거세서 처녀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아두 말이야. 안그렇소? 부관.》

《예, 그렇습니다.》

《부관도 북쪽태생이니 제격 긍정하는구만.》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처녀강사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시고싶으시였다.

수집을때문에 한껏 달아올랐던 영순이의 얼굴은 순간에 활짝 개였다. 해별에 타서 감실감실해진 랑불에 귀인성스러운 보조개가 움푹 패인다.

《자, 오늘은 영순이의 토배기말씨를 실컷 들어보자구.》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앞서라고 손짓하시였다.

다.

천성이 활달하고 명랑해서인듯 영순이는 나는 듯달려와 수령님의 팔을 잡고 고향집 사립문안으로 안내하여드렸다.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초가집마당에 들어서시였다.

비좁은 마당을 바루 둘러진 돌담, 낮추 드리운 처마, 진흙매질을 한 토방, 마당 한켠에 창고도 아니고 외양간도 아닌 원두막 비슷한것이 지붕만 얹은채로 서있었다. 그안에 지게며 쇠스랑, 호미 등이 놓여있었다. 그 어디에서나 가난의 흔적이 력력히 내비친다.

한눈에도 차지 않는 자그마한 초가집 네개의 문중에 한쪽켠의 문만이 열려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곳으로 다가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습니다.》

영순은 이런 집을 보여드리는것이 마치도 자기 자신에게 죄라도 있는듯 두손을 모아잡으며 충구스레 말씀드렸다.

《결방살이를 했다더니 이런 집에서 살았구만.》

수령님께서는 강사의 말을 받으시며 토방우에 올라서시였다.

방이자 부엌이고 부엌이자 방인 자그마한 집, 구름노전 한장이 전부인 방 한가운데에 화로 하나가 뎡그랑게 놓여있다. 부엌이라야 가마 한개와 마주엮어놓은 웅배기 몇개, 두단으로 된 시렁에는 그나마 채울것이 없어 아래단에만 그릇이 얹혀져있다. 한가정 살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살림도구를 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열어놓은 문손잡이를 잡으셨다. 왜서인지 이미 오래전에 이집에 와본듯한 느낌이 드셨다. 만경대의 고향집과 비슷해서인가?

김정숙동무에게서 이 고향집이야기를 듣던 때가 언제이던가.

수령님의 눈앞에는 주체25(1936)년 봄의 만강밀영이 떠올랐다.

활활 타오르던 우등불 불씨가 날아가는 밤하늘, 어디선가 울려오는 점동새울음소리...

수령님께서는 그때 우등불가에 둘러앉은 너대원들앞에서 몸소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누구인가의 군복을 입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느질을 멈추시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고계시

였었다. 함함한 중발머리를 귀바퀴위로 쓸어넘기며 밤하늘을 바라보시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조용히 노래를 따라부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었다. 그이께서 기우시던 군복우에 점점이 눈물자욱이 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을 누가 볼세라 얼른 땃천을 대고 바느질을 시작하시었다.

활활 타번지는 우등불이 고개를 숙인 그의 이마전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그때 정숙동무가 눈물을 흘리며 사무치게 그러보던 고향집이 바로 이 집이 아니던가.

수령님께서는 그때 김정숙동지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생생히 기억되시었다.

《결국 우리는 다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혁명을 아니할래야 아니할수가 있는가? 혁명의 길에서 살고 혁명의 길에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란 일생을 살면서 사람구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사람구실을 하면서 살자면 혁명을 해서 조국을 찾아야 합니다.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입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을 얼마나 가슴깊이 새겼으면 일생을 그처럼 불같이 살았겠는가! 그 혁명의 길에서 김정숙동무는 오빠도 동생도 다 잃고 혼자서 조국에 돌아왔지.

그렇게 한생을 고생만 시키다가 너무도 일찌기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가슴이 저리시었다. 세상천지를 다 뒤진대도 그런 혁명가를, 그렇게 참다운 전우를 어디서 다시 찾아보겠는가!

수령님께서는 토방에서 내려서시었다. 집주위를 천천히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바깥쪽으로 난 부엌아궁앞에 멈춰서시었다. 진흙으로 반듯하게 매질을 한 아궁바닥에는 까만 숯이 한벌 깔려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참나무 아니면 자작나무 숯같았다. 사람들에게 생동한 표상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것 같았다.

수령님께서는 이 아궁에서 과연 저런 나무가 몇번이나 타보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었다.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혁명을 하느라고 나다니는 집에서 남들처럼 불땀증은 참나무장작을 몇번이나 때보았겠는가? 눈보라가 쓸어드는 부엌에서 매운 연기에 짓물린 눈물을 씻으며 불을 때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비껴오시었다.

녀자들의 반생은 부엌에서 흘러간다는데 정숙동무는 그러고보면 언제한번 부엌다운 부엌에서 일해본적이 있었는가? 항일전의 기나긴 나날 빙천설지에서 언손이 녹을새 없이 갇은 고생을 다 해온 김정숙동무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느해 겨울에 있었던 일을 기억

하시었다. 그날 뜻밖의 정황으로 부대는 식사도 못하고 행군하게 되었다. 적들은 바짝 꼬리를 물고 뒤따르고있었다. 런 이틀째 행군은 계속되고있었다. 대원들은 생논을 움켜먹으며 행군하고있었다. 잠간 휴식할 때조차 눈보라가 너무도 세차서 우등불을 피우지 못하였다. 이런 때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 밀가루구이떡을 해가지고 나타났다. 그가 언제 어디서 밀가루떡을 구웠는가?

대원들에게 구운떡을 하나씩 나누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손은 온통 시퍼렇게 얼어 터갈라지였다. 군복 팔소매에는 불티에 뚫어진 구멍이 여러개 있었고 이마전의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려있었다.

그래도 그이께서는 웃으며 지쳐쓰러진 대원들의 손에 구이떡을 하나씩 쥐여주시었다. 나 어린 전령병이 눈물이 글썽해서 떡을 받다가 그이의 팔소매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쳤다.

《누나!》

누나, 그는 진정 혁명군대오의 다심한 누나이고 인정많은 어머니였다.

이 나라 녀인들처럼 그렇게 강의하고 혁명성이 강한 녀인들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인정도 많고 눈물도 헤픈 우리 녀성혁명가들이 헤쳐온 투쟁의 역사를 서술한다면 세상에 그 어느 이름난 혁명가도 무색해할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이겨낸 김정숙동지의 생활 밑바닥에는 이런 부엌도 있는것이다.

《구들에 불이 잘 드나?》

수령님께서는 영순이에게 물으시었다.

《불을 때보진 못했습니다.》

영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드렸다.

《추울 땐 불이 사촌보다도 낫다고 했는데...》

수령님께서는 혼자 말씀처럼 뇌이시며 마당밖으로 나오시었다. 무언가 허전하시었다. 한지에 나앉은 아궁때문인가? 잠간만이라도 김정숙동지의 체취가 스며있는 구름노전우에 앉아 따뜻한 아래목을 짚어도 보고 독배기에 담긴 삶은 감자 껍질도 벗기면서 흘러간 세월의 추억도 함께 나누고싶으시었다.

따스한 햇빛이 잘 꾸려놓은 교양마당의 꽃밭이며 정교하게 다듬은 갖가지 나무들을 한껏 비치고있었다. 방금 돌아본 고향집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었다. 인민의 녀원과 정성이 수수한 농가를 꽃방석우에 올려앉힌듯싶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오래간만에 정숙동무의 고향집에 왔다가 그저 갈수야 없지. 우리 사진이나 한장 찍을가?》

책임부관이 서둘러 사진사를 찾고 그이께 중절모를 가져다드렸다.

수령님께서는 위치를 가늠하시고는 뒤집을 지

고서시였다.

《영순이, 이리 오라구. 함께 찍어야지.》

수령님께서는 손짓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먼저 한장을 찍으십시오.》

책임부관이 말씀드렸다.

《혼자서야 무슨뎡에 찍겠나. 먼저 영순이와 함께 찍자구. 영순이야 이 집 주인인데 주인과 함께 먼저 찍어야지.》

영순이는 너무 기뻐 수령님곁으로 달려갔다. 수령님께서는 영순이를 한팔로 꼭 껴안고 사진을 찍으시였다. 뒤이어 모두 함께 찍었다.

사진을 다 찍자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고향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영순인 강사로 일한지 몇해째 되나?》

《5년입니다.》

《5년, 5년이면 대단해. 그러니까 김정숙동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이 영순이라구 할수 있지. 정숙동무와 함께 5년을 살았으니까 한집안식구와 같아.》

《수령님, 전 앞으로 영원히 회령고향집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소. 여기서 일하면서 정숙동무를 뵈오라구. 자, 그럼 인젠 김정숙동무가 있는곳으로 갑시다.》

영순이는 수령님께서 지금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녀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것을 알아차렸다.

...

세상에 아무리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해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더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그리운 사람 일수록 그 모습이 더더욱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더 생동하게 기억하고싶은 욕망에 사고력이 따라가지 못한때문이 아닌지.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나이탓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자신께서 김정숙동지를 그려보실 때면 언제나 땀뻘 저 떠오르시는것은 그의 미소였다.

미덕중의 하나가 웃음이라고 하지만 미덕의 세계를 초월하는 김정숙동지의 미소야말로 아름다움의 척도 하나만으로는 재일수 없는것이였다.

그래서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것이 웃는 모습인가?

수령님께서는 군복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 멈춰서시였다.

(잘 있었소? 정숙동무.)

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시선으로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바라보시였다.

수령님께 해설해드리려고 나서던 영순은 책임부관이 팔을 잡는 바람에 우뚝 멈춰섰다. 책임부관의 시선을 따르던 영순은 허를 깨물며 책임부관의 옆에 붙어섰다. 그는 지금 두분께서 심장의

대화를 나누고계신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

(정숙동무.)

수령님께서는 몇걸음 다가가시였다.

(동무가 보구싶어서 또 왔소. 마음같아서는 자주 와보고싶은데 일이 바쁘다나니 이렇게 10년만에야 다시 왔구만.)

(수령님, 그 10년이 백년, 천년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참으로 일년 삼백에 순다섯날 그 어느 하루도 수령님을 잊으신적 없었던가! 이 순간 온 우주는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꼭 차있는듯싶으시였다.

(흐르는 세월이 참 아깝소. 백두산시절의 정숙동무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한결 젊어지는구만.)

(수령님께서도 그렇게 제진것양복을입으시니 췌 젊어보입니다.)

(우리 장군이 그렇게 했소.)

수령님께서는 자랑스레 말씀하셨다.

어머님께서도 기쁘셨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도 놀랄만큼 정성을 다하던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그 충효의 세계는 하늘끝에 닿아있는것이다.

(수령님, 이젠 우리 장군에게 일을 맡기시고 좀 쉬십시오.)

(우리 장군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장군이 모든 일을 맡아하고있소.

이제 멀지 않아 군대를 그가 직접 맡아보게 될거요. 난 그일을 의의가 크게 하려고 하오. 정숙동무의 생일날인 12월 24일에 우리 장군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오.)

(고맙습니다. 수령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세상천지를 진감하는 우렁찬 환호성이 메아리쳐 오는듯싶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틈 허리에 손을 얹으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 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그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군이요. 정숙동무를 대신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 무척 마음을 쓰고있소. 세상만복을 다 가져다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이고 충신이요. 아마도 그것은 정숙동무가 물려준 성품이고 기질인것 같소. 그 덕분에 난 나날이 젊어지고있지. 지금 이렇게 기력이 성성한데 가만히 앉아서 뭘하겠소. 우리 장군과 손을 맞잡고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방금 회령담배공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요. 우리 장군이 이끄는 인민군대의 전사들의 담배



문제가 걱정되어서 말이요

일이 씨원치 않아 싫은 소리를 좀 했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벌이 되는 전사들의 담배까지 걱정해서야 되겠느냐고 노여운 소리도 했소. 모두들 눈물을 머금고 잘하겠다고 맹세를 다지더군. 이제 그 일도 잘될거요.)

수령님께서서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시었다.

한모금 길게 피우신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하신틈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게 우리 전사들이 피울 담배요. 담배맛이 괜찮소. 아마 시제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오. 내 그래서 일군들에게 이 수준에서 떨구지 말라고 다짐을 두었소. 내기 전쟁시기에도 전사들의 담배를 떨구지 않고 보장하도록 했는데 지금이야 빛이 모자라서 전사들에게 담배걱정을 시키겠소.)

(수령님, 그런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김책동지랑, 최현동지랑.)

(그들은 모두 먼저 갔소. 강건이, 류경수, 최춘국이, ... 정숙동무처럼 나를 받들어 끝까지 잘 싸우다가 갔소. 참 아까운 사람들이지.

그중에서도 김책이는 정말 잊혀지지 않소. 다시 살릴수만 있다면 지구를 맞구멍 내서라도 그를 데려오고싶소. 정숙동무야 잘 알지 않소. 김책이가 어떤 사람인지, ...)

수령님께서서는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시었다. 눈앞에는 잊으실수 없는 주체39(1950)년도 9월 22일 밤의 일이 떠오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앞에 마주앉아계시었다.

준엄하게 번져가는 전선형편은 수령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간고한 전략적후퇴의 계선은 어디까지 정하겠는가? 반공격 시기와 역량은 어떻게 정하며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결정하는 작전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온 심혈을 깡그리 기울이시었다.

작전실의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김책이가 들어왔다. 왜서인지 그의 얼굴이 컴컴하였다. 하긴 아무리 유능한 백전로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형편에서 배포유할수야 없지 않는가?

《왜? 무슨 일이 있소?》

수령님께서서는 쥐고계시던 색연필을 놓으시며 물으시었다.

김책은 아무 대답없이 한동안 바라보더니 작전탁우의 지도를 접어 한켠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가방안에서 술 한병과 마른명태 몇마리를 꺼내놓았다.

《이건 뭐요? 왜 그러오, 김책동무.》

《장군님, 오늘이 정숙동무가 간지 한뼘이 되는 날입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가 차잔을 가져다놓고 조심히 붓는 술병을 바라보셨다.

자신께서 아침에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술을 부으시었다. 그러시면서 마음속으로 용서를 바라시었다. 그럴수만 있다면 자제분들을 다 데리고 동지들과 함께 산소에 가보고싶으셨지만 전선형편이 그럴 경황을 주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 부은 술잔을 들고 일어서시었다.

《고맙소. 김책동무, 함께 드시다.》

김책은 몇모금 마시더니 잔을 도로 놓았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낚았다.

그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 불빛에 번쩍거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잔을 도로 놓으시었다.

가슴에 불뭉치같은것이 꼭 막혀 술이 넘어가지 않는다. 잔에 가득 고인 맑은 술이 뿌영게 보이었다. 김책이와 단둘이 마주앉고보니 지금껏 가슴속깊은곳에 묻어두고계셨던 슬픔이 건잡을새없이 솟구쳐올랐다.

《김책동무, 지나간 한해가 왜 이리 힘겨운지 모르겠소.》

《장군님, 세상은 왜 그다지도 모질게 장군님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정숙동무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보니 더욱 그리워지는 구만.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다시 찾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잔의 술을 몇모금 마시시었다.

쓴물로라도 가슴속에 쌓인 매운재를 적시고싶으시었다.

《간 사람도 그렇고...》

김책은 갈린 목소리를 가카스로 툇아냈다.

《자제분들 보기가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마음 놓고 울기라도 했으면 ...》

《그들이 너무 일찍 철드는게 두렵소. ... 하긴 이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그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소. 그래도 그들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오.》

《저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책은 다소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디선가 첫닭이 우는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흔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작전실의 창문을 여시었다. 맑게 개인 밤하늘에 또글또글 여문 별들이 명멸하고있었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쟁의 날치고는 류다르게 고요한 밤이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멀리도 흘러왔는가! 자신께서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세월이 정말 살같이 흘렀다. 그 세월속에 모든것이 다 변했지만 김정숙동지만은 옛모습 그대로였다.

(정숙동무, 우리 장군의 덕분에 나도 정숙동무도 이렇게 락을 보는구만. 장군이 하는 일은 뭐나 내 마음에 꼭 드오. 난 그래서 앞으로 대외사업을 하면서 농사일만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오.

우리 장군의 손에 농사일까지 맡겨놓고 걱정시킬순 없소.)

(수령님, 이런 때 곁에서 받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습시다.)

(무슨 소릴 하오. 정숙동무는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린것만으로도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았소. 그 광명성은 오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찬란히 비치는 태양이요. 그 태양이 있어 이 땅에 오늘과 같은 현실이 펼쳐진게 아니겠소. 이를테면 오곡이 무르익어 풍만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이 가을처럼말이요.)

수령님께서 가없이 푸른 가을하늘을 바라보시었다. 그 하늘아래 펼쳐진 회령시가며 황금빛 벌판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렸다.

《영순이, 여기서 보니 경치가 참 좋구만.》

수령님께서 영순이쪽으로 다가가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렇습시다. 수령님, 지금도 그렇지만 봄이면은 시내가 백살구꽃으로 뒤덮이고 여기 동상주변은 진달래꽃속에 묻힙니다.》

영순은 팔을 들어 동상주변을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진달래야 지금도 피어있지 않소.》

《예?!》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김정숙동지께서 소중히 잡고계시는 진달래를 가리키셨다.

다시금 영순은 숙연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렸다. 영생의 참된 의미가 가슴을 치며 안겨들었다. 정녕 수령님께서 살아계시는 김정숙어머님과 만나고계시는듯하였다.

《진달래야 김정숙동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지.》

수령님께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백두산 쪽을 바라보시었다. 우줄우줄 키돋움하며 백두산 쪽으로 뻗어간 산밭들은 보라빛운무속에 싸여있었다. 수령님께서 저 멀리로 눈길을 주신채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우린 백두산시절에 봄을 더 좋아했지. 그래서 큰 전투는 다 봄에 있었어.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 홍기하전투, 참 영순인 홍기하전투이야기를 알고있나?》

《예, 그 전투에서 김정숙어머님께서 수령님께로 몰려드는 적들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었다는 이야기를 알고있습니다.》

《그랬소. 그때 정숙동무가 진 배낭에는 이런 양재기가 두개 없혀있었지.》

수령님께서 두손으로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이시었다.

《그 양재기에 탄알자욱이 두개씩이나 나있었소. 정숙동무는 나의 생명을 지켜냈소. 대사하치기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바라보시었다.

그날의 군복차림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보면 정숙동무가 차고있는 저 총은 나를 지키기 위한 총이었소. 크게 말한다면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기 위한 총이었지.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총을 놓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니겠소.》

수령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시어 김정숙동지께서 차고계시는 권총을 보시었다.

항일전의 그 나날부터 돌아가시는 마지막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총, 그 총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는 그 얼마나 많은가! 실로 총과 김정숙동지를 떼어놓고는 생각할수 없으시는 수령님이시었다.

(정숙동무, 이젠 그 총을 우리 장군에게 넘겨주어도 될거요. 우리 장군은 정숙동무가 차고있는 그 총의 사명을 군대뿐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에 억년 드눌지 않게 심어주었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천만이 총폭탄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소.)

(수령님, 하지만 저는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제든 오늘도 저는 영원히 수령님의 친위 전사 제1호위병입니다.)

어머님께서 군복깃을 당기시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으시었다. 혁피우의 권총도 사용하기 쉽게 약간 앞쪽으로 가져다놓으시었다. 구김살 하나 없는 군복차림의 그 모습이 수령님께서는 무척 마음에 드시었다.

(나는 군복차림의 정숙동무모습이 제일 좋소.

나도 생각갈아서는 백두산시절의 군복을 입고 우리 **김정일**장군을 받들고싶소. 인젠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이 모두 그에게 달려있소. 우리 장군은 충효에 있어서나 덕망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그모두가 정숙동무의 성품을 많이 닮았소. 그가 떠나가는 인덕정치의 화원속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오.)

수령님께서는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날씨가 참 좋구만. 부관, 여기서 사진이나 한 장 찍자구.》

그러자 기다렸던듯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봄비였다.

이 력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기의 셔타소리가 연방 울렸다.

수령님께서는 해빛이 가리우지 않게 중절모를 약간 올려쓰시었다.

(정숙동무, 생각나오? 백두산시절에 사진찍던때가 말이요.)

(예, 타향에서 봄을 맞을 때였습니다.)

(그 41년도 봄을 잊을수가 없소. 참 류다른 봄이었지. 정숙동무에게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해 봄엔 철이르게 내 가슴에 봄이 먼저 찾아왔소.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안하던 내가 왜서인지 정숙동무와 마주서기가 두렵더란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숙동무와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떠밀 때도 버티었지. 사령관이 대원들 보기가 멋적더란말이요. 허허...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소.

김정숙동무야말로 혁명에 온 녀를 다 바치는 진짜 빨찌산의 녀장군이라고 말이요. 동무가 목숨걸고 헤쳐온 투쟁의 길이 모두 떠올랐소. 그때 내가 어려운곳엔 모두 동무를 보냈지.

신갈과지구 지하공작, 청봉후방밀영, 600벌의 군복제작... 나와 함께 싸울 때도 고생을 많이 했지. 젖은 내 옷을 품에 안아 말리워주던 생각이 났소. 그때 추위에 얼어 시퍼렇게 된 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소. 터갈라진 입술, 얼어서 퉁퉁 붙어 난 손, 다 해진 군복, 자신은 것처럼 혹사하면서 나를 위해 짱그리 쏟아붓는 그 정성이 너무도 고마워 속으로 눈물을 쏟았소. 정숙동무가 있었기에 그 모진 혹한속에서도 내 발이 시리지 않았고 내 몸이 얼지 않았소. 비발치는 탄우속에서도 정숙동무가 막아섰기에 내 몸엔 탄알 한알 스치지 않았소.

그래서 아마 동지들은 더 극성스레 나를 떠밀어 정숙동무의 곁에 세워주었을거요.

지금 그 사진이 우리 인민들속에 귀중히 전해지고있소.)

(수령님, 저는 영원히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살고있습니다.)

(정숙동무, 그때는 타향에서 맞는 봄이었는데 지금은 정숙동무의 고향에서 맞는 가을이요. 그때 우리가 그려보던 그 모든것이 풍만하게 무르익은 가을이란 말이요. 이 가을은 결국 정숙동무가 안아온거요. 정숙동무가 한생을 짱그리 바치고 밀거름이 되어 이룩해놓은 영원한 가을이요. 그래서 난 이 가을날에 나뿐아니라 우리 인민이 드리는 감사와 축복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다시 왔소. 그 기념으로 우리 빨찌산시절의 그때처럼 웃으며 사진을 찍읍시다.)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었다.

백두산쪽에서, 불어오는 서늘러운 바람도 못있을 그 사연을 속삭이듯 그이의 옷자락을 조심히 날리었다.

사진을 다 찍으시고 승용차쪽으로 가시던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금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이제 가면 언제 또 와보겠는가?

작별인사를 나누고싶지 않으셨다.

수령님께서는 영순이쪽으로 돌아서시었다.

《영순이, 동문 영원히 여기에서 정숙동무와 함께 있겠다고 했지?》

《예!》

영순은 자세를 바로하며 힘차게 대답을 드렸다.

《고맙소.》

수령님께서는 영순이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었다. 그에게 하시고싶은 부탁, 하시고싶은 말이 많았다. 평양에서 떠날 때부터 마음이 먼저 달려온 여기 회령고향집에서 남기고싶은 말이 무엇이던가.

《영순이!》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강사의 이름을 부르시었다. 《여기 회령은 참 뜻깊은 고장이요.

김정숙동무가 온 나라 인민들과 만나는곳이거든.》

수령님께서는 드넓은 교양마당을 다시금 둘러보시었다.

《동무는 김정숙동무를 대신해서 여기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부탁을 전해주오.

김정숙동무는 지금 무얼 부탁하는가.》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지금 우리에게 **김정일**장군을 잘 받들어달라고 부탁하고있소. 그건 나의 부탁이기도 하오. 김정숙동무가 나를 받들어 한생을 바쳐온것처럼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숙형의 충신이 되어 **김정일**장군을 받들어달라는것이 나의 소원이요. 말하자면 여기 회령고향이 온 나라에 김정숙형의 충신을 낳는 고향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나의 뜻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수령님.》

영순이가 숙연히 말씀드리었다.

《자, 그럼 잘 있으라구.》

수령님께서는 중절모를 쓰시고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향해 군대식으로 손을 드시었다.

(정숙동무, 내 다시 오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권총집우에 손을 얹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수령님을 바라드리시었다.

# 빛나라 주체의 원년이여

차영도

수령님을 못잊어  
그날은 하늘에 해가 지지 않던 날  
그이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주체의 원년으로 결정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 집집의 창문을 두드렸다

이미 우리 서로가  
스스로 깨닫고있으면서도  
다는 몰랐던 1912년의 그 의미!  
새겨보며 다시 새겨보며  
터질듯 부푼 가슴에  
뜨거이 안아보는 주체의 원년이여

정녕 어버이수령님이 못견디게 그리워  
다시금 눈시울 젖게 한 이 결정은  
내 작은 가슴에도  
이름못할 걱정의 파도를 일으켰으니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누구라없이 이렇게 흔들었다

우리 생활의  
그리도 아름다운 평롱한 무지개가  
아득히 뿌리를 둔 만경대  
거기서 억년 가도 흐릴줄 모르는  
가없이 푸른 우리의 하늘이 열리고  
행복한 오늘의 이 모든 날과 날이  
그 원점을 둔 1912년

이 땅의 그 어느 녀인이 안고선  
이름모를 아기의 밝은 웃음도  
그 삶의 지평선에서 떨기져 피어났음을  
사무치도록 깨우쳐주는 결정이여

가사

인류 백만년사에  
주체시대의 첫 해와 달이 뜬 1912년이여

오 가슴벅차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새 삶을 주고  
해빛을 주고 자주의 봄을 준  
어버이수령님 탄생의 해-1912년을  
력사는 주체의 원년으로 이름했노니

환희로 뛴어번지라  
주체의 원년을 받아안은 조국이여 강산이여  
무심한 초목조차 싱싱한 그 푸른 줄기에  
돌기돌기 해돋이를 새로이 감고나선 땅이여

나의 작은 이 심장만으로  
이 아름찬 원년의 무게를 다 안을수 없구나  
수령님위업을 하늘끝에 쌓아올린  
이 나라 력사에  
금빛으로 빛나는 날이여

세월의 억만년 주추를  
그 억센 기둥에  
깊이도 뿌리박고 선 1912년이여  
우리 혁명의  
흔들림없는 력사의 새 기틀이여, 원년이여

이 원년우에  
천년토록  
행복의 무궁세월이여 흐르라!  
억년토록  
조선의 창창한 앞날이여 밝아오라!

## 인민의 첫 생각

홍문수

노을이 피어나는 새날이 오면  
깨어나 마음속에 하는 첫 생각  
장군님 지난밤도 안녕하십니까  
당중앙 하늘가를 우러러보네

이른봄 산과 들에 꽃이 고을 때  
그 향기 안아보며 하는 첫 생각

이런 날 장군님 오시였으면  
자애론 그 영상 그리여보네

행복한 오늘에도 하는 첫 생각  
준엄한 나날에도 지닐 첫 생각  
장군님 높이 모실 그 한생각은  
대를 이어 꽃피날 조선의 마음

## 《호박풍년이 들었다》

백두산에서 서남쪽으로 얼마를 내려가면 태고연한 밀림이 우거진 평평한 서강고원이 펼쳐져있다.

그 고원지대에는 마치 바다속의 섬과도 같이 우뚝 솟은 간삼봉이라는 세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날 19사단소속 함흥74련대 김석원은 서울로 올라오라는 조선주둔군사령관의 명령을 받았다.

(왜 나를 부를까?) 김석원은 영문을 몰라 두루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전날밤 참으로 피이한 꿈을 꾸었다. 난데없이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거리며 자기네 집 대문으로 들어서서는 꿈이었다.

석원은 먼길을 떠나기 전날밤에 꾸는 꿈이 길흉화복을 예고하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해몽을 잘한다는 어느 늙은 소경을 불러들이었다.

석원의 말을 다 듣고난 소경은 룡갑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지 손을 곱작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허허, 매우 좋은 꿈이올시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이름도 모르는 바다의 진미를 다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을거웨다.》 하고 말했다.

석원은 입이 귀밑까지 돌아갔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내 운수가 나쁠수가 있나.)

이놈은 뜬 기분으로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정말 김석원은 조선주둔군 사령관한테서 《대일본제국》에 충실한 《공로》로 앞가슴에 훈패를 받아안았고 게다가 진수성찬으로 후한 대접까지 받았다.

그후 한달이 좀더 지나 이번엔 김석원은 일본도쿄에 있는 대본영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전날밤 석원은 또 꿈을 꾸었는데 전번과 똑같이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거리며 자기네 집 대문으로 들어서서는 것이었다.

석원은 해몽을 잘하는 그 소경을 또 불러들였다.

소경은 석원의 말을 다 듣더니 이번엔 룡갑도 하지 않고 중얼거리도 없이 대번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꿈 역시 좋은 꿈이올시다. 일본으로 건너가면 대본영의 장군들이 반겨맞아줄것인즉 아마 이번엔 비단옷감이 여러벌 생길것이웨다.》

석원은 저절로 입이 버그러지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날로 석원은 일본을 향해 길을 떠났다.

대본영에 이른 석원은 소경의 말대로 후한 대접을 받은데다가 돌아올 때는 여러가지 비단옷감들까지 가지고왔다.

그래 석원은 마음이 즐거워져 흥얼흥얼 코노래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석원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토벌》을 위해 장백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밤 김석원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 꿈에 역시 또 돼지가 나타났는데 전번과는 달리 그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거리며 호박밭에서 호박을 먹는 꿈이었다.

(이번 길에도 역시 좋은 일이 생길것이다. 돼지가 호박까지 먹는 꿈을 꾸었으니 이 아니 좋은가.)

흐뭇해진 석원은 이번엔 아예 소경을 불러 해몽하려 하지조차 않았다.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석원은 벌써부터 《토벌》에서 무공을 세우고 돌아올 자신을 그려보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다음날 함흥역전광장에서는 장백으로 《토벌》을 떠나는 함흥74련대 《토벌》대원들을 위해 요란한 의식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제는 74련대 《토벌》대장인 김석원놈을 부추겨주느라고 함흥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토벌》대의 소위 《장행회》라는것을 벌여놓았던것이다. 말하자면 《토벌》을 떠나는놈들을 전송해주는것이였다. 석원은 일본놈이 쥐여준 긴칼에 일본쇠뿔바가지를 눈섭밑까지 내리쓰고 《무운장구》라고 쓴 뿔띠를 어깨에 두르고 일본놈의 군기 앞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놈은 지껄여댔다.

《내 이번에 가면 유격대를 잡아가지고 온다. 모두 기다리라!》

열병든놈의 신음소리같은 희떠운 소리를 켜친 석원은 곧 졸병들과 함께 함흥역을 떠났다.

혜산에 이른 놈은 국경수비대원들을 모아놓고 또 한바탕 지껄여댔다.

《…너희들은 이번에 내가 령솔하는 정예부대가 얼마나 훌륭한 전투를 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기업을 뿜은 놈은 살기등등하여 압록강을 건너갔다.

장백현에 이르자 이번엔 또 위만군과 산림경찰대원들을 모아놓고 지껄여댔다.

《이번 전투에서 대일본제국군인의 위풍을 보게 될것이다.》

이렇게 이놈이 이르는곳마다에서 엄포를 놓으며 위세를 뽐내는것은 자기의 꿈을 할에비보다 더 믿었기때문이었다.

놈은 대병력을 이끌고 13도구를 지나 우거진 숲길을 헤치면서 간삼봉밑에까지 기여들어갔다.

놈은 신출귀몰한 유격대와와의 첫 싸움에서 된배를 맞았다. 유격대는 한명도 보이지 않는데 산지 사방에서 총알이 비발치듯 쏟아졌다.

(어디에 유격대가 있는가?)

석원은 망손으로 머리를 싸쥐었다.

그저 갈팡질팡하던놈은 부랴부랴 참모들을 불러세우고 졸병놈들의 사기를 회복하여 다시 공격으로 내몰 궁공이를 하였다.

바로 이때 탄알이 날아와 놈의 오른다리를 꺾고나갔다.

《악!》하는 짐승의 소리같은 비명을 지르며 석원은 그자리에 푹 꺼꾸러졌다.

놈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디를 보나 왜놈의 시체뿐이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모조리 뒤로 내뺀고있었다.

석원은 《아- 마지막이구나.》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피를 흘리며 간삼봉의 오솔길로 내빼고말았다.

이번엔 자기의 그 돼지꿈이 전혀 맞지 않았다.

졸병들의 틈에 끼워 정신없이 도망치던놈은 항일유격대의 총소리가 좀 뜸해지자 가쁜 숨을 쉬면서 머리를 푹 떨어뜨렸다.

처음에 함흥역을 떠날 때는 2천여명의 싱싱한 대부대를 끌고왔는데 남은놈들은 대개가 다리가 부러진놈, 팔이 떨어져나간놈, 이렇게 병신이 된 놈들까지 다 모아야 겨우 500명미만이였다.

(꿈자리가 좋았는데 이번엔 왜 두들겨맞기만 할가?)

놈은 꿈에 돼지를 본것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꼴이 되고보니 환장할 지경이었다. 이제는 더 어찌는수 없이 송장이라도 끌고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송장을 끌고가자니 그것이 하도 많아서 운반할 도리가 없었다. 한참 머리를 앓던놈은 묘한 생각을 해냈다.

(죽은놈의 대가리만 잘라서 싣고가자.)

그리하여 죽은놈들의 대가리를 쳐서 마대에다 여러개씩 넣었다. 놈들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그 마대를 나르게 했다.

여름철이라 역한 송장내가 코를 찔렀다.

한 농민이 마차에 처실은 마대짐을 가리키면서 경비병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니, 이게 뭐니까?》

경비병은 시끄럽다는듯 생각나는대로 대답했다.

《보면 몰라? 호박이야, 호박이란말이야.》

농민은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와하는 눈길로

다시 물었다.

《아니?! 사람이 먹는 호박말입니까?》

놈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농민은 신기하다는듯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큰소리로 《거참, 모를 일인데요. 군대어른들이 간삼봉에서 호박농사를 짓는걸 난 보지 못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졸병놈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어이, 우리나라 호박농사 지었다. 지었어!》

농민은 그 말을 짐짓 감탄하며 받았다.

《예- 거 호박농사가 대단히 풍년들었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차까지 내어 실어주니 호박몇개쯤은 있겠지요?》

바빠맞은 그놈은 당황하여 《아니다. 이걸 특수호박이다. 특수호박!》하며 달구지를 빨리 몰라고 고아냈다. 달구지군들은 서로 눈들을 깜벅거리며 이야기하였다.

《간삼봉에 호박대가리풍년이 들었군!》

석원은 농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 호박대가리풍년?》

석원은 돌아오자마자 해몽을 해준 그 늙은 소경을 불러들여 꾸념을 하였다.

《꿈에 돼지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번엔 이꼴이 되었는지 말 좀 하오. 장백으로 떠나기 전날밤에도 난 돼지가 호박을 먹는 꿈을 꾸었다말이요.》

《허허, 날 탓하지 마시우다. 난 첫번째꿈과 두번째꿈은 해몽을 해주었지만 세번째야 내가 해몽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소경은 태연하게 말했다.

《처음 꿈에 돼지가 나타나 대문으로 들어오며 꿀꿀거린것은 배가 고프다는 뜻이니 먹을것을 달라는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처음 꿈에 돼지가 나타난것은 먹을것이 많이 생길 조짐이요. 두번째 돼지가 꿀꿀거린것은 배는 부른데 출다는 뜻이니 복대기를 썩워달라는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옷감이 많이 생길 조짐이요. 세번째 꿈에 돼지가 나타나 꿀꿀거린것은 배도 부르고 잠자리도 뜨뜻한데 그냥 꿀꿀대니 주인이 매를 들것이 아니겠소. 게다가 돼지가 호박을 먹으니 예로부터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간다고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있다는 예고이니 꿈자리가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쁘겠소?》

석원은 더 할말이 없었다. 그러니 꿈이 얼마나 신통한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천출명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와 맞섰으니 이런 벌을 받은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이때부터 왜놈들을 야유하여 《호박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우리 인민들이 즐겨 쓰게 되었다.

김우경

## 소사하의 아침

림공식

그날따라  
소사하의 유서깊은 초가집  
정갈한 마당가에 비끼  
아침해살은  
어이하여 유난히도 찬란했던가

병환속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시여  
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그 아드님께서 가져오신  
줍쌀 한말을 두고  
그이의 효성에 앞서  
조국해방의 큰뜻을 먼저 헤아리시는  
아, 강반석어머님

뜨거운 눈빛으로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마디마디의 말씀  
얼마나 엄하게 울리었던가

한가정의 아들이기전에  
만백성의 아들이라고  
집걱정을 하기전에  
혁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준절히 깨우쳐주시던 그 목소리여

귀중하신 아드님의 지성어린 효성도  
자식된 아드님의 간절한 소망도  
마음속에 깊이 묻으시며  
나라 찾을 그 맹세를 다시금 일깨워주신  
조선의 어머니

-떠나거라  
어서 떠나거라!

성스러운 해방전의 한길로  
흔연히  
아드님을 뜨거이 재촉하시는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이여

정녕 그것은  
수난당한 조국땅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민족의 아드님을  
혁명의 폭풍속에 곳곳이 세우신  
태양의 어머님만이 하실수 있는  
불멸의 위업이거니

아,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날  
소사하의 그 아침은  
한없이 자애롭고 역센  
강반석어머님의 마음에 받들려  
해방의 새 아침으로 이어졌어라

## 안도의 밀림에 울린 고고성이여 외 2편

리광근

화창한 4월의 봄이 오니  
지금도 력력히 들려와라  
예순여섯해전 그날  
안도의 밀림에 울리던 그 고고성

푸르청청  
이갈과 분비의 수림을 흔들며  
이 나라 인민무력의 탄생을 알리던  
조선의 우렁찬 고고성이여

끝끝하고 림림한  
총을 멘 열혈투사들의 대오앞에  
한손 높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고 하신 그 선언

아 백두산기슭에서 터친  
장엄한 조선의 그 고고성은  
압록강, 두만강너머 강산을 주름잡으며  
일제격멸의 총포성으로 합쳐지고  
조국해방의 고고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평양의 개신광장에 넘쳐  
미제를 쳐부신 전승의 광장에 차올랐으니

그렇게 메아리쳤어라  
90년대 4월의 봄하늘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음성으로!  
건군절 그날에-

보무당당히 지축을 울려주시던  
그 음성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퇴성같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음성은  
안도밀림의 그 고고성과  
세차게 합쳐져 메아리쳤어라

지구는 흠칫 놀랐어라  
백두산기슭을 흔들던 력사의 그 선언과 함께

우리 장군님의 그 음성에  
온 누리가 드르릉 울렸나니

안도밀림의 고고성보다 뜨겁게  
더 세차게 강산을 울려  
아 그렇게 울리고 메아리쳤어라  
백두산기슭에서 터친 건군의 고고성은  
경애하는 우리의 장군님 우리러  
조국통일 고고성으로 높이 울리리

## 노래는 울려울려

즐거운 저녁 온 가정의 박수속에  
손녀애는 자랑스러이  
제법 무대에 나선듯이 인사도 깎듯이 하고  
노래를 부른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노래가 흐를수록 나에겐  
이 가슴을 우렁우렁 울리는  
못잊을 노래의 그 음성  
아 생의 그 마감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감회깊이 부르신  
《사향가》

진정 귀에 쟁쟁하구나  
아버이수령님의 웅글은 그 음성  
무게있게 이 가슴을 울려주던  
그 뜻깊은 노래

노래의 그 구절구절에 잠겨  
그날의 수령님결으로 떠실려가는 이 마음  
고령의 그 년세에도 음 하나 틀리심없이  
회억에 잠기시여 열정적으로 부르시던  
수령님 그 영상 뜨거워라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신 날로부터  
장장 스무해 험산준령을 넘으시던  
그 모든 혈전의 나날이 안겨와  
뜨겁게 젖는 마음이어

그렇게 넘고 헤치시여 기어이 찾으신 조국  
경애하는 장군님 해빛넘치는 오늘의 내 나라여  
세월을 넘고넘어  
인민의 가슴속에 높이 울릴  
수령님의 사랑  
영원한 조선의 노래여

## 병사는 서있다

청솔의 숲속에 달빛을 이고  
나어린 병사는 홀로 서있다  
앞에는 벌건 이슬이 내리는 분계선 철조망  
뒤에는 난알향기 흐르는 벌판  
이따금 풀벌레소리만이 들릴뿐

정적이 깃든 병사의 초소  
허나 그의 심장엔 정적이 깃들지 않아  
이따금 풀벌레소리만이 들릴뿐  
이 감시초엔 아직도  
못잊을 그날의 걱정이 젖어있어라

바로 이곳이다  
산너머 들너머 수백리  
못내 그리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외진 이 초소를 찾아주셨으니

병사는 그렇게 서있는것이다

장군님 오셨던 그날은  
하루 또 하루 지나건만  
마음속에 가지 않는 그날  
오늘도 병사는 그날의 걱정안고 서있어라

마치도 내 젊은 시절에  
우리 중대 초소를 찾아주신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어제날 이 병사의 심정 그대로  
장군님을 만나뵈온 그날에 살아라

어제와 다름없이  
사랑과 믿음이 뜨거운 초소  
여기서 병사는 변함없이 서있다  
경애하는 그이께 보고를 드리며  
오늘도 끄떡없이 서있어라  
-최고사령관동지, 초소는 절벽입니다!



## 추억의 밤에

박해란

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태양절을 앞둔 뜻깊은 밤이다. 아침해가 솟아오를 시각을 기다려 산천은 밤이슬에 깨끗이 몸을 씻고 새날을 향해 분과 초는 서둘러 내달은다.

자정이 가까왔으나 거리에는 온통 불빛이다. 그야말로 불야경의 바다를 방불케 하는 밤이다. 행복의 수호신마냥 명멸등은 쉼없이 반짝이고 집집의 창가마다에도 불빛이 환하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밤 어버이수령님을 자기들의 일터와 가정에 모시였던 그날의 행복을 저 불빛아래 펼쳐놓고있는것이나 아닌지.

땡- 땡-

밤 12시를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가 불빛 환한 창문들을 다정히 두드린다. 한방 가득 모여앉아 꽃바구니를 만들고있던 우리 온 일가친척들의 마음에도 새날의 종소리는 유정하게 울려온다.

우리는 일손을 멈추고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리러 정중히 섰다. 온 가정을 대표하여 나의 외할머니 (오중성의 안해)가 이슬처럼 투명한 유리잔에 정히 술을 부었다. 나의 외증조부인 오태희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가문의 가풍으로 지켜오는 관례대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인사를 올리였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4월 15일을 앞둔 시각이면 가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축하잔을 드리곤했었다.

할아버지가 우리결을 떠난지도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이밤도 온 일가친척이 모여 우리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술잔을 받쳐든다.

유리잔에 맑은 액체가 고여오른다. 우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피여오른다.

나는 눈을 들어 우리 일가의 대표자인 외할머니를 바라본다. 술잔을 고이 받쳐든 할머니의 손이 바르르 떨린다.

그 손등위로 눈물이 방울져 떨어진다. 할머니의 가슴속에서 못잊을 추억의 샘줄기가 터진것이다.

력사의 갈피에 깊이 새겨진 그 자욱을 어찌 눈물없이 더듬을 수 있으랴. 오씨집안의 둘째며느리로 갓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로 할머니의 추억은 깃을 편다.

...왕청현 석현땅에서 식민지노예의 쓰디쓴 운명을 맛보며 살던 오태희할아버지네 집에 홍범도가 행색마저 람루한 독립군부대를 끌고 길량식을 얻으려 들린것은 주체10(1921)년 정월의 황혼비낀 저녁이었다. 왜놈들의 폭압에 탄약이 떨어지고 생명조차 더는 부지할수 없게 된 홍범도는 슬하에 남은 100여명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머나먼 로씨야땅으로 망명해가고있었다.

민족의 뉘마저 말짱 걷어안고 저녁노을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를 쓸쓸한 마음으로 바라우며 할아버지는 수령이 없는 민족의 슬픔, 나라없는 백성의 설움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던가.

절망이 가득찼던 할아버지의 가슴에 새날의 광명이 비쳐든것은 주체19(1930)년 9월 새벽노을이 피어나던 가을날의 청신한 아침이었다.

검은 학생복을 입으신 젊으신분이 석현땅의 막바지기슥까지 찾아오시여 토방아래서 살림걱정도 함께 나누시고 타향에서 고생많은 백성들의 운명을 의논해주실 때 할아버지는 보통분이 아니심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들들과 조카들을 둘러보시며 모두 혁명가들이라고, 우리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조선청년들이 혁명가답게 한목숨바쳐서라도 빼앗긴 나라를 꼭 되찾자고 말씀하실 때 할아버지는 이분이시야말로 조선에 려명을 안고오실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굳게 확신하였었다.

정녕 동터오는 그 새벽에 태양의 빛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섰던 우리의 할아버지들- 오중화, 오중성, 오중흙, 오일과 등 혁명의 1세대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품은 태양의 품이였고 진정한 어머니품이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왜놈들 손에 멸족당할번했던 오씨일가가 유격근거지의 붉은 기발아래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누렸고 해방된 그 봄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으로 왔다.

그때로부터 장장 반세기에 걸쳐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온갖 특전과 특혜를 다 받으며 살아온 이 운명전환의 행운은 정녕 파사롭고 은혜로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불빛아래에서 사랑으로 가득찼던 추억의 갈피를 한장 두장 번저간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가문의 후손들에게 옛말처럼

들려주던 이야기의 한토막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오태희할아버지네 집으로 오셨던 그날은 해방된 이듬해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다.

그날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만경대가 바라보이는 조촌의 할아버지 집으로 오시였다. 머리에 무거운 쌀자루를 이고 마당에 들어서시는 백두의 녀장군을 향하여 황망히 마주 달려나온 할아버지를 반겨주시며 어머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오늘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씨 일가가 근거지에서 고생하던 일을 회고하셔요.

왜놈들의 <토벌>에 집이 불타고 발곡식마저 재가 되어 온 식구가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집기둥을 다시 박던 생각을 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 올리려고 인민들이 보내온 이 햇쌀을 로인님에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감격하여 더운 눈물만 흘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도 크면 아버님, 어머님처럼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잘 모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원에서 따온 밤을 한줌 꺼내드시고 한알한알 껍질을 벗겨 그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고생했던 옛일을 생각하며 또 우실가봐 이렇게 어머님을 따라왔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시려는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뜻깊은 노래를 불러주시였다.

그날 오태희할아버지는 해빛밝은 벽에 정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모습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노래를 부르시어도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부르시고 말씀 한마디를 하시어도 수령님의 뜻을 이어가실 일념으로 껍 차넘치신 어리신 장군님을 우러르던 할아버지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향하여 큰절을 드리였다.

《어머님, 우리 민족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과거 저 어린 자제분이시야말로 조선에 태양으로 솟아오른 위인이 분명하옵니다.》

진정 어리신 장군님의 밝으신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태양의 모습을 본 나의 할아버지이기에 그는 심장을 터쳐 20세기와 21세기의 태양을 함께 모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던것이다. 그때 벌써 태양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 할아버지의 심장속 탄성은 우리 일가의 1대로부터 5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인생체험으로 새긴 심장의 환호였다.

문득 방안을 둘러보니 족자에 씌여 벽에 걸려있는 오씨일가의 좌우명이 눈앞에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섰던 멀고 험난한 그

혁명의 길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심장의 붉은 피로 새겨넣었던 그 좌우명이.

이국의 초야에 《진취위성일심동체》의 녀를 남기고 봉분도 없이 묻혔던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들가운데는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들처럼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선 인민군군관도 있으며 작가도 과학자도 그리고 당보의 이름있는 기자도 있다.

우리들의 운명을 대를 이어가며 보살펴주시는 분, 그분은 태양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나의 귀가에는 오태희할아버지가 림종의 시각에 남긴 유언이 소연히 들려온다.

《애들아, 왜놈들 손에 이미 목숨이 끊길뻔했던 이 늙은이가 수령님덕분에 술한 자손들을 거느리고 백살가까이 살아온걸 생각하면 여한이 없구나. 바랄것이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오래도록 모시지 못하고 가는것이다. 너희들은 이 늙은이의 소망을 부디 잊지 말고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거라. 수령님의 대를 이으실분은 오직 장군님밖에 없느니라. 수령님의 충신일가가 장군님의 충신일가로 대를 잇는것은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거라.》

평생에 민족불행의 슬픔과 수령복을 받은 새나라 백성의 기쁨을 다같이 체험하며 생의 종착점에 다달은 98살 고령의 할아버지가 우리결을 떠나면서 남긴 이 유언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눈굽이 뜨거워오르군한다.

추억은 과거에 대한 회고만이 아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한 결심을 굳히는 맹세의 출발선이기도 하다.

이밤 집들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꽃들을 고르고 플라 바구니를 엮고있는 일가친척모두의 가슴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인생의 링마루우에 걸어놓고 한생토록 지켜나가려는 결심이 한덩어리로 뭉쳐진것이다.

어느덧 추억의 밤은 소리없이 흘러가고 창밖에선 태양이 대지를 향하여 금빛해살을 아낌없이 뿌려준다.

참으로 밝고 따사로운 태양절의 아침이다.

이 아침이 그토록 밝고 따사로운것은 바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양절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고 찬 겨울의 깊은 밤에도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마련하신 아침이기때문이다.

만수대 언덕으로 꽃물결이 흐른다.

태양절의 첫아침을 여기 만수대언덕우에서 맞으려는 우리 일가, 아니 이 나라 전체 인민의 념원인양 태양이 온 하늘에 붉은 노을을 펼쳐준다.

## 태양절

안경철

어느 한 작가는 영원이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바다가 모래불에 덩굴던 자기의 소꿉시절을 회상  
했었다. 해별에 빨갛게 탄 발가숭이소년...

해감탕내 푸릿한 바다가에서 해종일 뛰놀다 모  
래불에 누워 이글이글 불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소년은 엉뚱한 공포심에 잠겼다.

저 해는 매일같이 불타는데 이제 다 타버려서  
없어지면 어쩔가, 하늘공중에 떠있는 저 불덩이  
는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라도 방  
금 내 머리우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 불덩이는 소년의 머리우에 떨어진것  
이 아니라 멀리 바다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음날 다시 떠올랐으며 그 소년이 어른이 다 되  
도록 불타버리지도 않았다.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가 태양의 돌레를 도는  
자그마한 행성에 불과하다는것, 태양은 영원히  
불타며 존재한다는것을 알기까지 그 소년은 얼마  
나 참기 어려운 고심을 했으랴.

이런 엉뚱한 동심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진대 잠깐만이라도 그 시절을 회억하며 눈길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태양, 눈부신 태양!

무엇이 불타기에 저리도 눈부신가.

무엇이 끓기에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억조창생이라 불리우는 이 땅의 생명체들이 저  
거대한 빛과 열에서 생명을 받는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 태양은 영원히 불  
타며 존재한다.

영원히 불타며 존재하기에 태양은 진부할줄 모  
르며 언제나 새롭다.

어제도 솟았고 래일에도 솟지만 어제의 해돋이  
가 오늘도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것이  
다 .

오늘이 어제의 반복이 아니고 래일이 오늘의  
반복이 아니듯이 태양은 언제나 새롭다.

섬광도 오래 지속되면 그 빛을 잃는다.

그러나 섬광같은 빛으로 영원히 우주를 밝히면  
서도 진부를 모르는 태양의 거대한 발산력.

그래서 인간은 태양을 숭상한다.

만물에 생명을 주는 자애의 힘, 암야를 밝히는  
찬란한 빛과 뜨거운 열, 그의 영원성을.

가장 신성한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녀으로,  
가장 큰 희망으로 인간은 태양을 숭상한다.

얼마나 숭상해왔던가.

태양의 빛발이 만든 무지개를 타고 오색채운이  
령룡한 하늘나라로 가보고싶었던 인간,

원숭이의 요술지팡이에 실려 인간이 처음 올라  
가본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천궁은 신비로운 황홀  
경.

《절대의지》의 신도 하늘에 있어 《태양신》을  
부르며 굽어보살펴달라고 기원하던 인간이었다.

태양이 빛나는가를 의심치 않거든 자기의 사랑  
도 의심치 말아달라던 련인들의 사랑의 언약은  
성스러운 태양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신뢰였으며  
생활의 희열을 구가한 수많은 태양의 노래는 인  
류가 체험한 진리에 대한 절대의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태양의 도시도 공상했다.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인간의 리상향 태양  
의 도시, 그 도시에는 사적소유가 없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다.

로동은 의무일뿐아니라 공민들의 생활상 요구  
이며 힘든 로동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존경을  
받는다.

주민들은 로동을 쉽게 하고 풍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의 성과, 최신의 발견과 발명을  
광범히 리용한다.

생산물의 풍요와 수요에 의한 분배가 보장되는  
태양의 도시의 주민이 되고싶어한 인간.

력사적인 제한성은 있었어도 자기의 본성과 가  
장 부합되는 리상적인 사회에 대한 공상의 세계  
를 오직 태양의 이름으로만 부르고싶었던 인간이  
아니었던가.

인류의 진리이며 인류의 희망이며 인류의 미래  
인 태양.

태양은 위대하다. 이 위대한 태양의 명절을 맞  
는 우리 인민, 우리 조국.

우리의 푸른 행성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태  
양의 찬가는 많아도 태양절을 제정한 민족은 오  
직 우리 민족밖에 없으니 주체년호로 빛나는 내  
조국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주는 태양절이여! 태  
양민족의 명절이여!

봄빛 따사로운 4월, 3천리산하가 태양을 우러  
러 환희의 걱정을 일으키는 이날, 정녕 이날에  
태양은 인류의 하늘가에 솟아올랐단말인가.

주체1년 4월 15일!

그날은 20세기초엽의 봄날이었다.

봄은 꽃을 유린당하고 인간은 삶을 유린당했던  
금세기초엽.

제국주의 파쑈의 광풍으로 세기의 하늘가에는  
칠칠암야.

이 어둠을 불태우고 수난당한 우리 민족과 인  
류의 앞길을 밝힐 력사의 사명을 안고 주체의 태  
양이 솟아올랐다.

오늘 온 세계가 마음의 고향, 혁명의 성지라  
부르며 끝없이 찾아오는 만경대.

소나무숲 아름다운 만경봉을 붉게 물들이며 거  
연히 솟아오른 그 태양의 빛밭에서 인간은 주체  
라는 생명을 받아안았고 인간의 존엄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주의 시대가 열렸다.

오랜 세월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짓밟히고 억  
눌려 살아온 인간이 숙명의 탈을 벗고 생명이 약  
동하는 자기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인  
간이며, 너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창조자!

인간우에 인간이 없고 인간이 창조 못할 세계  
란 없으며 그 무궁무진한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때 인간자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대한 사상.

세기를 흘러오며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해 인류  
가 찾던 진리이며 인류의 희망이며 인류의 미래  
인 주체사상!

이 위대한 사상을 밝히신 주체의 태양, 그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흘러온 20세기와 흘러갈 20세기가 높  
이 받아들여올린 인간태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새 세계,

그이는 우주의 중심,

조선의 만경대,

가난한 인민속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수령님

그이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 그이의 존함을 부를 때마다 우리  
의 가슴속에 가득히 안겨오는 태양의 미소, 환희

의 걱정이며,

그 걱정의 물결이 사뭇쳐온 력사의 기슭은 어  
디...

그곳은 멀리 우등불 타오르던 화전의 언덕, 카  
륜과 고유수의 거칠은 들길...

망국의 설음으로 웅어리진 우리 민족의 가슴을  
훈훈히 녹여주며 울리던 한별의 노래.

침략자 일제에게 빼앗긴 내 나라, 내 민족을  
찾기 위하여 결사항전에 나선 조선청년공산주의  
자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한별만세의 웨침이며.

침략자의 검은 구름과 종파와 사대, 교조의 먹  
구름으로 캄캄한 조선의 밤하늘에 빛나는 새별.

그 별빛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받아안고 한별  
의 위성이 되리라 맹세를 다지던 열혈의 심장들.

그 뜨거운 심장들에서 분출한 태양의 존함

**김일성!**

진정 그이는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대성인이시기에 력사는 혁명의 권리, 인민의 권  
리로 영원한 태양의 존함을 드린것이다.

자연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만민의 태양은 오직  
한분!

돌이켜보건대 력사에 일컬은 위인은 많았지만  
태양으로 불리운 위인이 있었던가.

광활한 대륙을 자기의 말발굽으로 갈아엎었다  
는 유목종족의 인물도 있었고 세계의 정치력사를  
움직여보려던 정치가, 천하를 다스리겠다면 권  
세가도 있었다.

희미한것이나마 그들에 대하여 력사가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직이나 칭호가 전부였다.

그러나 태양은 칭호도 아니고 관직도 아니다.

관직이나 칭호가 닿지 못할 그 사상과 업적의  
아득한 높이에 태양의 위대성이 있으며 만민의  
우러름이 있다.

만민의 환호, 만민의 우러름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들어보라.

우리 인민이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던 개선의 광장, 그 광장에 울려퍼지던  
《**김일성**장군 찬가》.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그 누가 만민의 태양을 가리울수 있단말인가.

만민의 가슴속에 환히 비치며 만민을 소중히  
감싸안은 따사로운 그 해빛.

마음속 한점 그늘마저 가시여주고 행복만을 안겨준 그 따사로움에 원한했던 원철로가 녹아버리고 낡은 사회의 근성이 극복된 지난날의 지식인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군의 대오에 당당히 들어섰다.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민의 지상락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기쁨에 자신의 행복을 두시고 한평생 그이 타고가신 《인민행》 열차.

그 열차의 궤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궤도에 찍혀진 1만 8천여곳.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어느 한순간도 잊으신적 없으셨던 만경대고향집이었건만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였던 그날로부터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 그날까지는 1만 7,800여일.

어느 하루도 쉬신적이 없으시었다...

이 땅의 공장과 농장, 탄광과 광산, 건설장과 타야소, 평범한 가정에는 새겨져있다.

찬비에 젖으시며 눈길을 헤치시며 인민을 찾아가셨던 그날들이 ...

태양은 불타며 존재한다.

인민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태양!

태양은 영원하다.

태양의 위업은 영원히 빛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영원히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다.

사상도 령도도 품도모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서인 위대한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그 길에 지뢰밭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태양의 선언을 듣는다.

**김정일**동지, 그이는 사회주의승리의 태양!

인류의 사회주의위업에 조성된 난관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비렬한 책동으로 빚어진 일시적인 난관이며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천명하신 그이앞에 세계는 경탄한다.

《**김정일**, 그이는 21세기의 향도자!》

《그이는 사회주의의 태양!》

《조선은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

외국의 한 인사는 말했다.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 강의한 신념과 의지, 신비한 지략은 문무를 겸비한 정치의 최고극치이다.

이것은 21세기 정치의 리상으로 될것이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필승불패일것이며 세계의 사회주의의 전도도 그이 계시기에 양양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다그치고 있다.

자력갱생정신으로 나래치는 이 강행군은 신념과 의지가 강할 때만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신념의 강행군.. 의지의 강행군이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이며 이 신념과 의지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이다.

대소한의 추위,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자강도땅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의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의지.

중공업을 핵심으로 자립경제를 부흥시킬데 대한 우리의 경제건설로선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

단 며칠어간에 6천여리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족잡도 잊으신채 자력갱생의 더 큰 불길을 온 나라에 지펴주신 장군님의 철의 의지.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자강도의 한 너인은 뜨겁게 말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도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스럽게도 동행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날동안을...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하루에 두시간도 쉬지 못하시였습니다.》

제가 거듭 간청올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저의 등을 떠미시며 입술이 다 부르렀다고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단 며칠어간에 나는 입술이 부르기는데 1년 열두달을 내내 불철주야하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피로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며 전 그 6천리를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어찌 피로를 모르시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태양의 신념과 의지로 피로를 물리치시고 우리 혁명을 이끄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그이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은 눈부시다.

주체의 태양, 사회주의승리의 태양이 빛나는 태양절이며, 태양민족의 영원한 명절이며!

## 영생의 노래

류만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우에 더더욱 아름답고 승엄하게, 뜨겁고 절절하게 울려퍼지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대양이십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심장에서 울려퍼진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세기의 하늘가를 진감한 그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는 우리 혁명의 년대와 더불어 줄기차게 창조되어왔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된 새 조선의 위대한 대양으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거창한 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세기의 위인으로 열렬히 칭송하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만민의 심정을 담아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훌륭히 창작하였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은 우리 시문학에서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감정에 대한 심오한 시적일반화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수령님에 대한 노래는 주체시문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그 면모를 시대의 높이에서 더욱 빛내이게 하였다.

우리 시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는 수령님께서 생존해하신 그때에나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오늘에나 변함없이 줄기차게 창작되고있으며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체시문학의 주류로 그 면모를 파시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한결같은 심정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지나온 년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그 숭고한 충성심과 관련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뜻밖에 서거하

시였지만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오늘도 어제처럼 영원히 살아계신다.

우리 인민은 무엇을 하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심정으로 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그 길에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 우리 인민이 누려갈 보람찬 생활과 찬란한 미래도 언제나 수령님의 존함과 한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시문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존시 수령님에 대한 노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함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사상감정이 풍만한 서정의 흐름을 이루었다면 수령님의 서거이후에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과 함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감정을 웅심깊게 반영하는데로 그 서정이 줄기차게 지향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기원은 오늘 수령님을 노래한 시작품들에서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있으며 이 면에서 우리 시문학은 귀중한 창작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집제작),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신운호)와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황진영),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김만영),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명준섭) 등 작품들은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러한 귀중한 창작적성과를 이룩하면서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오하게 노래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한 작품들은 그 제재와 체험된 생활감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바탕에 깔면서 생존시에는 미처 다 몰랐던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절감,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격찬,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덕성은 오늘도 래일도 굳건히 이



어지며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데 대한 절대적인 믿음, 수령님의 유혼을 철저히 관찰하리라는 확고한 결의 등 숭고한 사상감정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시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며 못잊어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을 절절하게 토로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그리움은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혈연으로 이어지고 사랑과 은덕으로 뜨겁게 자리잡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며 시간의 영원속에 식지도, 희미해지지도 않고 더욱 뜨겁게,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움이다.

시 《뵈고싶은 마음》(복장근, 《문학신문》 1996년 28호)에는 이러한 그리움의 감정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7월을 맞는 서정적 주인공의 심정은 새삼스럽게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젖어든다. 하기에 그는 다투어 자라는 곡식을 두고, 과원에 주렁진 열매와 들판에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를 두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한껏 더친다.

30년전 그날에  
수령님께서 몸소 손들어 가리키신  
저 샘물봉산밭들엔  
무성한 기름나무림이  
푸르러 푸르러 설레입니다

...

두견산 양지바른 기슭엔  
창밖은 다충문화주력들이  
키를 재며 솟아나  
은덕마을 새 마을  
새집들이에 흥성이니  
은정속에 천지개벽한 이 땅을 두고  
고마워 목메이는 우리들입니다

서정적주인공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바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고향마을의 천지개벽을 두고 느끼는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정이며 그 천지개벽을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전변의 기쁨과 행복을 수령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엮여진 감정이다.

그리하여 서정적주인공은 어버이수령님을 《꽃피는 장연땅에 다시 모시고픈 간절함》에 가슴적시며 그리움에 마음 젖어들수록 수령님의 유혼을 지켜갈 심장의 맹세를 불태우는것이다.

언제나 수령님을 뵈고싶은 마음, 모시고싶은 마음은 그 간절한 소망속에 길이 간직되어있는것

이다.

이처럼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수령님을 뵈고싶은 간절한 심정을 수령님께서 배푸신 은정과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노래함으로써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어제 또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숭고한 감정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시의 이러한 정서적바탕에는 우리 인민의 진정이 고여 샘솟는 수령님에 대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리와 도덕이 자리잡고있음을 시인은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은 시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장원준, 《조선문학》 1997년 4호), 《수령님과 봄》(유영하, 《문학신문》 1996년 15호), 《마음에 찾아오는 봄》(김영근, 《문학신문》 우와 같은 호), 《4월은 영원하리》(리종덕, 《문학신문》 우와 같은 호)에서도 감동적으로 노래되고있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그것이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봄, 4월의 자연의 계절과의 정서적인 조화속에서 노래되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4월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며 계절치고는 자연이 한창 새 생명의 고고성을 터치며 푸르른 단장으로 일신하는 만발하는 계절이다. 이 뜻깊은 봄, 4월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각으로 하여 한껏 부푸는것이다.

우의 시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와는 달리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4월을 맞는 우리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는 류다른 숭고한 감정이 다양하고 특색있게 노래되었다.

시 《수령님과 봄》에서는 《어느 길가/ 잎새푸른 버들가지 만저도/ 어느 논머리/ 속삭이는 봄물소리 들어도/ 우리 수령님 숨결이/ 가슴메이게 흘러드는 봄》을 느끼면서 《봄날의 하늘이 되고/ 봄날의 대지가 되여/ 만민의 소원 풀어주신/ 우리 수령님》을 노래하였는가 하면 시 《마음에 찾아오는 봄》(김영근)에서는 《꽃만 보아도/ 못잊을 생각/ 4월의 봄이 오니 더욱 못잊어/ 가슴 가득 차오르는 뜨거운 생각》을 터치며 4월이면 자연의 봄에 앞서 먼저 찾아들고 못잊을 간절한 그리움에 젖게 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이라는것을 노래하였다. 또한 시 《4월은 영원하리》에서는 《4월이 오니/ 그리움에 젖어》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는 절절한 심정을 터치면서 《4월과 함께 꽃피나고 열려진/ 이 땅/ 이 하늘/ 4월과 함께 내 누러온/ 영광과 행복/ 4월과 함께 걸어갈 그 길우에/ 뜨거운 이 마음을 엮》으며 4월과 더불어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할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였다. 그런가 하면 시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에서는 어버이수

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리움에 젖어 수령님을 뵈옵던 그날의 추억을 펼치며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이 있어 나의 웃음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 있으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오직 수령님 탄생하신 이날만이 영원히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수령님의 영생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누구나 가슴속에 뜨겁게 고여오르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자연에 의탁하여 보다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다 심오하고 여운있게 정서적으로 노래한 여기에 이 시작품들의 탐구의 세계가 있다.

이처럼 우리 시문학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간직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생활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우리 시문학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과 함께 또한 수령님은 결코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처럼 끊임없이 사색하고 활동하시면서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우리 시인들은 최근년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인민적 감정에 토대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확고히 자리잡고 영생하시는 수령님을 노래하는데 커다란 창작적관심을 돌려 일련의 탐구적 결실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 **《조선의 세월》**(최영화, **《조선문학》** 1997년 7호), **《불멸의 생애》**(김영근, **《문학신문》** 1996년 27호), **《1997년 조선의 담시》**(김철, **《조선문학》** 1997년 4호) 등 작품들은 성과와 교훈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년상에》**라는 부제가 붙은 시 **《조선의 세월》**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코 가신것이 아니라 인민들과 더불어 영생하시며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조선의 세월은 영생의 세월이라는것을 웅심깊게 노래하였다.

수령님 가시여 세해는  
가시었으나  
가시지 않은 세해  
그리움에 사무칠수록  
우리들 마음속 더 깊은곳에  
수령님 생존하신 세해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에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코 가신것이 아니며 절대로 가실수 없

다는것, 지어는 영결식날의 그 비통한 시각에조차 수령님은 절대로 가시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여기서 시인이 중요하게 관심을 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영생을 인민들과의 혈연의 관계속에서 노래하는데 시상을 집중시킨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그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었는데  
어찌 그 인민을 두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떠나시는 길은 없습니다  
인민에게로 오시는 한길만이 있습니다

세해전  
온 수도가 피눈물에 잠기었던  
그 영결식날 평양의 100여리 길도  
수령님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통한 통곡소리는 구천을 흔들고  
절통한 가슴에 땅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 인민을 두고 못가실  
수도의 수백만 인민들에게로  
온 나라 수천만 인민에게로  
오시는 길이였습니다

...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것으로  
혁명을 시작하시고  
인민들속에서 그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짱그리 바치시고도  
다시 인민들속으로 들어오시는것으로  
위대한 생애를 총화하시고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늘처럼 여기시는》** 인민을 두고 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것, 수령님께서 **《인민을 떠나시는 길은 없》**으며 오직 **《인민에게로 오시는 길만이 있》**다는것, 그리하여 **《온 수도가 피눈물에 잠기었던 그 영결식날 평양의 100여리길도 수령님 가시》**는 길이 아니라 인민에게로 오시는 길이였다는것, 시에서 노래된 이러한 체험세계는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열정의 분출이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감정으로 노래한것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생존시에 것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인민, 수령님과 인민의 혈연의 관계속에서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 체험



하고 사색하고 독창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승고한 높이에서 일반화할 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면서 《인  
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것으로 혁명을 시작하시  
고… 다시 인민들속으로 돌아오시는것으로 위대  
한 생애를 총화하시고 영생하》신다고 주정을 토  
로한것은 수령님의 영생의 의미를 심오한 철학으  
로 밝힌 의의있는 형상세계로 된다.

이 시에서 특징적인것은 시인이 구체적인 생활  
계기나 내용에 토대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문제  
들보다 포괄적으로 안으면서 깊은 사색속에 파고  
든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지난 시기 자기의 시  
들에서 보여준 보다정론적격조가 높고 시적론리  
가 강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채색된 내면적열정의  
분출이 강렬한 개성적특징을 잘 살림으로써 시  
《조선의 세월》이 영생에 대한 승고한 사상감정을  
강한 시적론리와 정론성, 깊이있는 형상속에 감  
동적으로 노래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코 가신것이 아니며 오  
늘도 일상생활속에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뜨거  
운 체험세계는 시 《불멸의 생애》에서도 참신한  
시형상으로 노래되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수령님의 영생을 추억속에  
간직된 수령님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속에, 생활속에 계시며 인민들을 따  
뜻이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승고한 영상을 통  
하여 노래하였다.

시인은 깊은 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펼치며 대  
담하게 《우리 수령님은/ 추억속에 계시는 어버  
이》가 아니며 《추억은 저 멀리 흘러간 생활의것》  
이라고 절절한 느낌을 토로한다.

추억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부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름답고 고귀한 추억에  
도 불구하고 수령님은 절대로 가신것이 아니며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속에 살아  
계신다는 그 강렬한 믿음과 확신이 더 뜨겁고 열  
정적으로 심장에서 분출하였기때문이다.

하늘가에 울리는  
아이들의 저 노래소리를 들어보라  
출근길에 굽이치는 저 발걸음  
우리앞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보아라

...

그이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벼포기 아지치는 푸른 들에서  
나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경애하는 우리의 장군님과 함께  
최전연초소도 돌아보시고  
발전조건설장도 찾아주시며

...

시인은 절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믿지 않  
는것이다. 반면에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  
나 다름없이 생존해계시며 쉽없이 활동하고계심  
을 폐부로 느끼며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이 승고한 감정  
의 바탕에는 80여성상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 수  
령님께서 《마지막 숨결마저 인민에게 주시여/ 우  
리의 영원한 어버이로 계》시며 《마지막 체온마  
저 조국에 바치시여/ 영원한 내 삶을 꽃피워》주  
시였다는 승고한 사상감정이 웅심깊게 자리잡고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시에서

그이는 오늘에 계신다  
만년미래와 승리를 밝히신  
위대한 사상으로 계신다  
세기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영생하신다

태양의 빛발을  
태양으로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수령님은 영원히 오늘에만 계시리  
수령님은 영원히 미래에만 계시리

라고 노래하였을 때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세  
기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시며  
그 모든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수령님 그대로이  
신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영생하신다는데 대한  
심오한 정서적체험의 승고한 시적일반화로 된다.

이 시 역시 시인이 뜨거운 체험과 느낌을 가지  
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  
고 탐구함으로써 수령님을 노래한 시문학의 서정  
세계를 새롭고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었  
다.

시 《영생의 비결》(계훈), 《수령님은 함께  
계신다》(송명근)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다양한 서정세  
계가 깊이있게 탐구되었다.

시 《영생의 비결》에서 시인은 《오늘호 신문  
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지고 《오늘  
또 오늘 또… 어버이수령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노래》가 태어나고 《동해가 포진지에 경사》가  
난것은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충효심의 고귀한 정화라는것을 노래하면  
서 《장군님의 그 의지, 그 충성에 받들려 어버이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데 대하여 시 《수령님은  
함께 계신다》에서 시인은 《그래 무엇이 달라졌  
단말인가?》라는 수사학적질문을 제기하면서 수령

님 생존해계실 때와 다름없이 모든것이 그대로 진행되고있는 생활을 두고 《사상도 그대로, 령도도 그대로, 어버이사랑도 그대로》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생활적인 정서속에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코 가신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상감정은 수령님을 노래한 시문학에서 주되는 정서적흐름을 이루면서 날을 따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서정속에서 심오하게 일반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서정세계가 탐구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시문학에서는 담시 《1997년 조선의 담시》와 같이 형식면에서 특색있는 탐구를 보여준 작품도 창작되었다.

눈...  
바람...

1월 1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

붉은 노을 거느리신 수령님앞에  
가 가까이 다가가시는 **김정일**장군

눈보라치는 소리...  
제야의 종소리...

-수령님, 새해입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늬실 붉은기가 물결치는가  
수령님 살펴보고계시였는가

-축하하오, 장군  
징조가 좋은 해요

궁전이 드르릉...  
가슴이 뭉클...

이렇게 시작되는 시에서 시인은 대담하게 시적 환상을 펼쳐 생존시와 다름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깊은 대화로 새해의 장엄한 진군과 위대한 승리를 예언하는 위인들의 숭고한 세계를 노래하였다.

비록 간명하고 길지 않지만 시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충효심, 수령님이시자 곧 장군님이시고 장군님이시자 곧 수령

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 주체위업의 완성에 대한 낙관과 승리에 대한 확신 등 응심깊은 사상감정이 승엄하게 노래되어있다.

이 작품이 시도한 사상에서의 새로움, 착상과 환상에서의 대담성, 형상에서의 간명성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는 시작품창작에서는 물론 다양한 시작품창작에서도 응당 지향되고 탐구되어야 할 교훈적인것이라고 생각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4돐이 되어온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은 결코 가신것이 아니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그 신념을 그대로 담은 우리 시문학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올해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이 가장 뜻깊게 맞이하는 태양절이며 새해 《로동신문》과 신문 《조선인민군》의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진군과 위대한 승리로 부르는 우렁찬 나팔소리가 힘있게 울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시작품창작에 온갖 심혈을 바쳐가는 우리 시인들은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시대정신의 새로운 높이에서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더 새롭고 심오하게,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간절한 그리움을 더 절절하고 뜨겁게 터치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오하게 노래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앞으로!》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붉은기정신으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더욱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살며 생활하는 그 심정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사상정신세계를 더 밝고 락천적인 정서로 노래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일반화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탐구와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흙모의 노래

알베르토 느게마 온도 오보노

천하명승을 자랑하며  
동방에 솟아 찬란한 빛을 뿌리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 동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자주의 길 밝혀주시여라

그이 탄생하신 4월을 기념하여  
정갈한 시내물도 춤추며 흐르고  
푸른 숲도 노래하며 설레이여라

그이 탄생하신 4월이 오면  
푸른 들도 그이 추억하며  
아름다운 봄꽃 진달래 피우고  
저 멀리 지구의 한끝에서도

대대손손 나라를 위하여 싸운  
만경대의 애국적가정에서 탄생하신분  
집무실에서 순직하시는 순간까지  
온 생애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

흙모의 노래 부르며  
그이의 영생 기원하거니  
**김일성** 그 이름  
천세만세 빛나리라

(적도기네시인임)

#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한기운

우리 농장 이 들길로  
어버이수령님 이젠 못오시는가고  
그렇게 묻는 사람 없어라

별가득 풍년을 가꾸며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제는 모시는 날 따로 없어라

이제는 언제나 마음속에 오시여  
이제는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니

아, 어버이수령님  
만경대를 떠나신 그날부터  
한평생 걸으신 멀고 험한 길로  
천세만세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오셨기에...

꽃피는 봄날  
이봄엔 오실가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제는 오시는 날 따로 없어라



## 심오한 철학성을 지닌 노래가 되도록

사색적이고도 철학적인 노래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은 참으로 크다. 사색적이고도 철학적인 노래는 사람들을 고상한 감정세계에로 이끌어가며 끝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런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노래를 시대정신이 비친 음악으로 보시고 사랑하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사색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생각케 하는 노래가 진짜 노래입니다.**

**노래가 사색적인 노래로 되자면 노래에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없는 노래는 사색적인 노래가 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색적인 노래, 철학적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어느해 설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자리에 모인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다같이 명곡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한생보다 귀한것 무엇인가를  
나의 전우 물려준 피젖은 기발  
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

노래가 끝나자 방안에는 승엄한 침묵이 흘렀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물음을 놓고 모두가 제 나름대로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겨들었다.

그런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 가사에는 철학성이 있습니다, 노래가사에는 철학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에서 《나의 전우 물려준 피젖은 기발, 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라는 구절이 특히 좋습니다, 이 구절이 가사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떤 시인은 조국은 인민학교 교과서로부터 시

작되고 한그루의 붓나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도 조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국은 그보다 위대하고 신성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였다.

노래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는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물음에 명철한 대답을 주었다.

심각한 시대적물음에 철학적인 대답, 시적인 대답을 하는것, 이것이 다름아닌 명가사이고 철학적이며 사색적인 노래이다.

바로 이런 노래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남달리 사랑하신다.

한곡조의 노래는 비록 짧막하지만 철학이 있는 사색적인 노래는 인간의 심장을 자극하며 인민들을 혁명과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다고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나오는 노래 한편한편이 철학적인 노래로 되도록 다듬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시였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걸어가는 혁명의 길, 시련도 많고 난관도 많은 그 길을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끝까지 가도록 고무해주는 노래 《전사의 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음에 보아주신 노래 《전사의 길》은 이렇게 되어있었다.

길이여 길이여 너의 끝은 그 어디  
한생을 걸어도 못다 걸을 길이여  
먼길을 왔다고 돌아보지 말라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

가사를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를 몇번이고 읽어보시더니 드디어 필을 드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라는 대목을 쪽 그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전사가 가는길 후회가 없다네》라고 써넣으시였다.

한줄을 고쳐놓으니 가사에 대변에 철학성이 부

여되었다.

가사는 전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철학적물음에 인생의 마감문을 닫으며 뒤돌아볼 때 후회없는 길이라는 철학적인 대답을 줌으로써 생활철학을 론하는 노래, 혁명가들의 인생관을 론하는 노래로 승화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를 고치니 철학성이 한결 깊어졌다고 하시면서 한생을 후회없이 걸어가는것, 바로 이것이 혁명가의 생활철학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철학성이 있는 노래를 사랑합니다, 우리 작가들이 철학성이 있는 노래, 사색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리론중의 리론이 철학이라면 노래중의 노래는 철학성이 있는 노래이다.

남달리 철학을 사랑하시고 철학적사색을 즐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노래중의 노래인 철학성이 있는 노래를 제일 일러주신다.

노래를 인간감정의 분출로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나오는 노래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기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철학적인 노래풍년이 들었고 새로 나오는 노래마다 풍부한 서정성과 함께 심오한 철학성으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생관을 심어주고 그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

하고있다.

《동지애의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노래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사람들의 가슴에 송고한 혁명애, 조국애, 동지애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주고있는가.

철학적인 노래풍년.

이는 남다른 철학관, 음악관을 지니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빛나는 현실이다.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투쟁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는 혁명의 진군가, 대오의 앞장에 울리는 나팔소리와도 같은 철학적이며 사색적인 힘찬 노래들을 수많은 내놓았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을 힘차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노래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철학적인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의 길, 승리의 한길을 영원히 가고 또 갈것이다.

본사기자

## 나도 그 꽃중의 한송이

한원희

산과 들에 산꽃 들꽃 다 피어났습니다  
거리에 마을에 꽃천지 이뤘습니다  
오늘은 태양절 뜻깊은 날이길래  
태양을 우러러 천만꽃 만발했습니다

천가지 꽃마다 만가지 꽃마다  
해빛을 반기며 웃고웃습니다  
갓가지 꽃마다 온갓가지 꽃마다  
해님을 우러러 천만향기 드립니다

그 향기는 꽃의 숨결입니다  
감출길 없는 꽃의 진정입니다  
그 향기는 꽃의 속삭임  
끝없는 은혜에 한껏 목메인  
꽃의 노래입니다

꽃은 태양의 아들딸  
태양은 꽃들의 아버지길래  
이리도 숭배로운 찬가를 드립니다  
이리도 열렬한 송가를 바치웁니다

태양절은 태양이 솟은 날  
이 땅에 천만꽃 피기 시작한 날  
이날은 이날은 4월보름이지요  
온 나라엔 꽃천지 꽃바다랍니다

아, 그 꽃은 그 꽃은  
세월이 흐를수록 곱게 피는 그 꽃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 우리 인민입니다  
나도 그 꽃중의 한송이랍니다

#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의 위대성

장형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생애는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애국자, 위대한 정치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인 동시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으로 주체문학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현명한 령도로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문호,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세심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혁명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80고령에 이르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여 문학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한 그런 탁월한 령도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혁명문학의 새길을 개척하시고 주체문학을 활짝 꽃피우시여 세계 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빛내이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주체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여 우리 문학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시대가 도래하던 력사적전환기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적인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이룩하시었다.》

자주시대의 개척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혁명성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전통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문예전통이다.

그 위대성과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이 자주시대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가장 옳바르고 위력한 지도사상이기때문이다.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정수로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대하고 고귀하다.

수령이 본보기작품을 직접 창작하여 혁명적문

학예술전통을 이룩한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직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뛰어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그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인간의 운명문제, 혁명의 근본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여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는 과정에 종래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새롭게 발전시켜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창시하시고 항일유격대식 창작사업방법도 창조하시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의 창시와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으로 인류문학의 새 시대, 주체문학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위력한 창작방법과 혁명적인 문학지도방법을 창조하신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인류문예사적공적이 있다. 바로 이때문에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주체문학의 원형과 시원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그 발전의 만년초석, 피줄기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비롯한 항일혁명문학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에 창작되었으나 주체사상과 혁명적수령관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으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시대의 전진과 함께 그 감화력과 견인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는데서 우리는 더욱 주체문학의 깊고 역센 뿌리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은 또한 해방후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 강력한 작가부대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당의 문예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으로 발전시키신데 있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밀고나가시며 새 조선의 주체문학건설을 위하여 당의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작가대오를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독창적인 인테리정책과 주체적창작력량을 꾸릴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우선 오랜 작가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작가들을 금싸라기를 모으듯 한사람한사람 찾아 내시여 리기영, 한설야, 송영, 박팔양, 박세영, 리찬을 비롯한 《카프》작가들을 주체문학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으며 최명익, 김사량과 같은 유산계급출신의 작가들도 친히 만나주시고 일제기관에 복무한 허물이 있는 작가들까지도 다 너그럽게 포섭하여 작가대오에 세워주시고 마음껏 창작하도록 배려하여주시었으며 그들의 출신과 과거를 문제삼는 반당종파분자들과 일부 편협한 일군들의 비난과 배척으로부터 그들을 따듯이 보호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작가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속에서 새로운 작가들을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해주시고 조기천, 천세봉, 석운기를 비롯한 신진작가들을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주체문학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작가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 현실체험을 강화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으로써 그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위임에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작가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시며 문학과 예술에 관한 수많은 강령적로작을 내놓으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문학이 나아갈 방향과 창작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으로써 주체적문예사상을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고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시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되는 사정을 정확히 헤아리시여 문학부문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추호의 동요와 아무런 우여곡절도 겪지 않고 주체사실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한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대작에 관한 독창적문예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주체사

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적수령관과 주체의 인생관, 반제반미투쟁정신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한 혁명전투주체의 작품을 비롯한 혁명적대작들이 수많은 창작되어 우리 인민의 혁명교양과 조선혁명의 완성에 힘있게 이바지하며 우리 주체문학의 위용과 높은 사상예술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 차넘치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은 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된 절대적인 숭배심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해방된지 얼마 안되던 그 시기에 벌써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 장막희곡 《퇴성》과 같은 작품을 빛나게 창작하였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였기에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용약 전선에 달려나갔고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전선에 나갔던 종군작가들이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적후수천리 길, 그 험준한 산밭을 타고 아버이수령님의 품 최고사령부로 찾아왔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직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창작적성과로써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과 충성으로 받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살며 창작한 바로 여기에 우리 조선의 작가들이 지닌 가장 커다란 행복과 영광,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랑이 있다.

지난 시기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문학에 대한 당적령도를 포기하고 문학사업을 《자유화》한 결과 작가들이 반동사상에 오염되어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부르조아문학복귀의 시궁창에 빠져 비참한 운명을 겪거나 외국으로 떠나는것과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작가들을 혁명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가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뚜렷이 반증하여준다.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은 또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신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문무총효를 겸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령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차례진 최상의 행복, 최고의 영광으로 된다.

후계자문제,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사업과 국가사업전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시었다.

문학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 가르치심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충성심과 비범한 예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철저히 관철되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문학건설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시고 우리 식의 장편소설과 주체적영화문학, 《피바다》식혁명가극대본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사실이 잘 말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수령형상리론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과 다부작영화문학 《조선의 별》과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수령형상작품을 빛나게 창작하도록 이끄시어 인류문학사에 수령형상의 새 장을 기록하게 하신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제관을 계승발전시키시어 독창적인 주체의 인간학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고 자주성의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데서 명확히 불후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빛나는 재현, 수령형상작품의 왕성한 창작,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 이것은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주체문학의 휘황찬란한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과 함께 사회주의문학의 대가 끊어지고 부르조아반동문학이 판을 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주체문학이 대전성기의 성과를 계속 빛내이며 세계 사회주의문학의 재생과 그 재건운동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는것은 후계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업적의 위대성과 문학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한 혁명송시 《광명성찬가》를 창작하신것은 조선혁명과 우리 문학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문학창작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한 대표작이며 우리 인민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귀한 문학유산인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의 감정과 령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데 대한 숭고한 지향과 념원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체현되어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붉은기정신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인생관과 혁명적군인정신을 힘있게 구현한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 가사

# 인민이 안겨사는 집

김용역

밀영의 푸른 숲 어서 오라 설레이고  
소백수 맑은 물 반겨맞는 고향집  
내 삶의 숨결이 여기서 열리어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그 품은  
아, 온 나라 인민이 태어난 집

환희의 서리꽃 아름답게 피어나고  
파사론 그 사랑 넘쳐나는 고향집  
내 자란 요람이 여기에서 꽃피여

꿈결에도 달려가는 정다운 그 품은  
아, 온 나라 인민이 자라난 집

백두의 노을이 삼천리에 비껴가고  
정일봉 그 기상 나래치는 고향집  
행복도 미래도 여기에서 열리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가는 그 품은  
아,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집



## 내 나라의 자랑

신경애

평범한 생활속에서 위대한 진리가 발견된다.

레사로이 흘러가는 하루동안 가정마다 제나름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들기도 하고 평온과 사색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런 나날의 련속속에 가정《철학》이 도출되는듯싶다.

어느날 우리 집에서는 백두산 3대장군들의 위인상을 모시게 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되었다.

해썬는 만경대고향집과 흰눈덮인 백두밀영고향집, 오산덕의 회령고향집을 정성담아 쪼아박은 액틀속에 모셔진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

네모반듯하고 깨끗한 제일 좋은 벽, 봄빛이 파사로이 흘러드는 벽면에 대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사진, 원수복을 입으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영상, 항일의 군복차림 그대로의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었다.

순간 해빛같이 파사로운 백두산 3대장군들의 환하신 미소가 온 집안 가득 차넘쳐 빙 둘러선 집사람들의 마음을 더더욱 후덥게 했다.

3대장군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깊은 심연속에 잠겨있는 시부모들의 눈언저리에 뜨거운것이 번쩍인다. 온 방안엔 승엄한 분위기가 깃들었다.

자기 몸가까이 온 민족이 반들어올린 백두산3대장군을 모신 기쁨과 행복에 넘쳐서인지 아이들은 《야!》하고 손벽치며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빙빙 돌아가다가 《백두산 3대장군 만만세!》하고 만세를 터치기도 한다.

아이들의 환호속에 잠겨 3대장군의 위인상을 바라보느라니 백두밀영의 구호나무글발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백두산 자랑 김대장 광명성 녀장군 만만세》

...

아이들의 환호성은 백두산이 낳은 3대장군을 모시고 싸우던 항일선렬들이 자기들의 신념을 신장의 피로 천연목은 아름다리나무들에 새겨놓고 환호를 올리던 그날의 환호성으로 뒤바뀌어 이 순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었다.

항일의 그 나날들에 대한 추억을 더듬는 나에게로 딸애가 흐르르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우리 나라엔 참 장군들도 많구만요.》

항상 철부지 응석반이로밖에 생각 못했던 딸애한테서 갑자기 엉뚱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말을 듣게 된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한 말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말이지만 나는 그것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그 말은 나를 더욱더 깊은 명상에 빠뜨렸다.

무릅없이 터친 한마디의 말에서 큰 충격을 받은 내 심정을 알리없는 딸애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나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머리를 가로흔든다. 그러는 그에게 나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우리 나라에 장군들이 많다!

그렇다. 딸애의 말이 천만지당하다. 실로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낳은 천출위인들의 존엄과 력사와 더불어 세계에 빛을 뿌리는 장군들의 나라이다.

예로부터 인류는 장구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자기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위인을 애타게 찾으며 꿈으로만 여기면서 하늘을 숭상해왔고 드문히 나타나는 명인이나 재사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레찬해왔었다.

쉽없이 흘러온 년대와 력사들을 돌이켜보면 매개 나라, 매개 민족마다 민족의 운명을 불행과 재난,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 민족의 구원자, 장군들도 있었다. 그런데 력사에 이름을 날린 이들의 명성은 어떠했던가. 그들이 명성을 떨친것은 중년기 아니면 중년기가 꺾 지난 로년기인것이 일반적인 상례로 되었다. 또한 그들의 명성은 대체로 정치나 군사 그 어느 일면에 국한되어있고 또 령도에서 폭이 있으면 그 깊이가 부족하여 제한적이였다. 하여 인류의 소원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상과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릴 위인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망해온 인류의 숙망은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것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예언한바그대로 여기 동방 조선에서 백두산의 3대장군 출현으로 그 해결을 보게 되었다.

우리 단군민족의 자랑인 천하제일명산 백두산

이 낳은 3대장군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다식 다박하시고 령도에서도 인민적품성의 최고체현자들이시다.

어리신 10대의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거연히 주체의 봉화로 한세대에 《강대》하다고 자처하던 미일 두제국주의를 강타하시고 조국을 구원하시어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백승명장 **김일성**대원수님. 어리신 나이에 벌써 사상과 령도, 덕망을 수령님그대로 체현하시고 탁월한 주체적령군술과 천재적지략, 인품으로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을 련승으로 이끄시어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을 사회주의보루로 철옹성같이 가꿔오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가장 간고했던 나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드시는 길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아 민족의 존엄을 만대에 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장군.

가장 엄혹한 시련과 곤난을 물리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온 장구한 나날 우리 백두산위인들의 가슴속엔 얼마나 많고많은 쓰라린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것을 가슴깊이 묻어두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시며 한평생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불처럼 뜨겁게 사시였다.

정녕 세상천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종의 산 백두산이 낳은 절세의 위인 백두산 3대장군들과 같이 출중하신 위인을 찾을수 없다.

사상도 인민중심의 사상, 령도도 인민중심의 정치, 덕망도 인민사랑의 품성, 이것은 백두산 3대장군들의 위인적품모를 보여주는 특징이다.

정녕 이것은 이미 선대력사에 이름을 날린 명장, 장군, 위인들의 풍격을 모두 합친다 해도 대비할수도 없이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위인적품모의 최고의 최고이다.

그래서 아니었던가. 이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오로지 인민의 체온을 온몸에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푸신 3대장군들의 숨결과 거룩한 자욱이 대를 두고 전해지고 3대장군들의 따사론 미소가 온 강토를 밝게 비쳐준다.

언젠가 남녘의 한 동포가 한 말이 생각난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낸 위인은 몇세기에 한

번 출현하나마나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한 세대에 시대를 빛내이는 세분의 절세의 위인을 맞이했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그렇다!

백두산 3대장군을 모심은 우리 조국의 존엄, 우리 민족의 자랑, 내 나라의 자랑이다.

왜 그렇지 않으랴. 한 민족에게 있어서 사상과 령도, 인품에 있어서 꼭같은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간다는것은 민족의 행운, 최상의 행복이다.

세계 그 어느 인민들도 누려보지 못하는 특출한 복을 지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다름아닌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아니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땅과 숨결을 함께 하는 우리 인민들모두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백두산 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력사의 땅들에 천원화강석으로 현지도 교시판, 말썬판들을 심장으로 쏘아 박고 남녘인민들도 우리와 함께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도 자기들의 가정에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높이높이 받들어모시고있는것이다.

내 나라는 백두산 3대장군의 나라이다.

어제도 오늘도 만민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는 백두산 천출위인 3대장군들의 위업과 더불어 전진해온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세계만방에 더욱더 빛날것이다.

나는 딸애에게 속삭인다.

《백두산 3대장군을 모신것은 내 나라의 자랑중의 가장 큰 자랑이다.

너와 나 우리모두 이 민족의 자랑을 안고 백두산 3대장군을 높이 모시고 따르자꾸나.》

눈길 들어 다시금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우러른다.

그러면 한번 웃으시면 돌에도 꽃이 피게 하고 만년장설도 녹이며 만민에게 만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미소, 그분들의 자애에 넘치신 미소가 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듯하다.

가정에 모신 위인상을 바라보며 우리 온 가정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해갈 충효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 해빛밝은 4월의 봄날에

4월,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을 맞이한 세상만물이 자기들에게 재생의 빛을 주는 태양에 감사를 드리는것인가 가는곳마다 온갖 꽃 만발하고 강산에는 화창한 기운이 넘쳐흐른다.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 시대의 탄생을 선언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4월.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4월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달이 아니라 자기의 참다운 새 력사의 기원이 열린 위대한 태양의 달로 되였거니.

해마다 4월이 오면 그러하지만 태양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더더욱 달려간다.

영원한 태양의 집-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

그 흐름속에 우리도 있다.

드넓은 궁전앞 광장에 들어서니 궁전 정면에 모셔진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어서 오라고 우리를 반겨맞아주시는듯 생시처럼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수령님의 모습.

한번 뵈옵기만 하여도 대번에 온 났이 끌리어 달려가 안기고싶고 마음속 깊은 사연도 스스럼없이 터놓고싶은 호방한 성품과 만년장설도 순간에 녹이는 뜨거운 인정미가 차넘치는 환한 웃음.

한평생 그 누구도 헤쳐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가시덤불길을 불굴의 의지와 락관으로 헤쳐오시며 만고풍상을 다 겪으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

백전백승을 펼친 강철의 대원수의 만단사연이 수놓아져있는 한오리한오리의 흰서리 내린 머리칼, 천하를 굽어보시고 세기를 내다보시는 천재적예지와 선견지명의 비범한 섬광이 번뜩이고 인류의 운명과 미래가 비껴있는 부드럽고 영채가 넘쳐흐르는 숭엄한 안광.

실로 회세의 철학자, 사상리론의 대거장, 백전백승의 령장, 세계적인 정치원로의 로숙성과 세련성이 위풍당당히 풍겨나오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하늘이 낸 대성인의 미소가 어려있는 거룩한 위인상이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만고의 전설적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이 가슴사무치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80성상에 이르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갈

피갈피가 전설적인 이야기로 엮여져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귀한것으로 빛을 뿌릴것입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혁명, 겨레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그 길에는 수령님께서 병환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신 남만원정의 길도 있었고 40도의 고열속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반일전가》를 지으시며 대원들을 불러 일으키신 천교령의 엄혹한 행군길도 있었다. 또 뼈를 에이는 강추위와 눈보라, 키를 넘는 장설을 한걸음한걸음 피로써 헤쳐가신 고난의 행군길도 있었고 20년세월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가신 만경대의 갈림길도 있었다. 그 길에는 또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가신 전선길도 있었고 50년세월 공장과 농촌, 어촌마을과 산간오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도 있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그때로부터 혁명과 운명을 같이하시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어오신분이시였다.

보수를 바라고 혁명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조였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것이 더없는 보람이였고 인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것이 즐거움이였다.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를 그 생애가 아니라 락으로 여기신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에는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 폭 쉬겠다고 하시면서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으로 20성상을 보내시였고 해방후에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만시름을 놓으시고 쉬겠다고 하시며 50성상 언제나 일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날과 달을 수놓아오시였다.

일요일과 명절날도 가림없이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며 그 길에서 자신의 생신날마저 바치신 우리 수령님.

주체66(1977)년,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 65돌

을 맞으시던 그해 4월 15일.

그날 겨우내 봄내 가물던 이 땅에 그해의 첫비가 내리었다.

온 나라 인민이 수령님의 탄생일을 크나큰 기쁨과 환희 속에 맞고있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현지도의 길에서 생신날의 아침을 맞으시었다.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당에 내려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단비로 하여 황금나락 설레이게 될 전야를 그려보시는듯 손으로 비를 받아보시며 행복에 겨우신 모습으로 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일군들이 비에 옷이 젖는다고 안타깝게 아뢰었던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약비가 내린다고, 농민들이 좋아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그냥 마당을 거니시었다.

인민들이 뜻깊은 날에 내리는 비를 두고 수령님한평생의 로고가 어려와 수령님생각으로 가슴 뜨거워하고있을 때 풍년든 전야를 그려보시며 줄거이 비를 맞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일군들은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숭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시고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오신분.

해방후 어느해 생신날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차려드린 검소한 생일상에 오른 몇알의 사랑, 파자를 보시고 나라가 해방되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한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있는데 내가 생일상을 받은들 어찌 마음이 기쁠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며 끝내 수저를 놓으신 아버지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 심중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더잘 먹이고 더잘 입히고 더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었거니.

자기의 밝은 빛과 따스한 열로 온 누리를 밝히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자양분을 주는 태양, 우리 수령님은 그 태양에만 비겨 그 위대함을 말할수 있는 그런 위인이시었다.

세월이 천만년 흐른다 해도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자신의 심장을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태우신 그런 위인을 더는 맞이하지 못할것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는 무궁한 세월의 흐름속에는 무수한 위인들의 탄생일이 점점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위인들의 탄생을 알린 그 많은 날들중의 단순한 력사의 한 시점이 아니다.

주체1년 4월 15일, 이날은 동서고금의 모든 위

인들의 위대성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전무후무한 위인의 탄생일이다.

이날은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우주에서 대변화가 일어난 날,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하고 영원한것이 시작된 새 시대, 새 력사의 위대한 기원일이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지구상의 생명이 있듯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하신 4월 15일이 있어 우리 인민이 영원히 이어나갈 녀과 혈통이 있고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이 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4월 15일을 자기 운명의 진정한 태양이 솟아오른 태양의 날, 태양절로 기념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하신 4월 15일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영원히 태양의 날로 빛을 뿌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의 혈통을 자자손손 이어나가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날로 보시고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도록 하신분도, 나라와 민족의 큰 경사도 이날을 목표로 설계하고 마련하고 꽃피우시며 수령님의 탄생일을 최대로 빛내여오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 우리결을 떠나가 신후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 하시며 아버지수령님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분도,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여 수령님의 탄생일이 천만년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태양절과 더불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고계신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위대한 탄생의 계절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우리의 4월은 이해에도 온 누리에 위대한 태양의 미소를 보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의 봄, 인류의 봄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4월의 하늘가에 태양은 빛나고 4월의 봄은 영원히 빛난다.

본사기자 최용호

## 이 아침에도 외 1 편

김휘조

오늘도 귀가에 그 음성 다정해라  
우리 부대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날 나에게 하신 말씀  
병사들 있어  
조국이 있고 행복한 인민이 있다고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군사복무 잘하라고  
마디마디 내 뜨거운 땀을 일으키던 그 음성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기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자애론 미소속에  
남기고 가신 그 말씀

기상나팔소리 나를 깨운 이 아침에도  
생각하노라 그 말씀들  
못잊을 그이를 생각하노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자신의 온 땀을 바치시기에  
그이께선 늘쌍  
새벽이슬을 헤치시지 않던가  
언제나 그렇듯 마음쓰시지 않던가

그래서 해비치는 아침이면 누구나  
그이 뜻을 받들어 출근길을 가고  
일터엔 사뭇치며 쇠물이 끓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위해  
과일나무들도 서둘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아, 나도 그이를 위해 초소에 선 병사  
그이를 옹위하는 병사가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필요하라  
꿈결에도 더듬어찾는 내 뜨거운 총은  
열여덟살에 입은 이 군복은

나에게 조국은 오직 그분  
나에게 인민은 오직 그분  
병사들이 있어  
조국이 있고 행복한 인민이 있다 하셨지만  
나에겐 그이 계시야  
조국도 있고 인민도 있나니

기상나팔소리 나를 깨운 이 아침에도  
나는 먼저 외우노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이 말과 함께  
병사의 하루를 시작하노라

## 그날의 고지정점에서

나는 지금 서있노라  
장군님 오르셨던  
351고지에도 정점에서  
대결의 선풍이 얼음장처럼 차거운  
적진까지는 여기서  
1,200미터

우리 얼마나 간곡히 말씀을렸으랴  
앞에는 최전선,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허지만 혼연히 웃으시며  
산악같이 오르시던 모습이며  
근엄한 안광 적진에 번개불을 떨구시며  
높이 든 령장의 손길  
적진을 한손에 거머쥐시던 모습이며

우리 가슴에도 산악이 들어앉은듯  
그날 우리는 들었더라  
담대하신 장군의 음성에서  
불이 튀던 전선길  
앞에는 최전선이라고

막아서는 너전사를 달래이시며  
포연서린 최전방을 찾으시던 수령님  
봄별같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그날 우리는 다시 뵈웠더라  
강철의 장군님모습에서  
파편 절각이는 전호속  
흐르는 달빛아래  
전사들과 교락도 나누시던  
수령님 그 모습을  
폭풍같은 세기의 앞장에 서시었던  
강철의 모습을 다시 뵈웠나니

아, 가슴에 그리움을 덧쌓아놓고  
세월은 흘러  
수령님 돌아가신지도 벌써 몇년째...  
허지만 그날 우리는 다시 뵈웠더라  
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그이께선 그날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계시었으랴

## 전선길의 3 일이야기

황성하, 박경심

사람들이여  
내 오늘 그대들앞에  
장군님 모시고 걸어온 전선길  
그 길을 작전지휘성원으로 따르며  
한자한자 적어온 전선일지를 펼치려나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 어느 령길에서였던가  
밤길에 잠시 쉬어가려고 벗어선 승용차  
그 차안의 불빛아래서  
내 보풀인 수첩을 펼칠 때  
무엇을 쓰는가고 물으시던 장군님

-나에 대한 글은 쓰지 마오  
쓰겠으면  
우리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오

허나 어쩔수 없었노라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니  
장군님의 이야기 아니할수 없어  
내 쓰고 또 쓴 그 전선일지

사람들이여 용서하시라  
눈오고 꽃피고 바람부는 전선길의  
일년삼백예순다섯날  
그 못잊을 하많은 날중에  
3일간의 이야기만을 세상에 전하게 됨을...

### 1 일이야기

맑은 하늘  
푸른 바다  
차창을 어루만지는  
해살을 비껴안고  
야전차는 조용히 들어섰다  
너성해안포중대의 마당가로

천천히 차에서 내리신  
최고사령관동지  
감회깊이 바라보시여라

두해전에 보시였던  
낮익은 감나무들을  
바다바람이 스치고가는  
앞지고 열매없는 그 아지들을

언제 가을이 이렇게 다 갔던가  
감익는 계절에 다시오마 약속하고도  
그렇게 짬을 낼수 없었던 이해 가을

저 감나무들에서  
마지막 감알을 따들이며  
이 가을에도 서운해했을  
전사들의 얼굴을 그리보시는듯

그래서 알섬방어대시찰에 이어  
가야 할곳 많고많으셨건만  
나에게 이리시던 그 말씀  
-감나무중대에 들렀다 갑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것 같소

그리하여  
차머리는 돌려지고  
두해만에 장군님은  
또다시 중대에 오시였나니

하지만  
감철은 다 지나가고  
무르익은 감알도 보이지 않아  
밀물처럼 차오르는 아쉬움을 안으시고  
들어서시여라 중대의 교양실로

문득 25년전  
중대의 첫 주인들을 찾아오시여  
너성해안포병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으시는 수령님의 사진앞에  
걸음을 멈추신 장군님

이른 봄의 향기질은 꽃다발을 받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도 들으시는듯  
다시다시 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

달음쳐오는 그날의 처녀해안포병

-이 녀성이 지금 어디 있겠는데  
아마 이젠 아들딸을 가진  
어머니가 되었겠지...  
혼자말씀이신듯  
조용히 외우시는 장군님

-장군님  
우리 중대에  
이 녀성군인의 딸이 있습니다  
부대의 한 일군이 드리는 대답  
이 무슨 기이한 인연인가  
이 무슨 뜻밖의 사연인가  
놀라우신듯  
반가우신듯

-그렇소?!  
딸이 이 중대에 있단말이지  
그러면 어서,  
빨리 데려오시오  
처녀병사가 보고싶소

마침 근무교대 마치고 돌아오는  
18살의 외출배기상등병-경순이  
날으는 체비처럼  
장군님품에 안겨들었다  
그리고는  
장군님앞에 펼쳐드는 두손

그러자 그 손엔  
빨강계 무르익은 탐스런 감 한알  
금시 장군님의 눈앞엔  
아지마다 주렁저 휘늘어진  
감계절이 펼쳐지는듯

장군님 오시면 드리자고  
알알이 골라 간수하던 그 마음담아  
금방 골라온 제일 큰 그 감, 그 향기  
장군님 마음속 그 아쉬움을 가져내는가

-고맙소, 정말 고맙소  
동무 어머니는  
25년전에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는데  
동무는 오늘 나에게 이 감을 주누만

꽃철도 아닌 철에  
천만송이 꽃을 엮어드린다 한들  
장군님 이처럼 기쁘시랴

감 한알을 그토록 무겁게 받으시며  
세대를 이어 풍기는  
충효의 그 향기에  
마음 진정할길 없으신 장군님

그리도 대견하시여  
나이는 몇이고  
부모들은 어디에 사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여라

어머니가 썼던 초소에  
이렇게 딸이 서니 얼마나 좋은가고  
어머니세대들이 심은 감나무를 가꾸어  
그의 딸들이 안고온 감이  
얼마나 귀중한가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최대의 충효는  
조국보위라고  
나라와 인민, 고향과 부모형제에 대한  
최대의 사랑도 조국보위라고...

그 말씀을 실었는가  
설레는 바다, 솟구치는 파도  
그 말씀을 안았는가  
눈부신 햇빛, 날아퍼지는 갈매기들...

아, 꽃과 열매  
뜨거움에 젖어 나는 생각했노라  
꽃이 아름다워 열매도 아름다운가  
세대를 이어 가꿔가는 그 꽃, 그 열매  
장군님 소중히 안아주시니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근무교대를 마치고 약속이나 한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와  
장군님 옷자락에 매달리는  
사랑스런 병사들, 오누이쌍둥이들

-너희들이나

그새들 더 튼튼해지고  
고와졌구나

그러자 울리는  
또랑또랑한 목소리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장품을 발라서  
우리 모두가 더 고와졌습니다

-그래그래  
대포를 다루는  
우리 너병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처녀들이지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아버지앞에 티없는  
딸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파도세찬 철벽의 포진지에  
떨기떨기 해당화 피어나는듯...

머나먼 바다가초소에서  
그리운 아버지품에 안긴  
그 순간이  
영원한 사랑의 절정으로  
아름다운 화폭으로  
이 땅에 남았다  
그렇게 남기신 기념사진  
거기에 찍힌 붉은 감

그것은 하늘의 해빛이  
무르익힌것이던가  
봄바람을 안고  
꽃바람을 안고  
오는 세월 가는 계절이 무르익힌것이던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새움을 띄우며 기다리고  
푸르른 잎새 자래우며  
장군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 그리움이 붉게붉게 무르익혀준 감

떠나시기 아쉬워  
차마 떠나시기 아쉬워  
내 다시 오마  
또다시 약속을 남기시니  
가시는 장군님 마음속에도 감 한알

기다린 병사들의 마음속에도 감 한알

아, 그리움에 익은 전선의 감이여!

## 2월이야기

파도소리  
파도소리  
썩아-쳐절썩  
동해의 창파소리

파도소리  
파도소리  
새벽의 차창을 흔드는  
파도소리를 싣고  
끝없이 달리는 렬차

수평선너머 동이 트는데  
차창을 활짝 여시는 장군님  
비발속에 우렁이 드러나는  
바다가마을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시여라

-기적소리를 좀 작게 울리도록 하오  
이곳 사람들이  
아직 새벽잠에 들어있을게요

아침이 열리는 기슭  
염분진 염분진 고요하구나  
장군님 이 뜻깊은 기슭에 오셨는데  
정녕 인적이 없느냐  
허전한 내 마음에도 철썩이는 물결소리뿐...

내 마음을 읽으시는듯  
비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장군님 이르신다  
-우리 조용히 돌아보고 갑시다

그 옛날 고역에 노그라지던  
소금장사군들의 눈물의 나루  
수령님 다녀가신 그 자옥우에  
인민의 휴양지로 꽃핀 염분진  
감회에 젖어 장군님 걸으시는데

이때였다 자박자박  
후미진 조약돌길을 울리는 발자욱소리



비발을 헤치고  
난데없이 나타난 너인

먼 길을 숨가빠 달려온듯  
땀에 젖고  
비에 젖은 옷자락을 감아쥐고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여라

그는 휴가를 보내고있는  
염분진의 해설강사  
장군님 뵈옵는 감격에 넘쳐  
이 기슭에 깃든 사적을  
목메여 하나하나 해설해드리여라

어느덧 술쉴에 해살이 비껴드는 바다가  
기묘한 바위들을 씻어내리며  
맑은 물결 출렁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장군님앞에 한껏 펼쳐드리는데

아이들은 멋이고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장군님  
-정말 부러워할만한  
행복한 가정이구만

허물없는 그 말쑥에  
동해의 너인도 웃고  
수원들도 따라웃고...

뜻깊은 이 아침  
어려움도 잊은 너인  
친아버지앞에서인양  
무릅없이 장군님께 말씀올리여라  
간밤의 꿈이야기를...

자나깨나  
감나무중대의 그 너병사들처럼  
장군님을 뵈옵고싶은  
그리움속에 사는 너인  
염분진기슭에 펼쳐진  
감빛노을속을 걸었다

붉은 감, 붉은 노을  
무지개 드리운 무아경  
홍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감알을  
소중히 가슴에 따안은 그 순간  
문득 마주오시는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부르며 찾으며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음향...

그 황홀한 꿈에서 깨어나니  
남편도 하는 이야기  
자기도 잠결에 멀리서 들려오는  
류다른 기적소리를 들었다고

놀라운 그 꿈이  
비내리는 새벽길로  
너인을 불러냈어라  
종주먹을 쥐고  
해변가 20리길을 달려오니

아 꿈인가 생시인가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바다가를 걸으시는 장군님

다시 우려흐고 우려흐도  
분명 꿈이 아니였다  
분명 생시였다  
-참 좋은 꿈을 꾸었구만...

조용히 하시는 그 말쑥을 가슴에 새기며  
너인은 말씀드리여라

이제는 이런 새벽길  
이런 험한 길을 더는 걸지 마시라고  
장군님 뵈옵고싶은곳에는  
그 언제나 장군님이 계시니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민이라고...

-고맙습니다  
난 그저 병사들과 인민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다닐뿐이요

감나무중대에 무르익은 그 감  
염분진 너인의 마음속에도 무르익고  
바람찬 북변에도 무르익었구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도 무르익었구나

소중한 그 감 한알  
꿈결에도 안아보는  
동해의 감이여!

### 3 일이야기

북방의 찬바람이  
희끗희끗한 산자락에 흘러내리는  
여기는 조국의 머나먼 기슭  
부대지휘부

내리는 눈송이 어깨우에 받으시며  
흰눈우에 자욱을 찍으시는 장군님  
지휘부 정문 멀리 고개길을  
이윽도록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여라

그이를 우러르는  
내 가슴은 뜨거웠어라  
이해의 정월 초하루에 떠난  
현지시찰의 그 걸음을  
여기 북변땅에 이으시며  
저물어가는 한해를 보내시는 장군님

평양이 기다린다고  
이제는 평양으로 돌아가시자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말씀올렸건만  
뜨겁게 하시던 그이의 말씀

-그 감나무중대의 경순이 있지  
그 동무의 부모들이  
여기 어디 있다고 하지 않았소?

나는 놀랐어라  
쏟아놓은 감알처럼  
한결갈던 흥안의 처녀들  
저저마다 장군님께 아뢰인  
그 많은 주소들중에서  
경순이의 고향주소를 알고계실줄이야

아무리 바빠도 그의 부모들에게  
딸의 소식을 전해주고 가자고  
몸소 차를 보내시여  
그들을 불러주신 장군님

그래서 천리 먼길을 오셨던가  
최고사령관의 천금같은 시간이  
여기에 떼어셨는가  
이제 울 그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다리시기를 그 얼마

눈발을 일으키며 들어서는 승용차  
엎어질듯 장군님께 달려오는 아버지

첫 너성해안포병이었던 어머니

순간 경순이 어머니  
25년전에 꽃다발을 드린  
아버이수령님을 다시 뵈옵는듯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 이슬

가슴에 젖어드는 우렁우렁한 음성이어  
-정말 훌륭한 딸을 두었습니다  
만나보니 똑똑하고 건강하고  
군사복무도 잘하고있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오시여  
전선의 딸소식을 잊지 않고 전해주시는  
아버이 그 사랑  
그 사랑앞에 두무릎 꿇고  
큰절을 올리고싶은 어머니  
딸을 만나주신 그 사연을 듣고  
너무도 감격하여 실신했던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뢰이고 또 아뢰이는 그 말을  
나는 전선일지에 적었노라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습니까  
한나라의 위대한 령도자가  
한 가정의 딸의 소식을 전해주시려  
이리도 먼길을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조국의 운명을 한어깨에 얹으신  
나라의 최고사령관이  
한 병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셔야 합니까  
동서고금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애가 어찌 우리 딸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셨으니  
우리 경순인 정말 장군님의 딸입니다

경순이 어머니 더 말을 잊지 못하고  
그이를 우러르는데  
-그래그래,  
정말 그 애들을 잡지도 못보면  
난 못살것 같소  
그래서 내 또 찾아갔던거요  
어머니가 심은 그 감나무들을  
그애들이 잘 가꾸고있소

감나무, 못잊을 감나무

수령님 다녀가신 영광의 해안초소에  
감알들이 무르익을 그날을 그려보며  
이 나라 첫 녀성해안포병들이  
정성껏 심은 그 감나무

장군님의 가슴은 뜨거우시였다  
자기가 섰던 초소에 딸을 키워 내보낸  
감나무의 첫 주인  
나라를 지키려는  
순결하고 강직한 애국의 그 마음을  
값높이 안아주고싶으시였다

딸을 초소에 세우려  
밭짓는 일, 장작패는 일까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주며  
남모르게 애써온 그 수고를  
세상에 빛내주고싶으시였다

-정말 장한 동무들입니다  
대를 이어 조국을 보위해가는  
이런 훌륭한 가정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 군대도 것처럼 강합니다

위대한 사랑의 파도속에  
다시금 울리는 말씀  
-이 동무들을 평양으로 부름시다  
수도에서 딸과 부모들이 만나게 해줍시다

아 우리 장군님  
청춘시절을  
성스러운 조국보위로 값있게 빛내며  
이 나라 초소를 지켜선  
미더운 아들딸들과  
고향의 부모들을 격려해주신다

듣는가 하늘이여 땅이여  
보는가 사람들이여  
병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무성하게 설레이는 감나무  
그 아지마다에  
그리움으로 무르익힌 감을 안고사는  
이 나라 병사들과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장군님은 가장 뜨거운 축복을 주시여라

인민은 장군님을  
그리워하고

장군님은 인민을  
그리워하시는  
그리움의 이 땅

최고사령관과 붉은 감  
복반은 이 땅에 자라  
어디서나 무르익는 그리움의 감  
천만군의 황금과도 바꿀수 없는 붉은 감

강철의 포신들과  
무적의 전차행렬  
번쩍이는 비행대들과  
산악같은 함선들이  
최고사령관과 이어졌다면  
우리 이처럼 놀라지 않으리

최고사령관과 감 한알  
그것은 너무도  
나란히 할수 없는 작은 이야기

하나 그것은  
그 어떤 무장력에도 비길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불패의 힘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심장의 열  
이 세상 가장 그윽한 인간의 정

그것은 펠레야 펠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최고사령관과 병사와 인민이  
혈육으로 맺어진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대명사

아 감 한알  
사나운 폭풍에도 격랑속에도  
천만의 가슴속에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에 따로 없이 무르익는  
조선의 감  
그것은 **김정일**장군님품에 운명을 맡긴  
인민의 마음이었다!

오 설레여라  
장군님 가시는 천만리전선길우에  
감나무여 무성하라  
내 나라 강산에 한껏 무성하라

(1998년 2월 4일)

##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에 대하여-

리창유

최근에 나온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작)는 그의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으로 하여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으며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패의 보루로 다져져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세계 사회주의운동도 주체의 항로를 따라 새롭게 재건되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내닫게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제기하고 그것을 1980년대 하반기와 1990년대 초의 격변하는 사회력사적배경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천명해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과 70년간 사회주의를 건설했다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였던

쏘련이 총 한방 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사상공세에 무릎을 꿇고 련이어 망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들어서는 엄중한 사태가 도래하였다. 여기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검질긴 압해책동과 회유기만, 자본주의사상공세에도 중요원인이 있지만 보다는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 당지도부의 수정주의, 개량주의적 로선과 배신행위,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과 미화분식, 인민대중에 대한 관료주의적사업방법과 사상사업에 대한 홀시 등 자체내부의 간과할수 없는 오류에 큰 원인이 있었다. 이로부터 당은 변질되어 《개혁》, 《개편》바람에 녹아났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파괴되었으며 마침내 자기의 존재마저 지켜내지 못하고말았다.

이렇듯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집권당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놀라운 사태앞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갈길을 몰라 허덕이었고 사회주의를 전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3세계나라 인민들은 실망과 비애에 잠겨있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된 사태를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마치도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듯이 《환성》을 터뜨리며 자본주의 《영원성》을 떠들어댔다.

바로 이러한 때 지구 동반구의 사회주의나라 주체조선에서만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대중중심의 진정한 사회주의가 더욱 활짝 꽃피었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어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수도 평양에 모인 세계 70개 정당대표들이 서명한 평양선언 《사회

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되어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평양선언》, 이 위대한 선언의 발표는 일찌기 최초의 세계공산주의자들을 격동시킨 《공산당선언》처럼 력사발전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위대한 사상, 위대한 도덕, 위대한 사랑의 감화력으로 하여 온 세상 진보적 인류의 심장에 불을 지켰고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주체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벌려나갈 리정표를 마련해주었다. 하여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하더라도 세계 213개의 정당들이 이 선언에 서명하고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고있다.

참으로 평양선언의 발표는 사회주의 《종말》을 꾀치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꾀변을 단호히 분쇄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었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진보적인류에게 재생의 열망과 환희에 넘친 휘황한 미래를 안겨준 삶과 투쟁의 백과전서였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위대한 령도풍모, 고매한 인덕정치의 참모습을 이려 저려한 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 시대를 전형화할수 있는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보이고있다. 소설은 작품형상전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활짝 꽃피우시는 인민의 참다운 어버이이시며 세계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한길을 따라 드팀없이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며 세계혁명의 찬란한 태양이심을 형상적으로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냐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세계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힘차게 벌려나갈 로선적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사상과 령도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의 전략과 로선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깊이있게, 폭넓게 그려보인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이 있다.

주체의 문예리론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높은 수준에서 품위있게 형상화하려면 위대한 수령만이 해결할수 있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풀어나가야 수령의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풍모를 웅당한 높이에서 보여줄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령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것입니다.》**

수령의 령도에서 기본은 혁명의 전략과 로선을 세우고 그 관철으로 당과 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것이다. 작품에서 보논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하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선행로 동계급의 기조리론공식에만 매달려 경제건설일면에만 치우쳐있을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만은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함께 점령해나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일 방도의 하나로 군을 잘 꾸리고 그를 거점으로 하여 도시의 로동계급의 문화가 농촌에 흘러들도록 집 한채, 유원지 하나를 꾸려도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도록 세심히 지도하신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련이어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과 소련이 망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에 들어서게 된 실상을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벌리는 사회주의 《종말》에 대한 악랄한 사상공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거대한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성, 비렬한 배신자로 굴러떨어진 수정주의자들의 더러운 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는 일대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신다.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여 20세기말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고 세계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추진시킬 위대한 선언, 평양선언을 채택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다.

이와 같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은 회세의 결출한 위인이시고 참다운 인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시고 이끌어 나가실수 있는 문제들이다. 작품에서 이러한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사색과 로고 속에서 펼쳐지고 천리혜안의 예지

로 혁명과 건설의 미래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속에서도 제때에 정확히 내다보시며 필승의 지략을 펼치시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시대의 초미의 문제로 승화된다. 이것은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가 사건 하나 취급해도 오직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잘 취사선택하였음을 실증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아무리 작은 사건 하나를 취급해도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빛발아래 꽃피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적인 문제로 전환시켜 보여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리하여 하나의 작은 사건도 하나의 커다란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로 그려져 궁극에는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의 정치의 참모습과 커다란 감화력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진면모를 훌륭히 그려내었으며 우리 인민모두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람의 정사를 베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개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형상체계의 중심에 확고히 위치하게끔 합리적인 구성조직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취급된 몇개의 사건만이라도 상기해보자.

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근우가 1호용광로의 불을 자의대로 끄고 대보수공사를 벌려 나라의 철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건을 두고 해당부문의 당, 경제부서 일군들은 그에게 《보신주의》, 《패배주의》 딱지를 붙이고 엄중한 책벌을 주자고 당중앙에 제기한다. 최고검찰소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태껏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던 그가 오죽하면 자의대로 로의 불을 꺾겠는가, 그것은 우의 경제부서일군들이 그의 사업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잘 도와주지 않았고 련관단위의 기업소들이 로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을 주신다. 또한 새로 부임되어 산간벽지인 군을 자체로 꾸리기 위해 노력하던 송탄군당책임비서 차영진이 가정주위환경과 경력이 복잡한 한 세멘트기술자를 교양하여 세멘트공장건설을 책임지게 하고 그후 공장이 건설되자 생산도 책임지게 하던 나머지 질낮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일부 주택건설에 지장을 준 사실이 신소되어 사업정지를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는 그 사건의 전후사를 채로해하도록 하시는 한편 현지지도로 통하여 몸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신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송탄군당책

임비서 차영진이 본인의 성실성과 솔직성을 믿고 가정주위환경과 경력이 복잡한 세멘트기술자 주상민을 대담히 등용하여 그에게 중요책임을 맡긴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마침내 주상민으로 하여금 세멘트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믿음을 안겨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을 믿고 당앞에 자신의 커다란 사상적과오를 진심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뉘우치는 사람은 언제나 관대하게 용서하시며 그러한 청렴결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준다.

사회과학원의 박사인 류수진이 쓰련은 《개혁》, 《개편》 바람이 불어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인민경제대학 초빙강의에 나가 이야기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건화하지 않는다. 그러시고는 지식인들은 제논으로 그러한 실상을 보고 자기의 그릇된 관점을 스스로 고치게 해야 한다시며 류수진을 모스크바공업대학에서 열리는 《동창회》에 보내도록 하신다.

류수진은 허물어지기 직전의 쓰련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부정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제논으로 보고 종전까지 품어오던 자기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으며 조국에 돌아오기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가 여태 잘못 생각해온 점들을 털어놓고 비판한 편지를 써서 올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당에 속을 주고 당앞에 솔직한 사람은 어떤 과오도 고칠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류수진이 조국에 나오자 몸소 접견하시고 세계정세와 관련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 후 친히 그를 국제문제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해주신다.

이처럼 작품에 그려진 이 매개 인물들의 운명 문제는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것으로서 비록 사건 자체는 큰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사회정치적문제의 심각성과 예리성은 자칫하면 잘못 평가되고 처리될수 있는것들이었다. 때문에 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근우나 송탄군당책임비서 차영진, 사회과학원 박사 류수진, 송탄군세멘트공장 지배인 주상민 등 작품에 그려진 중요인물들은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발생한 일련의 본의아닌 《과오》로 하여 말은바 직책에서 해임될수도 있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아무런 곡절없이 혁명임무수행에서 계속혁신을 가져오고 충성의 붉은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인민모두의 참된 삶과 행복,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친근한 어버이이시며 따라서 장군님만 계시면 그 누구든 혁명에 진심을 바쳐갈 때 그 길은 항상 승리와 영광의 길로 잇달아있게 된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어찌 이리한 사건, 이야기가 우의 몇몇 인물에 한한것이라. 작품에서는 전쟁시기 련대장으로 싸운 예비역 상좌(후에 대좌로 됨) 류한무나 그의 손녀이며 박사 류수진의 외동딸인 류성희 그리고 그가 반려자로 택한 영예군인 예비역 중위 오영준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너지실 도로를 늘 깨끗이 청소하는 한 농촌마을의 오중흠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참된 삶의 희열을 마음껏 누린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내대고 스스로 사회에 유익한 일을 찾아성근히 해내고있다.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로 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며 이들모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의 산아들이다.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승승장구한다는 작품의 깊은 사상이 맥맥히 흐르고있는것이며 소설이 시사하고있는 무게있는 형상과제가 체현되어있는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의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은 또한 화폭의 중심에 서있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형상이 비할바없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이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이 깊이있게 형상되었을뿐아니라 그이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심오하고도 뜨겁게 그려진데서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객관정세를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제때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여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신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쓰련이 련이어 망하고 자본주의가 복귀될 때 적지 않은 세계공산주의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몸부림친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수정주의로선을 고취하던 변질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의 총과산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사회주의는 살아있으며 반드시 그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재건될것이라고 단정하신다.

이것은 보통 정치인으로서의 예측할수도, 내다볼수도 없는 착잡한 정세발전의 흐름에 대처하여 혁명의 미래를 손금보듯 내다보는 위인의 비범한 예지이며 언제나 과녁을 명중하는 백발백중의 예견성이다.

국제문제전문가인 박사 류수진이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같은 징후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안타까와할 때에도 그이께서는 이제 곧 세계사회주의

운동은 재건될것이라고 하시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파국상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싹들을 잘 찾아 보자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신다.

자그마한 정세변화의 징후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을 밝혀내시며 사태의 진상과 원인, 결과를 비롯한 내적인 련관관계를 도출해내시고 앞날을 예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비로운 분석력과 판단력, 추리능력은 실로 한계가 없으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한 과학적인 선견지명을 지니셨기에 세상사람들이 지성인의 예측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변이라고 한 소련의 붕괴와 분열을 이미 오래전에 내다보시고 이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현대 수정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여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체도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도록 강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조금이라도 인민을 홀시하고 자신을 인민우에 군림시켜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거나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발로하면 이에 대하여 제때에 가차없이 사건화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한때 송탄군당책임비서로 사업하였고 그후 도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업하고있는 송규태가 평양의 어느 한 회사일군으로 있는 아들 송기선이라 동조하여 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차례진 창광거리 새 주택을 받으려고 은밀히 동분서주한 사건을 두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모로 이들의 사업과 생활을 깊이 료해하신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큰물이 났을 때 송규태가 송탄군의 피해정형을 료해하러 내려가다가 비겁하게 되돌아선 사실과 중요대상에 공급해야 할 강재를 슬그머니 아들에게 빼돌린 사실을 아시게 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일군에게는 벌써 개인을 집단우에 올려놓는 간과할수 없는 결함이 잠재해있다고 하시며 이 문제를 곧 사건화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송규태는 당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범한 과오를 뉘우치고 한 광산에 혁명화하러 내려가게 되며 외국에 나 다니면서 값진 물건들을 사들이는데 환장이 되었던 아들 송기선도 평양가까운곳에서 혁명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은 출신성분이 나쁜것도 아니고 지나온 경력도 문제시되는것이 없다. 출신성분도 좋고 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일군들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자신을 인민우에 군림하는 특수한 존재로 여기고 제살 육심만 부렸던가. 이런 일군들은 인민의 총복이 되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말로만 외우고 실천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작품에서는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뜨겁게 그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은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인민과 생활적으로 련결되어있다는데 그 진가가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로 관리위원장이 된 한 일군을 만나 축복해주시려고 전쟁접경에 이른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이미 예견한 현지지도의 길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박사 류수진의 딸 류성희가 외국물건이나 잔뜩 사가지고 와서 사랑을 구걸하는 회사일군 송기선을 단호히 차버리고 전방초소에서 치명상을 당한 한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 할 결심을 피력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 결혼식은 자신께서 차례주시겠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이 영예군인을 혁명초소에 다시금 내세우시기 위하여 몸소 전화를 드시고 현대의학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난 한 농촌마을 로인의 소박한 이야기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자신께서 믿으시던 일군이 사업에서 약간의 실수로 신소를 받았을 때에는 사소한 것도 엄하게 대하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은 **《인민위선》**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 그대로이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생활조건을 더 잘 지어주시기 위해 늘 심려하시는 참다운 인민적복무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다.

하기에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인간애로 하여 송탄군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의 부엌이 녀성들의 기호에 맞게 쓸모있게 꾸려지는 등 사랑의 일화들이 자주 생겨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노래가 있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치는 인민의 감사의 노래가 있고 소설의 이야기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느껴지는 비결이 있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의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이 생활적으로 세부화되어 예술적향기가 있게 잘 그려진데서도 느낄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어제는 중앙에서 열린 회의의를 지도하기도 하시고 또 오늘은 전연에 자리잡은 인민군부대를, 또 래일은 산간지대의 군을 현지지도하시며 분망한 나날을 보내신다.

끝없는 사색과 로고로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만나 허물없이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의논도 하시고 때로는 백두의 눈보라를 맞으신후 허물없이 들쭉술도 나누신다.

소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파사로운 인간적품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풍만한 생활속에서 특색있는 생활세부의 깊이있는 묘사를 통하여 여러모로 잘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돌아오신 이튿날로 박윤식도당책임비서와 함께 도안의 인민들이 닦아놓은 《충성의 도로》를 돌아보시는 장면만이라도 상기해보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박윤식으로부터 이전에 출신성분과 경력이 복잡하다고 론의가 분분하던 송탄군세멘트공장 기술자 주상민이 그간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지배인으로 사업하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사망되기 이틀전 안해와 함께 집에서 골라 닦은 자갈 한배낭을 가지고와 제손으로 이 도로에 폄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 가득 뜨거운것이 차올라와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한다...

그러시다가 도로에 내리기 시작한 눈을 쫓기 위해 길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마을사람들이 떼를 지어 밀려나오며 떠들썩하는 광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되뇌이신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인민이다. 아, 어떤 인민인가. 의리가 깊고 도덕이 고상한 인민, 자기수령을 모시고 받들줄 아는 인민! 세계력사상 어느 나라, 어느 령도자가 자기 인민들로부터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가?! ...인민들의 이 신뢰심, 경모심, 숭배심. ...이건 ...이건 수령님께서 수천만리길을 걸으며 한생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해 헌신복무하여 이룩하신것이다! 한생의 로고를 얻으신 가장 빛나고 가장 값높은 우리 혁명의 재부이다! ...》 하시며 《여기는... 충신중의 충신들이 사는 고장입니다.》라고 뜨겁게, 절절히, 조용히 말씀을 이으신다.

소설에서는 이렇듯 생활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을 펼쳐보이고있으며 이로 하여 작품전반에 강한 서정적색채가 짙게 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과 련계된 중요한 물들, 려킨대 송탄군당책임비서 차영진, 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근우, 박사 류수진뿐만아니라 류수진의 아버지인 예비역대좌 류한무, 그의 손녀 류성희, 류수진이 류학생시절에 알게 된 동창생 리지야 꾸즈네조바와 라옌쓰끼, 이밖에도 복잡한 경력을 가진 인물인 군세멘트공장 지배인 주상민 등 수많은 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예술적품위가 있게 그려져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화폭의 중심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우뚝 세우고 이어의 중요한물들의 형상에도 깊은 주의를 돌렸음을 잘 말해주고있다.

작품의 양상은 시종일관 밝고 승업하다. 그것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쏘련이 망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에 들어선 험악한 사태를 배경으로 하였으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시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광활한 미래를 밝히시는 탁월한 모습을 시종일관 뜨겁고도 밝고 정중하게 형상하고있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작품은 혁명적락관주의의 강한 여운을 안겨준다.

이러한 혁명적락관주의는 곧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의 보루로 승승장구할것이며 세계사회주의운동도 급속히 재건되어 주체의 한길을 따라 끝없이 강화발전됨으로써 온 누리에 주체의 붉은 노을이 밝게 비치리라는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부터 야기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은 주체시대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꽃피우는 본보기작품의 하나로서 오늘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강행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참다운 길동무로 될것이다.

## 명언해설

《부모들이 혁명가라고 하여 자식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것은 아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혁명사상은 유전되는것도 아니고 상속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기때문에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사상의식은 결코 유전되지 않으며 재산을 물려주듯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넘겨주는것도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해온 혁명가들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날수 없고 나중에는 근본을 잊고 변질될수도 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지난

날 걸어온 길보다 못지 않은 준엄하고 간고한 고난의 길이 놓여있다. 혁명선렬들과 부모들로부터 넘겨받은 혁명의 계주봉을 계속 틀어쥐고 붉은 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역세게 걸어나가자면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로세대혁명가들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혁명가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자녀교양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새 세대 청년들은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전사로 끊임없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박근원

### 뢰성

세계는 보고있다  
높은 령 향해 내달는 조선을  
인류는 들었다  
하늘땅을 찡찡 울리며  
온 우주에 메아리치는 뢰성을!

조선은 받아안았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백승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령을!

최후승리 이는  
가장 값높은 승리  
강행군 이는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행군

력사는 경탄한다  
세기는 우리른다  
최후승리를 조선의것으로 선포하고  
강행군길에 인민을 세워주신  
우리의 장군님을

나아간다 내달는다

천출명장따라  
온 나라 인민이 《병사》된  
조선의 강행군대오가

서고싶다고 누구나 설수 있는것 아닌  
최후승리를 위한  
이 대오에 우리 있거니  
아 이보다 더 큰 영예  
이보다 더 큰 행운 또 어디 있으랴

영광찬 강행군대오의 《병사》  
이 하나면 된다  
다른 그 무엇 바란것 더 있었다면  
우리 애당초 붉은기대오에  
서지 않았을것이리

아 백두장군의 령에  
마음도 몸도 통채로 맡긴 우리  
심장마다 피가 끓어번진다  
마지막 승리의 령을 향해  
온몸이 그대로 육탄되어  
파감히 나아간다  
번개처럼 내달는다

### 우리의 삶

심장이 뛰고 숨이 있어  
땅을 밟고 걷는 사람이라면  
그에겐 삶이 있는것  
삶이 있다면  
그에겐 행군도 있으리

그렇다고 사람들이여  
땅을 밟고 걷는 사람들모두의 삶이  
그대로 행군은 아니거니  
행군이라는 말 너무 쉽게  
자기 삶과 나란히 하지 마시라

행군이란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 대오가

그 어떤 목표를 향해  
먼길을 가는것

허나 떼뻗이 말하련다  
우리의 삶은 행군이리라  
혁명의 행군속에 태어나고  
혁명의 행군위해 우리 삶이 필요하거니

행군으로 시작되고  
행군으로 이어진 붉은기대오의 진군  
이것이 우리의 혁명  
이것이 우리의 삶

혁명, 행군, 우리의 삶

이는 언제나 혼연일체  
하기에 우리 삶의 한생은  
붉은기대오의 행군속에 있어라

진군의 첫자욱을 뻗 그날부터  
력사의 험한 준령을 헤쳐넘으며  
언제 한번 걸음 멈춘적없는  
우리 혁명의 행군대오

남보다 더 멀리 걸고  
온 길보다 더 험한 길 가도  
웃으며 또 가는것이  
우리 삶의 행군

이 행군길에서 우리  
신념의 인간  
의지의 인간  
량심의 인간  
사상을 생명으로 하는  
세상 제일 참인간으로  
일심강철의 대오로 되었거니

우리는 긍지높이 자랑한다  
우리만이 걸을수 있는  
우리 식의 발걸음으로  
걸고 또 걸으며 승리해온  
우리의 《고난의 행군》길을

## 우리의 강행군

우리 가는 강행군길엔 있어라  
눈보라치는 엄동설한도  
가시덤불 벼랑도  
사품쳐흐르는 깊은 강도

참으로 우리 가는 행군은  
힘이 들고 숨찬 행군  
겨울내가 나고  
땀을 흘려야 하는 행군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있는 행군

허지만 우린  
신심에 넘쳐 웃으며 간다  
우리 걸음 이끌어주는  
위대한 자욱이 있기에

설명절날의 전선길 이어  
북방의 눈보라 헤치며  
사회주의수호의  
수천수만리 강행군길우에 찍으신  
장군님의 자욱자욱...

아, 인민이 갈 길을

몸소 먼저 열으시며  
우리의 장군님  
그 길에 뜨겁게 새기신  
필승의 신념과 의지  
혁명의 랑만

장군님의 그 불의 신념  
장군님의 그 철의 의지  
장군님의 그 혁명의 랑만  
그것이 그대로 꽃망울되어  
우리 가슴속에 간직되었거니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누구도 지녀본적 없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랑만의 강자로 불리우며  
강행군길을 웃으며 가노라

이 길의 마지막 령마루에서  
우리 가슴속 꽃망울 터쳐  
온 나라 강산에 펼쳐리  
승리, 승리의 꽃바다를

## 우리 가는 길 나는 좋아

내 어려운 행군길에서  
얼음산우에 천막을 친대도  
남의 집 빼치까방엔 들어서지 않으리  
내 강행군길에서 강낭밥을 먹어도  
남이 주는 빵은 먹지 않으리

내 걷는 강행군길  
남의 덕에 편안히 간다면  
나의것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추억하며  
무엇을 후세에 물려주랴

강낭밥을 먹어도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얼음산령을 넘고헤쳐도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내 발로 걷는것이 나는 좋아

나의 땀방울  
스며있지 않는  
그 무엇도 내것 아니거니  
남이 주는 복을 누린다면  
그 무슨 행복이라

복이 아무리 큰대도  
내것이 없는것

그것은 내 삶의 정지이며 죽음  
나의 후대도 없는것

하기에 그 누가 나를  
꽃수레에 태워  
한생 꽃길을 가게 해준대도  
나는 싫어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우리 가는 길 평탄치 않아도  
이 길에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있고  
인민의 존엄이 있고  
내 삶의 오늘과 래일이 있거니  
아 나는 좋아  
우리 가는 이 길이

## 최후의 영원한 웃음

사람들은 누구나  
울기보다 웃기를 바란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짓는 웃음  
그모두를 귀중히 여긴다

허나 우린  
자그마한 승리의 웃음에  
만족하지 않는다

가장 마지막 승리의 그날에  
터뜨리는 웃음  
그것만이 영원절대의 우리의것이거니  
걸어온 걸음새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고난의 행군》길 이어  
다시 강행군길에 오른 우리

장군님의 사상, 철학으로  
**김정일**정치방식으로  
대담한 공격전으로  
막아선 난관을 부시며  
승리의 상상봉에로 내달는  
우리의 강행군대오

오, 우리는 본다  
력사의 모진 풍파 웃으며 헤쳐온  
대오의 진두에 펄펄 날리는 기발을  
백두의령장 높이 드신

최후승리의 붉은 기발을

오, 우리는 벌써 듣는다  
천하를 들었다놓으며  
강산에 넘쳐나는  
불세출의 명장  
**김정일**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그 폭풍치는 웃음속에  
제국주의 반동무리 박산나고  
흑독한 자연의 엄습도 머리숙여라

그 위대한 웃음속에  
조선은 강성대국으로 영광 떨치고  
인민은 모두  
영웅으로 자랑높아라

그 영원한 웃음속에  
우리 오늘 보란듯이 살고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또 긍지높이 살아가리

오, 빛나라!  
그 웃음속에  
**김일성**조국이어!  
**김정일**세기여!

## 영생하는 벚

차승철

나는 아카시아나무가 울창한 나지막한 야산을 등진 학교정문에 들어섰다.

조군실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옛 원산남자고급중학교이다.

하루일과가 끝난 저녁이어서 어둠이 서린 교정은 조용하였다. 나는 본교사의 현관앞에 우뚝 서 있는 조군실영웅의 동상앞으로 갔다.

전쟁전 내가 녀자고급중학교에 다닐 때 류다르게 따르며 가까이 지내던 남고중학생 조군실, 머리가 백발이 된 오늘에도 이따금 지날 때이면 의례히 찾아보곤하는 영웅의 동상은 촛수높은 조명등의 교차광속에 청동색자태를 눈부시게 나타내고있다.

볼을 뽐으며 앞을 쏘아보는 눈초리, 붕대가 두터이 감겨 드리운 두팔대신 턱으로 중기관총의 압철을 누르며 멸적의 총탄을 퍼붓고있다. 그러나 내가 소리쳐부르면 능청스레 빙글거리며 금시 마주 달려올것만 같은 학생때 그대로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조용히 동상에 다가섰다.

《제가 왔어요. 정옥경이에요. 날이 저물었는데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모르시겠지요. 오늘 저는 60돐 생일상을 받았답니다. 해놓은 일도 없이 나이만 먹은게 쑥스러워 60돐 생일날을 몇해 미루어왔는데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제자들은 올해에는 꼭 60돐 생일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상을 정성스레 차려주고 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추억도 많았고 서로의 당부도 많았어요. 더구나 그들은 저와 군실동무가 친한 사이였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학창시절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꾸 조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웅색하던지. 그런 때엔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하는가를 좀 말해주세요. 옛 상급생답게 말이예요.》

대답이 없다. 학교도 이전의 그 학교, 뒀산도 예전 그대로의 명석산이건만 모교에 서있는 군실은 뭔가 말해줄듯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

아! 그는 우리 곁에 없다. 우리는 공부도 같이 하고 꿈도 함께 나누었고 전선에도 한날한시에 나갔건만 나 혼자만이 돌아오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나만이 돌아와 희망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연주가로, 공훈배우로 그리고 음악후비를 키우는 교육자로 되었다. 머리가 총명했고 희망도 리상도 높던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해놓았으랴. 이런 때 그가 곁에 있다면 아직 체득 못한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주기 바라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초여름밤의 소슬바람이 싹싹하고 향긋한 아카시아숲향기를 풍겨왔다. 애뜻한 우수와 함께 무엇인가를 다정히 속삭여주는 듯한 훈향은 청춘시절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불러왔다.

...

하루공부를 끝낸 우리 두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내의 중심거리를 걸어갔다.

국영백화점 주위에 상점, 식당, 각종 개인점방들이 준비하니 늘어진 변화가를 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자주 바라보았다. 며칠전 우리 시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관동권투경기때 련결강타의 명수라 해서 《피스톤주먹》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선수를 완전넘어뜨리기로 처이긴 군실이와 함께 건기때문이었다. 자기 학교편아닌 시권투계의 영예를 떨친 군실에게 쏘리는 경탄의 시선들이었다.

그 눈길들을 마주하느라니 강한 의지와 체력을 배양한다며 제집 트락에 달아매놓은 모래주머니에 대고 극성스레 권투런습을 하던 군실이가 떠올랐다. 뒤이어 력도관(권투, 력기를 배우는 체육관)에 자주 나드는 아들을 타이르던 군실이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었다.

《권투와 체육에 지내 미쳐돌아가지 말구 공부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 새벽이 두번 안 오는것처럼 젊은 때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때를 놓치지 말구 직심스레 배워야 한다.》

군실이는 주택보수사업소 미장공인 아버지를 무척 존경하며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어렵게 여기는터여서 학교의 권투팀과 력비팀의 기동선수로 손꼽히면서도 기본학과학습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금도 군실이는 저에게 쏘리는 찬탄어린 못시선들에 무관한듯 나와 범상스레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지났다.

나 역시 군실이의 권투같은것에는 그닥 흥미가 없다나니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주로 당면한 학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가 다니는 녀고중과 군실이네 남고중은 퍼그나 상거한 거리에 떨어져있었으나 작년가을 도학파경기때 서로 낯을 익힌 다음부터 자주 접촉하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공부가 끝나면

도안의 고전부(고급중학교, 전문학교부문) 학생들속에서 뛰어난 수재로 알려진 군실이네 집에 자주 드나들곤하였는데 솔직한 말로 나보다 한학년 상급생인 군실이의 실력과 학구열, 남다른 학

습묘기 등을 따라배워 제것으로 만들자는 《야심》에서였다.

주위를 돌아볼 사이없는 나의 이 행동을 은근히 주시하던 한학급의 몇몇 녀학생들은 뽀루뽀루해진 얼굴로 입빠른 말을 돌리었다.

《공부때문에 끌린줄 알았더니 정분이 나기 시작했구나. 애, 얼마나 훌쩍 반했는지 로메오를 따르는 줄리에트갈애.》

《사랑이란 그런 의외로운데로부터 시작된다지 않니. 소문난 최우등생에 인기있는 권투선수이고 럭비선수잖다, 거기에서 미끈한 미남자이니 반할만도 하지 뭐. 하지만 너무 때이르게 시작된련애는 때이르게 무너앉아 식어버린다더라.》

나는 그 뒤소리들이 처음 귀에 날아든 순간 까무라칠만큼 놀라며 분개하였다. 그러면서 공부에 더욱 몰두했다. 현재로도 남에게 그닥 뒤지지 않는 성적이라고 하지만 대학에 당당한 자격으로 입학하자면 군실이의 실력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결심으로 끝을 싸매고 달려들었다.

새학년에 오르기 위한 진급시험준비가 한창이던 여름날, 나는 바다가에 홀로 앉아 수학문제를 예습하였다. 퍼그나 까다로운 응용문제여서 여러가지 식을 유도하며 풀어보느라 했으나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송도원쪽으로 뻗은 해안도로에 쏜살같이 자전기를 타고오는 군실이가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동급생인 박성갑이네들이 세바퀴오토바이를 타고 바짝 뒤따랐다. 군실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달린듯 곁에 언제나 동무들이 많이 묻어다니었다.

걸치레가 많고 허세부리기 좋아하는 성갑이는 아버지가 점장으로 일하는 소비조합 어물매점의 오토바이를 슬며시 빼내어 타고나왔을것이다.

나는 순식간에 내앞에 다달은 군실이를 멈춰세웠다. 요즘 자전기를 타고 시내가 좁다하니 돌아치는 그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져 가시를 둔구어 이죽거리었다.

《아주 멋있어요. 학생티란 조금도 없구 그전날 자전거방집 심부름군 같군요.》

군실이는 자전거를 길섶에 댄채세웠다. 그리고는 뒤따라 모여든 박성갑이들을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하! 이거 무슨 달콤한 상봉이 있을것 같구만. 여, 우린 방해하지 말구 물러가자구.》

박성갑이는 제 짝패들을 휘몰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통통거리며 달아나버리었다.

군실이는 나와 단둘이 남자 미간에 주름을 모으며 따먹지 않게 물었다.

《왜 세웠소? 무슨 일이요?》

《한번 물어보아요.》

나는 여직 머리를 짜며 마주했던 응용문제를 내밀었다.

군실은 돌연스러운 나의 행동이 기찬듯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이건 뭐 시험을 치자는건가?》

《아니, 그런게 아니예요.》

군실이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나를 잠시 지름떠보고나서 책과 연필을 받아들었다. 문제의 수자를 하나하나 더듬는 그의 낫색은 어느덧 진지해졌다. 그러나 크게 주의를 집중하는 기미란 없이 순식간에 풀어치웠다. 어렵게 생각되던 다른 몇문제를 더 내놓았으나 그것도 인차 답을 냈다. 침착하고 자신있게 움직이는 그의 연필끝에서는 복잡하게 엉켜들던 수자들이 단순하게 움직이며 순편스럽게 답이 나오곤하였다.

《아! 어찌면... 정말 최우등생이 다르군요!》

군실이는 나의 감탄파워엔 흥미가 없는듯 책과 연필을 돌려주었다. 뒤이어 자전거바퀴에 붙은 주먹만한 쇠덩이를 떼냈다. 제손으로 만든 축전지가 달린 발전기였다. 그는 자전거의 공구주머니에서 꺼낸 자그마한 전압계를 축전지에 대고 계기의 눈금을 살피었다.

《이걸 보라구. 우리 집에서 송도원까지 두번 갔다오는동안 스무와트시가 충전되었구만. 별치않은 자전거바퀴에서도 전기가 생긴다는게 흥미있지않소.》

이윽고 군실이는 무엇에 열중할 때면 하는 습관대로 아래턱에 힘을 주며 발전기를 자전거바퀴에 도로 맞추었다.

《우리 시주변에는 큰산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강하천이 많아. 특히 물흐름이 급한 적천강과 장림천상류에 발전소들을 세우면 수만크바의 전기를 생산할수 있을거야. 그 전기면 우리 원산사에서 실컷 쓰고도 남을거요. 멀지 않아 실현될수 있는 확정적인 전망이라니까.》

나는 가르르 러지려는 웃음을 참으며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군실이의 행동이 소나무껍질로 만든 장난감배를 개울에 띄워놓고 큰 기선이나 무어낸듯 으시대는 철부지처럼 유치해보이였다.

나는 군실이의 발전소공상이 많은 사람에게서 촉망어린 눈길을 받는 그에게 비할 때 극히 하찮게 느껴지며 속이 허전해졌다.

《희망의 날개를 더 크게 펼치자요. 인간은 무수한 작용력을 품은 자연의 비밀을 이제 겨우 한 귀퉁이를 찾아낸데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남모르던 신비한 발견을 지향하는 리상이래야 장래성이 있다는데 그런 자전거바퀴놀음이 향차 뭐예요.》

군실이는 모욕을 느낀듯 일순 흠뻑했다. 하나 곧 정채도는 노르스름한 눈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정 쓸모있는 발견은 멀고 신비한데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늘쌍 대하는것을 대자연의 실험실이라 여기고 구석구석 살피며 배우느라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한것을 많이 습득할수 있을거요. 참, 동무네 녀고중에

서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제1회졸업식에서 하신 연설을 학습했겠지. 연설에서 가르치신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기술인재가 되는것, 세상에 더 비할바없이 값있고 귀중한 밑천인 기술인재가 되어 인민을 위한 재부를 무진장 창조해가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리상도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 이제 두고보라구. 발전소뿐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나. 앞으로 이삼십년후엔 어떤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겠는지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가 있다면 천리라도 따라가 물어보고싶구만.》

나는 자기만의 꿈이 고집스레 어린 군실이의 눈길에 닿은 수평선쪽을 바라보았다.

질은 초록색 바다우에는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는 기폭인듯 희고 푸른 돛배들이 점점이 널려 해빛에 빛났다. 그너머 수평선에서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엷은 운무가 미묘한 보라빛 신기루를 그려놓았다. 그사이로 무엇인가 보일듯보일듯하면서 종시 눈에 잡히우지 않는다.

그날부터 나는 공부에 더욱 전심했다.

졸업학년으로의 진급을 앞둔 초여름의 어느날 밤이었다.

나는 하루공부를 끝내고 교사 2층 한끝의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마주하였다. 한학급 녀학생들이 청하는대로 기악곡을 몇곡 치고나서 악보를 뒤적일 때 군실이와 박성갑이가 방에 불쑥 들어섰다. 시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들린상싶다.

《피아노소리에 끌려 그냥 지나칠수 없구만. 먼저번 학생종합공연때 절찬반는 옥경동무의 연주를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조용한 밤에 감상하던 더 멋이 있을것 같아서... 한곡 더 타주오.》

군실의 어깨에 한손을 얹은 박성갑의 청이었다.

나는 우리들끼리 잠기려는 아늑한 정서적분위기를 깨친 군실이들의 부잡스러운 출현이 달갑지 않았으나 거둬 청하는바람에 피아노를 다시 마주했다.

더우기 자전거발전기같은것을 놓고 요란한 의의를 부여하며 떠들어대던 군실에게 그날 바다가에서 채 해주지 못한 대답을 심오하고 장래한 음악의 선물로 씨웁스레 말해주고싶었다.

새로 나온 행진곡 하나를 손가볍게 치고나서 《아무르강의 물결》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유연한 나의 손이 건반 좌우를 나는듯 달리는대로 격조있는 화성음이 울리며 용용히 굽이쳐흐르는 넓고 검푸른 강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물결사나운 격류를 이루는가 하면 때로는 호수처럼 잔잔해지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흐름, 강변에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태고의 처너림과 박력있는 줄곡을 이룬 강안의 버랑들, 저 멀리 동쪽에서 솟아오른 태양이 금빛해살을 비쳐오며 애무하듯 물결을 어루만진다. 그러자 검푸른 강물은 높

뛰고 소리치며 달려간다. 희망의 바다, 무변광대한 안식의 품인 대양을 향하여! ...

드디어 연주가 끝났다.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난 녀학생들은 군실이들에게 연주를 들은 값을 내라고 졸랐다.

군실이는 아래턱을 쓸다가 별로 주뭇거리지 않고 생각을 더놓았다.

《역시 피아노는 잘 치오. 한데 그닥 재미가 없구만. 기왕이면 남의 나라 강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담은 곡을 타면 듣기 좋을게 아니요. <승리의 5월>이라던가 <산으로 바다로 가자> 같은 것말이요.》

음악에 들어서는 문외한이라 할 군실에게서 신통한 대답을 들으리라 바라지는 않았지만 경멸이 어린 그 말은 온몸의 피가 머리로 뻗쳐오르게 하였다. 나는 너무도 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맞받았다.

《명곡의 선율은 인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남의것을 지내 숭상하는것 같아 하는 말이요.》

성갑이가 시물거리며 우리 연쟁을 말리려들었다.

《이거 너무 심각하군그래. 머리들을 식히라구. 아무르강의 물결이던 알프스의 빙설이던 알아두는게 나쁠거야 없지 않아.》

나는 군실에게 무척 추종하는 성갑의 참견에 더욱 반발이 일었다. 군실이와 짝패선수로 고작 권투 하나밖에 모르는 박성갑은 군실에게 늘 낮추 불어다니었다. 나는 군실이가 들으라고 박성갑이를 쏘아주었다.

《훌륭한 음악은 알아두어서 나쁠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가 꼭 알아야 해요. 그건 인간의 정신을 고상한 세계로 승화시킨다는걸 동무가 알기나 해요?》

군실은 눈물이 가랑가랑 솟을만큼 약이 오른 나를 능쳐주려는듯 빙그레 웃었다.

《그 말은 옳아. <아무르강의 물결>은 물론 좋은 곡이요. 그러나 남의 나라것인 그 곡에 심취되기앞서 우리의 적천강이나 장림천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지 않을가. 옥경동무에게는 그게 좀 부족한것 같아. 그러다나니 공부에서나 피아노연주에서나 고무풍선처럼 둥 떠보이거던.》

나는 손으로 귀를 감싸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극도의 모욕감으로 자기 존재를 의식 못할만큼 격해오른 나는 입술을 옥물며 결심했다. 조군실이와는 더이상 상종을 하지 않으리라...

그날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시인민병원 소아과의사인 어머니는 매우 신중한 기색으로 나를 앞에 불러앉히었다. 외동딸인 나를 큰소리 한번 치지 않고 애지중지 여기는 아버지와 달리 늘 엄하게 구시는 어머니는 나를 한참동안 더듬어보다가 일렀다.

《너와 군실이 사이가 남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돌아가는구나. 공부때문에 함께 가까이 다니는건 좋지만 행실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을 듣기엔 아직 일러.》

불붙는데 키질적인 생똥같은 혼제였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어푸러지며 눈물을 쏟았다.

《그사람 말을 더는 꺼내지 마세요. 막 보기도 싫어요!》

그 이튿날 전쟁이 일어났다.

나와 군실은 뜻하지 않은 충돌로 맺힌 불화를 풀지 못한채 각기 전선을 탄원하였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정든 고향거리를 떠나던 잊을수 없는 그날, 역홈에서는 학생취주악대가 《조국보위의 노래》에 이어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줄기차게 불어댔다. 부드러운 그 선율이 평화롭던 나날의 갖가지 즐거운 추억을 불러오며 격조있게 안겨드느것이였다. 군실이와 언쟁을 하던 그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가자》 같은 곡을 치면 좋을게 아닌가고 하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토라진 마음으로 낮을 돌려버린터여서 지금 정작 군실이를 마주한대도 긴히 할말은 없겠지만 야릇한 미련으로 그의 모습을 찾아 사위를 두리번거리였다.

그때 저쪽 구내선을 방금 떠나는 군용렬차승강대에서 군실이가 나를 소리쳐불렀다. 나는 정신없이 그리로 달려갔다. 누군가가 안겨준 꽃다발의 진분홍꽃잎이 반사되어 얼굴이 검붉은 군실은 나를 향해 뭐라고 열렬히 웨치였다. 하나 열차를 따라가며 파도치는 군중의 격렬한 소음에 삼키여 들리지 않았다. 열차가 점차 속도를 높이자 군실이가 던진 꽃다발이 나의 가슴에 안겨들었다. 달작지근한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싱싱한 해당화묵음이었다. 그 향기보다도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채 언제 만날지 모를 기약없는 길로 떠나가버린 군실에 대한 야속함이 아릿한 향수와 함께 온몸에 젖어들었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나는 쓸쓸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채 군실이네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유개렬차에 올라 역을 떠났다.

×

나는 깊은 추억에 잠겨 영웅의 동상을 마주하고 그런듯 서있었다. 군실이의 동상을 스쳐넘어오는 소슬바람을 타고 내가 받았던 조군실의 첫번째 편지구절이 생생하니 떠올랐다.

우리 부대가 전선 가까이에 위치한 백담령을 지키며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 받은 소식이었다.

《...나는 중기관총사수가 되였소. 총번호는 <민청호 236>이요. 그 수자가 동무네 녀고중 음악실의 방번호와 어찌먼 그리도 똑같은지... 격발기틀에 또렷하니 찍힌 그 수자를 보느라 동무의 피아노연주를 듣던 일이며 박성갑, 리혜순 등 동무

들의 얼굴이 선히 떠오르군하오. 그래서 더욱 친숙하니 느껴지는 기관총이요. 눈보라치는 날 행군할 때면 모포를 두툼히 감아 둘러맸고 추운 겨울밤엔 가슴에 불안고 자군하였소. 무기관리에 늘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중대특무장까지도 <여, 군실이, 기관총은 유기체세포를 가진 생물체가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련발무기야.> 하며 웃더군. 나의 중기 236호에는 우리의 집과 정다운 고향거리, 행복한 학창의 날에 무르익힌 우리의 귀중한 꿈을 지켜 빛내여야 할 병사의 의무가 깃들어있기에 그런거요...》

전쟁의 준엄한 환경은 사람들을 대범하게 만든다는 말이 옳은것 같다.

나는 림시병실로 쓰는 농가의 조용한 뒤뜨락에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편지에 음악실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에 무시와 경멸을 당하던 그밤에 대한 화해의 사연이 뒤따를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

(남의 가슴을 것처럼 아프게 허비여놓고도 제말만 제말이라구... 돌심장, 똑쟁이!)

그러면서도 편지의 자자구구를 재음미하며 그를 될수록 넓게 리해하느라 애썼다.

며칠전 전선으로 나가던 박성갑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생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그의 대오는 백담령밑의 마을에서 하루밤 쉬었는데 그때 신이 나서 해준 이야기이다.

...재진격의 길에 오른 군실이네 부대는 내륙산간지대를 타고 질풍같이 남진하였다.

힘준한 계곡에서 맞다든 적기계화보병부대를 통쾌하니 소멸해치운 어느날, 군실이네 부대는 새 전투임무를 받았다.

부대가 진격해나갈 남쪽 전방에 먼저 진출하여 좁은 산골짜기로 뻗어나간 외통길인 《문바위골》도로를 차단하라는것이였다. 공병들까지 포함하여 편성된 차단조는 중기소대 분대장인 군실이가 책임졌다.

이른아침, 부대를 떠난 차단조는 목에서 겨불내가 나게 앞으로 내달리였다. 시간을 얻기 위해 산벼랑이며 강을 곧장 질러가는 직선강행군이였다. 목적인 지점에 거의 다달았을 때 앞에 도로가 나타났다. 길 건너 맞은편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문바위골》에 닿겠는데 도로상으로는 적들이 끊임없이 지나갔다.

불길에 그슬린 포차며 견인전차들, 각이한 병종의 오합지졸무리를 마구 치실은 자동차와 총탄자리가 벌둥지같은 장갑차행렬... 아군의 불벼락에 되게 얻어맞고 만신창된 폐거리였다.

군실이네는 길옆의 숲속에 엎드려 적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였다. 하나 적의 행렬은 끊길줄 모르고 련속 꼬리를 맞물었다. 덧없는 한초한초가

흐를수록 군실이의 마음은 온몸을 비틀어짜는듯 초조해났다.

놈들을 쏘아보던 군실이의 눈에 병긋 불꽃이 튀기였다.

(백번 죽더라도 명령된 시간까지 <문바위굴>에 당아야 한다.)

군실은 어떤 결심을 내린듯 자기 기관총을 부리나케 결합하였다. 조립이 끝나자 군실은 대원들에게 말했다.

《더이상 지체할수 없소. 이제 내 구령이 떨어지면 1렬중대로 도로를 건너가오. 절대 물키지 말고 뒤메터씩의 간격으로 침착하고 여유있게 움직여야 하오.》

길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군실은 기관총을 길옆에 뻗쳐세웠다. 동시에 저쪽 산굽이에 적병이 한가득 타고 박격포를 끈 미군스리퀴다가 나타났다.

군실은 기관총을 그쪽에 겨누채 한손을 번쩍 쳐들었다.

《스톱! (서라)》

쩌렁한 그 웨침이 어찌나 위압적이었던지 적들은 차를 엉겨주춤 멈춰세웠다. 인민군기관총수가 단신으로 저들의 앞길을 막아나선걸 보아 주변에는 큰부대가 매복했을거라고 질겁한 물결이었다. 눈깜짝할사이 모두가 도로를 무사히 건넜다. 눈이 켜해서 이쪽을 지켜보던 적장교놈이 뭐라고 왜가리청을 질렀다. 놈들이 미쳐 손쓸사이 없이 군실이의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적병을 무데기로 쓸어눕히는 연발사격의 세찬 불줄기가 차에 실은 포탄상자에 명중한듯 거센 폭발이 일었다.

며칠후 부대장은 《문바위굴》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군실에게 감사를 주고나서 물었다.

《어떻게 그런 엉뚱한 모험을 했소?》

《놈들은 되게 얻어맞고 패주하는 침략군이 아닙니까. 특히 나의 손에 익힌 위력한 중기관총으로하여 배심은 든든했습니다.》...

나는 박성갑이가 열을 올려 전하는 전투담을 들으며 군실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력을 짜내도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흐르는 학생복차림의 군실이만이 떠오를뿐 것처럼 대담한 병사의 자태는 좀처럼 연상되지 않았다.

편지를 몇번이나 곱잡아 읽고난 나는 그것을 품속깊이에 건사했다.

...포연속에서도 봄빛이 무르녹는 화창한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여전히 백담령령길에서 항공감시근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각 전선으로 통하는 요충도로여서 각종 자동차며 우마차, 보병대렬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길이었다.

적기의 폭격으로 령중력구배길이 끊어져나간통에 령길은 물목이 막힌 여울처럼 범비였다. 적기가 또 달려들수 있으므로 그들을 빨리 대피시켜야했다.

나는 호각을 연신 불어대며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길복판에 선 포차에 다가갔다.

《폭탄맛을 못봐서 꾸물대요? 빨리 옮기랴요, 빨리.》

《에익, 귀따집다.》

운전사는 혀를 끝끝 차며 급히 발동을 걸었다.

나는 길옆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차를 떠나 몇발자국 건다가 어망결에 한 병사에게 눈이 끌리었다.

정기가 도는 눈, 둥글넙적한 얼굴과 역세여보이는 모가 난 아래턱, 무릎에 놓인 중기관총총신. 분명 군실이었다. 곁에 사람이 노상 많이 모여드는것까지도 전쟁전의 군실이 그대로이다.

군실이는 나를 알아보자 썩하니 달려와 손을 짹 감싸잡았다.

《아니, 이거 옥경동무 아니요?!》

《군실동무! 이게 얼마만이에요! 야, 꿈만 같네!》

나는 수십년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라도 한듯 발을 동동 구르며 군실이의 손에 매달리었다. 하긴 서로 헤어져있을지는 한해도 못되지만 전쟁의 준엄한 불구름을 헤쳐온 그 기간이 긴 세월처럼 생각되는 나였다.

군실이는 나의 얼굴과 군복, 팔에 두른 붉은 완장을 뚫어보더니 벌썩 웃었다.

《얼굴이 꽤나 탔구만. 완장색갈과 같소. 화약내가 막 풍기는것 같아. 대하기가 엄엄하오.》

나는 만나자바람으로 던진 군실의 룡담에 제모습을 비쳐보았다. 하긴 겉모습뿐아니라 성격도 새침데기로 불리던 학생때와 달리 왈패스러워진것이 스스로도 우스웠다.

우리는 못병사들의 시선이 쏠리는것도 개의치 않고 말을 하였다.

《이렇게 전선길을 지키느라니 만날 사람은 다 만나는군요. 얼마전에 성갑동무가 여길 지나갔어요. 말수더구가 많고 소식통이 빠른 성미는 여전했어요.》

나는 말쑥하니 멋피우기 좋아하던 학생때보다 나이를 여러살 더 먹은듯 숙성해보이던 성갑이를 상기하며 말을 이었다.

《글쎄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동창생모두가 중기사수, 포정찰수, 땅크병, 공군부대 등 기술병종에서 제 한몫을 단단히 하는데 유독 자기만이 보총 한자루밖에 걸친게 없는 보병이라나요. 하지만 전투의 승패는 언제나 땅에 발을 붙인 보병이 감당수행한다면서 승리한 날 학교에 돌아가면



진짜 보병출신답게 공부를 착실하니 하여 최우등생이 되겠다 으르치 않겠어요. 이 전쟁이 허영에 떠있던 자기를 땅에 말을 든듯히 붙이고 앞날의 희망을 바로 택할줄 아는 눈을 띄워주었다는 거예요.》

군실은 성갑이가 넘어갔다는 명마루를 바라보았다.

《박성갑이 그 친구 정말 보고싶은데. 소식을 자주 써보내지 않는다구 편지마다 불평이요.》

나는 군실의 군모와 어깨에 얹힌 위장망을 더듬으며 물었다.

《어느 전선으로 가요?》

《글쎄, 어쨌든 최전선으로 갈 판이지.》

《집에서는 무고들하시대요?》

《잘 있대요. 집이 폭격에 불타 탑동굴안에 반토굴집을 꾸리구 산다누만.》

《학교소식은?》

군실이는 숨돌릴사이 없이 련발하는 나의 물음에 미처 대답을 못하였다.

나는 차들을 모두 안전한곳에 대피시키고나자 군실이를 조용한데로 이끌고갔다. 길쪽으로는 항공감시초소가 굽어보이고 개바닥으로는 맑은 골계수가 구울며 흘러내리는 아늑한 골짜기였다. 우리는 양지쪽 산턱의 평평한 너럭바위우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군실이가 무릎에 기대여세운 중기관총총신을 보며 물었다.

《늘 이렇게 안고 다녀야 하는가요?》

《이젠 습관되었소. 잠시라도 놓으면 몸의 한쪽이 떨어져나가는것 같거든.》

나는 어쩌나 정히 다루며 씨땀났는지 기름대우를 낸듯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풀색총신을 쓸어 보다가 격발기틀에 또렷하니 찍힌 총번호에 눈길이 뒀었다.

《236! 정말 우리 학교 음악실 방번호와 똑같군요. 어쨌든.》

군실이는 두손을 찰싹소리가 나게 마주잡는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편지에도 썼던거요. 참 신통하거든. 이 중기소리가 동무의 피아노소리처럼 들리군하오.》

나는 기분이 한껏 유쾌해진 군실에게 물었다.

《<문바위골>에서 이 기관총이 큰몹을 했더군요.》

군실이는 나를 힐끗 스쳐보고 뇌이었다.

《그건 이 기관총의 금새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요.》

군실이는 말머리를 돌리려는듯 아름다리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청청한 숲을 이룬 산밭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샷갓모양의 삐죽삐죽한 봉우

리들이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오른 산령을 손짓했다.

《백담봉이구만. 저 봉우리가 모두 백개인데 그마루마다엔 못이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른대요.》

《가보았나요?》

《초급중학교때 금강산수학려행을 하다가 올라갔더랬소. 금강산의 한구역이거던. 못이 꽤나 큰것도 많은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매 급한 개천들이 북한강상류를 이루오. 전쟁이 끝나면 저기엔 어김없이 큰 수력발전소가 일떠설거요.》

나는 밀렸던 회포나 조용히 나누자 했는데 또 다시 발전소얘기부터 꺼내는바람에 눈을 흘기었다.

《또 전기타령이구만요. 자전거바퀴발전기를 지금도 배낭에 넣고 다니는게 아니예요?》

《허허, 그걸 아직 잊지 않았구만. 정말 그때엔 철이 없었지. 장난감같은 발전기 하나 만든걸 지구 대륙발전이나 한듯 벽작 떠들었으니 참.》

나 역시 《아무르강의 물결》을 타던 나를 고무풍선처럼 둥 뿔다고 하던 그의 말이 생각나서 웃으며 이죽거리었다.

《그러니까 적전강이나 장림천 발전소는 포기했다는건가요?》

《포기하다니?》

군실이는 머리를 성급히 가로저으며 쾌활하게 입을 열었다.

《옥경이도 알겠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과학자, 설계가들을 부르시여 전쟁이 끝난후의 복구건설과 전망건설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시였다는걸. 특히 평양시를 복구할 설계가 벌써 시작되었다누만. 웅장화려한 현대적대도시로 설계된다오.》

군실의 말마디들은 어쩌나 열렬하고 환희에 넘쳤던지 나도 곁따라 활기를 띄우게 하였다.

《며칠전에 이 길로 연구사집단과 조사대원들이 지나갔어요. 강원도내륙산악지대의 자원을 조사한다면서 군용자동차에다 여러가지 기구를 잔뜩 싣고 갔어요.》

《자원탐사를 군대가 협력한단말이지? 적의 상관을 호되게 쳐갈기며 진행되는 전망탐사! 얼마나 멋있소!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앞을 내다보시며 명도하시는 이 전쟁은 벌써 다 이겨놓은 거요. 서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탐사사업도 광범히 벌어지고있대요. 이제 이 땅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 재부로 일떠설거요.》

군실이는 가슴이 한껏 부풀도록 큰숨을 들이그으며 푸른 하늘가의 먼 공간을 바라보았다.

《전쟁이 승리한후에 더 배워야 하겠어. 모든것이 전변될 그날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이라는 거인의 어깨우에 빨리 올라서야 해.》

밝은 햇빛을 받아 무지개색갈의 도련을 두른 하얀 구름송이가 갈길을 재촉하듯 드바베 흘러갔다. 현란한 그 채운사이로 현대적수력발전소의 높은 언제가 나타나며 그우에 서있는 군실이가 비껴왔다. 한데 나는 왜 보이지 않을까? 어찌하여 군실이만 보이고 앞날의 음악가인 내 모습은 현상조차 되지 않을까.

무슨 말부터 했으면 좋을지 머뭇거릴 때 산판에 짜랑짜랑 메아리를 일으키며 출발나팔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눈물이 솟을만큼 안타까와서 군실이의 팔소매를 부여잡은채 끌리듯 일어섰다.

《편지하세요. 새로 바뀐 제 우편함번호를 모르시겠지요?》

《참, 부대를 옮겼는지? 적어줘야지.》

군실이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때 수첩장에서 종이에 쓴 알팍한것이 툭툭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급히 줏어드는 군실에게 물었다.

《뭐예요?》

《알아맞춰보우.》

《가족사진 아니예요?》

《아니.》

《바느질쌈지?》

《틀렸소.》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고급중학교 모표였다. 나는 일순 찢어진 감흥을 느꼈으나 짐짓 대범한 체하며 물었다.

《그건 뭇하러 갖고다녀요?》

《군복은 입어도 난 전쟁이 끝나면 학교에 들어가 졸업시험부터 쳐야 할 원산고급중학교 학생이라니까. 옥경이도 매한가지지.》

재촉하듯 나팔소리가 다시 류랑하게 울려왔다. 군실이는 다혈질의 열기가 감촉되는 두툼한 손으로 나의 손을 꼭 감싸잡았다.

《잘 있소.》

《잘 싸우세요!》

군실이는 길쪽으로 뛰어가다가 내게로 몸을 돌리고 한팔을 쳐들어 하늘을 가리키었다.

《항공을 조심하오. 객기 부리지 말구.》

그는 자기 대렬에 들어서자 들놀이나 가는듯 경쾌하니 걸음을 옮기었다. 산굽이를 돌아서던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던 그가 너무도 갑자기 흠 떠나버리니 마음이 허전해졌다. 하나 애써 밝은 웃음을 띄우며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높이 흔들며 배려주었다.

군실이가 백담령을 넘어 전선으로 나간 며칠후 우리 부대는 동해안으로 기동하여 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고사총중대는 바다에서 갈가마귀떼처럼 날아드는 적함재기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치열한 전투를 벌리었다.

우리 고사기관총이 류다르게 날치며 돌아가던 또 한대의 적 그라망날개를 꺾어 통쾌하니 바다 속에 처넣은 날 나는 군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기통수를 기다리었다.

언제나 정확한 제시간에 나타난 편대기통수는 나의 편지를 받기 앞서 웅근 한면을 가득 채운 큰 기사가 실린 《전선신문》을 안겨주었다.

《…X소속구분대 중기사수 조군실동무의 전투실기》

나는 굵직하니 찍힌 조군실이라는 이름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기는 했으나 그것이 설마 우리네 군실이라 생각하며 눈길을 신문에 모두었다. 다음 글줄들을 성급하니 쫓는 나의 가슴은 마치 깃을 치는 새가 감히운듯 날뛰기 시작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교차점에 놓인 902.4고지…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겠다고 이리떼처럼 덤벼드는 적들… 어제날의 원산고급중학교 학생이었던 중기관총 사수 조군실…》

아! 나의마음속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기관총 총체를 홀가분히 메고 백담령을 기운차게 넘어가던 군실이가 분명했다.

나는 날뛰는 가슴을 안고 급히 신문을 내리읽었다.

《…중기관총 사수 조군실동무는 다섯번째로 밀려드는 적들에게 방열통의 물이 설설 끓어번지도록 세찬 불벼락을 안기다가 바른팔과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군실이는 무너져내린 전호벽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조용하였다. 귀속에서는 다람쥐가 바스락거리는것 같기도 하고 베짦이의 울음소리같기도 한 가냘픈 잡음이 이따금 찌르르거릴 뿐 사위는 쥐죽은듯 피피하다. 목안이 지지는것처럼타들었다. 물이 있어야겠는데… 물! 물이 있어야 목도 추기고 달아오른 기관총도 식힐게 아닌가. 땅에 굳어붙은듯 천근이나 무거운 다리를 끌며 기었다. 얼마나 갔던가. 무수한 불씨가 비누거품같은 모양을 그리는 흐릿한 망막에 은백색비말을 휘뿌리며 떨어져내리는 한줄기 폭포가 비껴들었다. 물이다! 적천강상류의 락수굴 폭포가 그대로 옮겨왔는가. 얼음장같이 차고 씨원한 샘물이다. 몸이 허궁 동 떠오르며 날아가 물줄기에 얼굴을 묻고 마구 비비었다. 하나 그것은 폭포가 아니라 전호의 홍장에서 쏟아져내리는 한줄기 흙사태였다.

《뚜뚜뚜… 뚜루룩…》

군실이는 쿵북듯하는 총소리를 비집고 다가치게 울려오는 기관총소리에 혼수상태에서 눈을 번쩍 떴다. 방열통의 류별난 진동으로 하여 좀 둔탁하면서도 무게있는 귀에 폭 배인 자기 기관총

소리가 그를 기적같이 일으켜세웠다.

(내 중기다. 나의 236호다!)

몸을 벌떡 솟군 군실이는 자기대신 사격을 하던 부사수가 상체를 옆으로 꺾으며 쓰러지는것을 보았다. 군실이는 몸을 끌며 한치한치 기어서 좌지에 다달았다. 기관총이 걸려있는 흉장이 까마득 높게 쳐다보였으나 전호벽에 손톱끝을 박으며 뚫아올라 손잡이를 틀어잡았다.

숨을 죽이었던 기관총은 다시 세찬 불을 뿜었다. 앙칼진 휘파람소리를 내며 날아든 적탄이 압철을 누르던 성한 왼팔마저 꺾었다. 팔이 맥을 잃고 드리워지며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밀등을 잘리운듯 주저앉으려는 몸을 가까스로 부지하며 가슴으로 기관총을 붙안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혼수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방순너머로 굽어보이는 산언덕은 적의 그림자 하나 없이 조용했다. 산너머에서 술술 불어오는 훈훈한 봄바람이 자욱한 포연을 밀어내며 봄물이 싱싱하니 오른 가독나무와 짜리나무의 연록색이파리들을 선명하니 드러냈다. 말쑥하니 개인 파란 하늘에서 쟁글쟁글 내려비치는 해빛에 화염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이슬방울들이 구슬처럼 반짝이었다.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환희와 약동의 계절이다!

모든것이 온통 푸르고 싱싱하게 느껴지는 산언덕을 쓰다듬듯 더듬는 군실이는 바로 자기가 지켜선 산마루가 자기네 학교의 뒤산, 공부가 끝나면 동무들과 함께 뛰어올라가 소리치고 덩굴머 갖가지 꿈을 펼쳐가던 명석산으로 보이었다. 한때기의 풀밭, 나무 한대, 꽃 한포기에도 몸에 배인 감미로운 추억과 앞날의 언약, 미래의 희망이 스며있는 정다운곳이다.

봄의 훈향을 담은 산들바람이 어루만지는대로 춤추듯 하느적이는 푸른 숲사이로 번뜻하니 일떠선 적천강과 장림천 발전소의 진회색언체가 비껴드는가 하면 화려한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된 고향거리며 금파만경이 물결치는 풍년옥담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그속에 어머니와 함께 환하니 웃으며 서계시던 아버지가 짐짓 엄한 얼굴로 말했다.

《뭘 그렇게 정신없이 쳐다보느냐. 헛눈을 팔지 말구 앞을 살피라. 앞을!》

눈정기를 모아 앞을 지켜보았다. 아니 저건 또 뭔가? 비를 몰아오는 두터운 구름장갈기도 하고 정수리를 곤두세운 사나운 파도갈기도 한 검소한 담벽이 길게 늘어서서 천천히 움직여온다.

푸르게 빛나던 수목들이 독서리를 맞은듯 시꺼멓게 죽어들며 풀 한대 없는 살풍경한 황야가 펼쳐진다.

귀설은 웨침... 담벽이 아니라 고지를 기여오르

는 적의 산병선이었다.

《개새끼들! 어디 죽어봐라!》

군실이는 기관총을 틀어잡았다. 그러나 상한 두팔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놈들은 기미를 알아채고 제법 함성까지 지르며 미친듯 달아올라왔다. 오십미터... 삼십미터... 방순의 사각구멍으로 홍물스러운 상판대기들이 푹푹히 보이었다.

(안된다. 내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나가도 나의 심장이 뛰고 나의 중기 236호가 살아있는 한 여기엔 한놈도 올라서지 못한다!)

군실이는 증오와 분노로 푸들푸들 뛰는 상체를 솟구어 기관총에 얼굴을 바투 붙이었다. 그리고는 전신의 힘을 다 짜내어 턱으로 압철을 눌렀다. 손뿐아닌 온몸에 익은 기관총은 격노한 군실의 녀과 더불어 세찬 불을 뿜었다. 총구에서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는 피색갈의 불줄기가 좌지 코밑까지 다가든 적병무리를 삼대베듯 쓸어놓히었다. 뿔뿔뿔하는 심한 진동으로 턱이 부서져 밀려나는 듯했으나 이를 앓다물고 련속 명중탄을 퍼부었다. 사격권안의 모든것을 녹여낼듯 불이 펄펄 이는 군실이의 눈초리를 타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불벼락에 적병들은 썩은 담벽 넘어지듯 무리로 나뿔굴며 겹겹한 시체더미를 이루었다...

《...고지는 사수되었으나 조군실동무는 이 전투에서 꽃나이청춘을 바치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전우들은 군실이의 가슴앞 군복주머니에서 금빛 광택이 나는 고급중학교 모표를 찾아냈다. 머리우의 군모에서 빛을 뿌리던 조선인민군모표와 더불어 영웅의 품속에서 빛나던 학생모표,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번영무궁할 조국의 앞날과 하나로 잇닿은 찬란한 리상의 상징이었으니 조군실동무는 그것을 지켜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나는 군실이의 전투실기를 뜬금으로도 외울만큼 몇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그러느라니 기사글줄로는 다 표현 못했을 군실이의 모습, 최후의 순간 그의 눈앞에 떠오르고 생각하고 웨치던 모든것을 속속들이 감득하였다.

그날밤, 나는 군실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를 손에 천채 바다가를 거닐며 밤을 지새웠다.

침략자미제원썹을 죽이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이름떨친 영웅이 된 조군실동무, 벌써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휘황한 설계를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계시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며 걸음도 가벼이 전선으로 달려가던 군실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인 조국이 있어 창창한 미래와 찬란한 꿈도 있다는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리상으로 여기며 그것을 온몸이 총탄이 되고 방패가 되면서라도 지켜 빛내여야

한다는 고귀한 인생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절친하던 학우로만이 아닌 천만사람을 격동시킨 영웅으로서의 그가 존귀롭게 쳐다보일수록 뛰어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채 너무도 일찍 갔다는 슬픔이 가슴을 저미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지금 최후의 순간 그대로인 군실의 동상 앞에 서있다. 나는 말을 할 때면 능청스러운 웃음이 비껴흐르곤하던 군력이 질사한 억센 턱으로 중기의 압철을 눌러대는 모습을 승엄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얼마전 우리 예술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선동공연을 갔던 안변청년발전소 2계단건설장의 웅대한 전경이 떠올랐다. 전선으로 달려가던 군실이 승리한 날 발전소가 꼭 일떠설것이라고 하던 백담봉언저리의 산골짜기였다.

밤낮이 따로없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군인건설자들의 작업을 지휘하던 젊은 군관은 나와 이야기끝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조군실영웅을 잘 압니다.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온몸이 그대로 중기관총이 되고 총탄이 되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싸운 조군실영웅을 군인정신, 총폭탄정신의 귀감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무기를 영웅의 기관총처럼 여기고있고 그를 언제나 우리를 앞장서 이끄는 지휘관으로 생각하며 따릅니다.》

미더운 그 모습과 함께 전국도처의 건설장마다에 날리는 군인건설자들의 기폭속에 조군실의 얼굴이 살아오르는듯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군실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무는 청춘시절의 모습그대로 오늘에 사는

우리모두를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주고있어요. 바로 여기에 안변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속에 동무의 념원과 녀이 깃들어있어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한달 나의 상념속 환영이 아니라 이 땅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라는것이 절감되었다. 뒤이어 머리에 서리가 내린 풍채좋은 사람이 눈가까이 마주왔다.

멀지 않은 군의 기계공장에서 고문지배인으로 사업하는 박성갑이다. 학창시절 군실이의 딱친구였던 그는 며칠전에 만났던 나에게 말했다.

《...살아온 생애를 똑바로 돌아보는것은 그 삶을 다시 누리는데와 같다 할가. 군실동무와 함께 지내던 때를 돌이켜보느라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되새기게 되오. 구만리같은 앞길이 있어 굽이 많던 청춘시절의 그날처럼말이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군실동무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앞에 서있소.》

나는 박성갑의 그 말을 군실에게 전하듯 동상을 쓸어만지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군실동무야말로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자기의 고향도시에서 명멸하는 수만불빛을 한몸에 받으며 찬연한 빛을 뿌리는 군실의 동상을 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온 나라가 잊지 못하며 영웅으로 받드는 조군실동무는 오늘도 참다운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영원한 벼로 나의 곁에 굳건히 서있다고!

나는 조군실영웅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영웅의 동상앞에 밤이 깊도록 서있었다.

## 제힘을 믿자

황승명

간악한 원썬들의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우리의 투쟁과  
삶의 근본방식은 오직 하나  
자력갱생!

그것은 백두의 만년설을 붉게 물들이며  
투사들이 피로써 아로새긴 력사의 교훈  
56년의 그 준엄한 나날에

이 땅에 기적을 안아온 충신들이  
우리를 깨우친 생활의 진리

그렇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되거니  
언제나 제힘을 믿고  
만난을 뚫고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

## 삶의 좌표

현승남

### 1

3월26일공장 초급당비서 리영진을 만나려고 취재길에 오른것은 온 나라가 새해 당보, 군보의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북을 쿵쿵 울리던 정초 어느날이었다. 리영진당비서를 대신하여 몇달전까지 시당지도원으로 사업하다

새로 부비서로 부임되어왔다는 변동찬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좀 빨리 왔을걸 그랬습니다. 우리 당비서동문 전당당일군회의와 전국자력경쟁모범 일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며칠 먼저 떠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이 벌써 많은걸 생각하게했다. 그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저으기 뜨겁게 말했다.

《우리 비서동무에 대한 글을 쓰러 왔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어느사이 취재수첩을 펼쳐들었다.

《우리 초급당비서에 대해서 글을 쓰면 틀림없이 좋은 글이 될거란것입니다... 우선 리봉국동무를 만나보십시오. 그 동무는 우리 당비서동무와 십년이상을 같이 일해온 오랜 당일군입니다.》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새로 준비한 공장예술선전대의 공연준비를 보아주러 로동자문화회관으로 나갔다는 리봉국이였지만 지체없이 돌아서겠다는 대답이 왔다. 리영진 초급당비서를 취재한다는 말이 예술선전대원들한테도 것처럼 기쁜 일이라는데 확인했다.

리봉국은 변동찬보다 나이가 10년이나 우였지만 그 못지 않게 정력이 넘치고 쾌활하고 낙천적이었다. 말도 조용조용 류창하게 형상적으로 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작가선생은 우리 공장이 처음일텐데...》

역시 일할줄 알고 도와줄줄 아는 일군이였다.

우리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온 공장구내에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있었다. 올해에는 유난스레 눈이 많이도 내렸다. 정초의 설눈은 신심과 환희의 상징이라더니 마치도 사회주의강행군의 최후승리를 축복이라든 하는듯...

나는 몇걸음 못걸어 걸음을 멈추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어느 사적지에 온것이 아닌가싶을만큼 고요히 내려와 쌓이는 흰눈속에 숨엄히 자태를 드러내는 일매진 아스팔트포장길과 마당, 잔디밭...정원수들과 각이한 형태의 현대적건물들이 신통히도 하나의 큰 모형사판을 보는것처럼 눈앞

에 펼쳐지는데 그 중심부- 마당 한가운데 해빛처럼 밝은 미소 환히 담으시고 로동자들과 담화를 하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높이 모신 대형유화판이 가슴후덥게 안겨왔던것이다. 평평 쏟아지는 눈을 그대로 다 맞으시며 우리 로동계급들을 한품으로 뜨겁게 부르시는듯싶은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그 영상 - 그 유화판옆에는 수십미터폭의 화강석으로 다듬어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역시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정성들여 다듬어세운 수십미터높이의 영생탑이 지리잡고있었다.

뜻많은 눈길로 나를 일별한 리봉국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가선생, 우리 공장이 서기전에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돌각담과 속밭, 진펄, 물웅덩이... 그랬던곳에 수령님께서 주체47(1958)년 11월 몸소 여기에 나오시여 터전을 잡아주시였습니다. 저 현지교시판에도 있는것처럼 수령님께서 그후에도 다섯차례나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두차례나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부비서는 공장의 연혁을 간단히 개괄하고나서 문제의 요점을 짚듯이 인차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 당비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건 수령님의 이 영상작품과 현지교시판 그리고 저 영생탑을 다시 세운 일만으로도 잘 알수 있을겁니다. 4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받았을 때였지요. 그때 누구나 다 그랬지만 우리 비서동무는 정말이지... 가뜩이나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해말까지는 진짜 웃는 얼굴을 거의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지 손으로 심장우를 한번 쓸고나서 계속 이었다.

《다음해 설명절날이였습니다. 해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곤하던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대신 텔레비존으로 방영되는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접한 당비서동무는 종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다. 한데 다음다음날 상급당에 회의를 갔다온 우리 당비서동무는 갑자기 공장당 위원들과 직장장이상 간부들을 <비상소집>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한대목이라 날씨도 여간 차지 않았지요. 당비서동무는 우리모두를 데리고

곧장 바로 이자리로 나오는것이였습니다. <동무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준 친필서한에서 우리모두에게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라는 높은 영광과 신임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 너무도 도리를 못했

습니다.>... 그때 당비서동무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똑똑 떨어지는것 같았습니다. 원체 긴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인데다 가슴이 너무 쓰려서인지 당비서동무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정세는 상상할수 없이 긴장해지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가련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보다 몇배 더 준엄한 역경에 처할수도 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해야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날 우리 비서동무가 여기 이 구내중심부를 이렇듯 나무랄데없는 사적지처럼 꾸릴 안을 제기할 때에는 나무라도 어지간히 놀랐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대소환추위의 맵쌀 엄동에 당장 시작하자니 말입니다. 공사대상도 어지간해질 않았습니다. 수천립방의 언땅을 까내야 하는것은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 정양소, 로동자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여러동의 큰 건물들을 옮기거나 완전대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건물과 건물들을 련결시키는 난방관들과 배관, 각종 전기선들과 까벨선들만 처리하자고 해도 몇달은 걸려야 했습니다. 두말할것없이 생산은 생산대로와 짝 내밀면서 해야 하는 공사이고보면 빨라도 한해는 걸려야 할 대공사였지요. 어지간했으면 우리 당비서와 배짱도 맞고 손탁이 센 지배인도 한껏 단축해서 10월까지를 불렀겠습니까. <안됩니다!> 당비서동무는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우린 무조건 수령님 서거 한돛까지 끝내야 합니다. 한돛까지 완전무결하게... 목표는 7월 5일, 200일 동안입니다. 이제부터 200일전투의 총돌격전을 벌리자는걸 제기합니다. 이만합시다.> 전에는 어떤 회의에서나 꼭 의견을 들군했지만 그날만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열린 초급당확대위원회는 그렇게 결정을 지었지요.》

리봉국은 마당을 몇걸음 거닐었다. 연신직장의 압연기소리가 무엇인가 뜻많은 사연을 안은듯 지심을 쿵쿵 울렸다. 그는 점점 더 열기띤 목소리로 로력조직, 쫓기모임, 자체보장. 대외기관과의 련계,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짜고든 전투조직에 대해 요약하고나서 다시 당비서 리영진에게로 초점을 모았다.

《당비서동무는 종업원렬기모임도 여기 이자리에서 열도록 했습니다. 첫삽도 제가 먼저 뚫지요. 침실을 현장으로 옮긴건 말할것도 없구요. 지배인, 기사장... 안따라나설수 있습니까... 나도 어지간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따라 추위는 왜 그리 혹심했는지. 난 독감까지 걸렸습니다... 한테 한번은 시당에 갔다운 당비서동무가 곧바로 나한테로 옵니다. <부비서동무, 급히 토론할 문제가 있소.> 한마디하고는 자기 방으로 썩썩 걸어갔습니다. 난 가슴이 툭툭 뛰었습니다. 우리 당비서동무는 담배를 잘 안피우는데 아무 말없이 연거퍼 두대나 태울 때에는 얼굴이 다 해쓱해졌습니다. 한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있던 비서동무는 문득 이렇게 묻는것이었습니다. <오늘아침 방송보도를 들었소?> 난 비서동무를 똑바로 쳐다

보기만 했습니다. 비서동무는 또 한참이나 있더니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국것들이 점점 더 못되게 노는 모양이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즈음 계속 최고사령부작전조성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오... 참, 북창에서 소식이 왔소?> 나는 그 말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역시 묻는 뜻을 알수 없었거니와 북창에서 보장반기로 된 우리 공장 전선생산의 기본원료가 도착하질 않았던것입니다. 북창뿐아니라 남포, 남흥, 청수, 함흥에서 보장반아야 할 중요원료자재들도 소식이 감감했습니다. 정말 공장을 세우느냐마느냐가 눈앞을 다가오고있었지요.》

나는 고개 끄덕였다. 돌이켜보면 너무도 생생한, 절대로 잊을수가 없고 잊어서는 아니될 그때였으니 그것이 어찌 이 공장 하나의 사정뿐이었으랴. 리봉국의 말이 계속되었다.

《내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데 당비서동무의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보운병에서 더운물을 한고뿌 쏟아마신 비서동무는 급히 내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부비서동무,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대담하게 짓조거나갈걸 바라시고계시오. 부비서동무도 짐작하겠지만 우리앞에 부닥친 난관은 지금이 시초일수도 있소. 이런 때 우리 당일군들은 무엇을 생각해야겠소. 온 나라가 곁싸이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전투를 벌리고있는 이 엄동에 우리가 무엇때문에 수령님의 영광과 현지교시관을 더 정중히 모시는 사업부터 시작했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같은 말도 정황에 따라 그 진가가 달라진다는 말이 옳았습니다.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

사실 우리 당비서동무의 가슴에 이 불같은 사업이 설계되기 시작한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구호를 제시하신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사상, 장군님의 뜻, 장군님의 의지와 념원대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한사람같이 다 이끌어 올릴수 있을가... 자나깨나 그 생각만 짝 차있었던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작가선생, 총체적인 현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오직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에 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밖에 없다는것, 그러자면 명실공히 장군님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짝 차있게 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리영진당비서의 절대적인 좌우명이였다고 할수 있지요!》

나는 더이상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리영진비서가 그날 자기를 굳이 당비서실로 데리고간것은 잠시나마 자기한테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그렇게 불같이면서도 세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나는 리영진당비서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

다. 역시 계절도 준엄했고 시대도 준엄했었다. 정녕 이런 때 당일군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설계하고 어느 위치에 서야 했던가.

문득 나의 귀전에 지심을 울리는 기계의 동음이 들려왔다. 언땅을 파제끼는 굴착기와 불도젤의 거세찬 동음이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붉은 기발과 구호, 속보판들... 기계마저 힘이 진하면 어깨를 들이밀고 어깨의 힘으로도 모자라면 안해와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뛰쳐나와 등을 밀고 발을 고였을 이들이었으니 그 불굴의 인간들 속에는 귀여운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점심과를 슬며시 밥상밑에 내려놓고나온 아버지들도 있었을것이다. 이렇듯 깨끗하고 억세고 강의한 사람들속에는 언제나 리영진당비서와 같은 당일군들이 뛰어들어 불을 지피고 앞채를 메고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며 오늘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압연작업장에서 나와 대형연신작업장으로 가는 건물사이에는 이 공장 자력갱생기지로써 전국에 크게 알려진 동전해장이 있었다.

리봉국은 내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작가선생도 짐작하셨지만 현시기 우리 공장의 생명선은 자력갱생기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3~4년간 우리는 원료자재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선에 대한 국가적요구, 생활적요구가 떨어질수는 없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건설이 중단된것도 아니구요. 평양시만 보아도 금릉제2동굴, 금수산 기념궁전... 지방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건설들이 진행됐습니까. 안변청년발전소, 원산-금강산간 철도건설... 예, 옳습니다. 군대에도 더 많은 전선을 보내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해냈단말입니다. 우리 공장 계획과의 한 지도원 동무가 말하는데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3년동안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전선만도 지구둘레를 수백바퀴 둘러감고 남는다는것입니다.》

리봉국은 그 많은 량의 전선을 바로 공장자체로 건설한 저주파유도로를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들에서 얻어낸 원료자재들로써 다 생산보장했다고 긍지높이 말하고나서 계속 이었다.

《정말 지금 와서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실 말이지 우리 당비서동무가 오기전에는 그럴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수령님께서 전후 문제를 아껴가며 세워주신 나라의 귀중한 공장이지만 일군들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다나니 평양시안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제일 락후한 공장으로 소문이 났겠지요.》 동괴, 늬괴들이 대형, 중형, 소형연신기들을 통과하는 과정에 어떻게 수천수만메터의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전선들로 되는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세계적인 대형설비 생산기지를 방불케 하는 전력케블직장안의 3천톤 프레스를 비롯한 대형케블설비들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어찌나 기운차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야 더 써서 무엇하랴.

다만 한가지 오늘의 이 전변에는 무려 1만4천여건에 달하는 이 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 기술자, 전문가들의 기술혁신,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이후의 3년동안에만도 1천여건에 달하는 기술혁신 성과들이 구석구석 자욱자욱에 안배되어있다는것만을 특기하고싶다.

또하나 놀라운 수자가 있다. 나라형편이 어려운 때이건만 노동자들의 생활부터 책임적으로 잘 풀어주라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들어 최근 몇년동안에만도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종업원들에게 두칸이상 온수난방살림집들이 차례질수 있도록 한것은 물론 고급천연색 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용품들이 팔고루 다 들어갈수 있게 한 사실은 또 얼마나 경이적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허리를 펴게 됐다고, 대단하다고 그리고 만족해하셨다는 전력케블직장과 절연직장을 걸쳐 밖으로 나오니 어느사이 날이 저물어 구내에는 야외등이 밝게 켜졌다. 압연작업장에서는 여전히 지심을 울리는 기계의 동음이 메아리치고있었다. 불밝은 로동자문화회관에서 울리는 예술선대원들의 노래소리가 류다른 정서를 자아냈다.

리봉국도 신심에 넘쳐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우리 공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리영진당비서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뭐가. 이번 공동시설에도 명백히 밝힌것처럼 우리 일군들, 특히는 우리 당일군들이 먼저 자력갱생의 앞채를 메고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며 뛰게 되면 다 된다는겁니다. 없는것도 생기고 기계도 돌고... 하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방식이 아닐가요? 혁명적이며 실천적인 우리 식의 고유한 생활방식!》

## 2

다음날부터 나는 더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처음 찾아간 사람은 지배인 차정열이었다. 이 공장 기초공사때부터 일해오면서 기술부장을 걸쳐 리영진초급당비서가 오기 썩 전부터 지배인사업을 하는 오랜 일군이였다. 두해전에 룽십을 넘겼었지만 장대한 체구와 혈색이 불깃불깃한 얼굴로 하여 이름처럼 정열이 넘쳐보이는 그는 첫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않을 배짱과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내가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기다리기라도 했던듯이 마주앉았던 기사장, 행정부지배인들에게 어서 나가보라고 손짓을 했다. 고마왔다. 한편 리영진당비서와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발벗고나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쓰십시오. 우리 당비서동무에 대해 한번 잘 써보십시오... 부정인물로는 나를 쓰구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지배인을 왜 부정인물로 쓰겠습니까?》

그는 좀 숙연해있더니 인차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난 우리 당비서가 아니었다면 열두번도 더 이자리에서 물러났을것입니다. 당원증을 내놓을번한 일은 물론 법앞에 나섰던 일도 몇번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비서동무가 같이 책임을 지면서 나를 보증해주곤했지요.》

《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사이를 두었던 차정열지배인은 손으로 책상우를 쓸며 말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한두시간에야 다 이야길 하겠습니까. 한데 나라는 인간이란게 참... 우리 당비서동무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는지 않니까.》

...리영진 초급당비서가 3월26일공장에 오지 며칠 후 그의 방에서는 직장장이상 일꾼들이 다 참가한가운데 초급당확대위원회가 열렸다. 다음날 생산계획토의를 목적인것으로서 아직 실패료해를 못한 당비서보다는 지배인이 주인답게 주관을 해야 할 회의였다. 차정열은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기계적으로 쪽 내리읽었다. 그리고는 제자리에 눌러앉았다. 기침소리, 책장번지는 소리에 이어 무엇이라 수군수군하는 말소리와 함께 어느 구석에선가는 코고는 소리까지 났다. 차정열지배인은 속에서 시뻘겋게 단 동피같은것이 불뼉 일어섰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리영진당비서는 두손을 책상우에 모아엮은채 그린듯이 눈길을 떨구고있었다. 차정열은 땀이 났다. 점점 바늘방식에 얹은것같아 눈까지 감아버렸다.

리영진당비서가 종시 먼저 입을 열었다.

《연신직장장동무,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대바르고 무슨 일이나 정확한 연신직장장은 지배인부터 일별하였다. 찌르는듯한 눈빛에는 무엇인가 불만의 빛이 력연했다. 하지만 그는 인차 《없습니다.》 하고는 제자리에 앉아버렸다. 지배인이 저렇게 오불관언하는데 새로 온 당비서앞에 무슨 말을 하라 하는 표정이였다. 당비서는 이어 연신직장 부문당비서를 불러세웠다. 무엇인가 하고싶은 말은 있는게 분명했으나 그도 《없습니다.》 하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얼마쯤 사이를 두었던 리영진당비서는 이어 케블직장장과 절연직장장을 불러세웠다. 그들도 약속이나 한것처럼 같은 대답을 했다. 차정열의 입에서는 《흠!》 소리가 새어나왔다. 리영진당비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결정합시다... 끝으로 강조할것은 여기 모인 동무들은 다 당원들이며 공장의 핵심들이라는것입니다. 기계로 말하면 중심축인데 중심축이 놀면 기계전체가 흔들리고 온 공장이 흔들리게 된다는것입니다. 이 계획서가 절대로 빈종이장이 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계획서는 매일 여기에 놓여있을것입니다.》

리영진은 지배인앞에 있던 계획서를 자기 책상의 전화기옆에 정히 놓았다.

회의참가자들이 모두 돌아갔지만 차정열지배인

은 자리에서 일어날수가 없었다. 하고싶은 말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주저주저하다가 엉거주춤이 일어서는데 리영진당비서가 조용히 불렀다.

《지배인동무, 좀 앉았다가십시오.》

담배팩과 라이타를 꺼내들고 다가왔다. 담배에 대한 일화가 많지만 차정열은 그때처럼 담배한대가 많은 말을 대신해줄줄은 몰랐다. 점점 더 웅색스럽고 스스로 웅송해보여 화가 났다. 한데 리영진당비서의 말은 너무도 뜻밖이였다.

《지배인동무, 나이로 봐도 그렇고... 너무도 생소한 공장에 오고보니 난 그저 지배인동무를 믿고 일하는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인동무가 이제 어디 다른 우물을 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눈빛에 더 정확히 비친다는 말이있다. 차정열은 가슴이 찌르르했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목안에 걸리는것이 있어 대답을 못했다. 리영진당비서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배인동문 원래 그렇게 말을 안합니까?》

차정열은 주먹으로 제 무릎을 콕 내리찍으며 말했다.

《까짓거 오늘 씨원히 다 털어놓읍시다. 솔직히 말하면 비서동무, 짐승도 한번 빠진 구멍엔 다시 안빠진다는 말이 있지요?》

리영진당비서는 침착하게 받았다.

《그것이 어떤 구멍인가 하는것도 문제지요.》

차정열은 당비서를 흘끔 쳐다보았다. 이어 그의 결으로 바투 다가갔으며 말했다.

《글쎄 그건 비서동무의 말이 옳다고 합시다. 한데말입니다.》

그는 리영진이 오기전에 얼마동안 당비서사업을 대리로 맡아보던 한 당일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 성격들이 판이했지요. 한데 한번은 말입니다, 그도 비서동무처럼 우리 공장에 온지 얼마 안됐을 땐데 오늘같이 초급당확대위원회를 열고 전분기생산총화와 다음분기생산계획을 토의했지요. 그때는 나도 지금보다 더 썩썩한데다 뱀판도 못되게 사나웠습니다. 과장, 직장장들을 막 다불라댔지요. 하긴 좀 지나치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는지 않니까... 위원회가 끝나자 집행위원들만 남으라는거지요. 그리구는 날 냅다 죽치는데... 지배인은 당회의와 행정모임도 분간 못하는가, 당회의가 뭐 지배인독판치라는덴줄 아는가, 나중에는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릴줄 모르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내 성미에 참아냅니까... 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회의때마다 내소리인데 지배인 결함자료가 없으면 당생활총화보고서가 구성되지 않을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리영진당비서는 웃었다. 더이상 듣고싶지도 않은듯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알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적원칙은 언제나 정의이며 진리라는것입니다.》

차정열앞에 마주선 그는 엄숙해보이기까지 했



다.

《오늘 지배인동무앞에 명백히 말하고싶은건 지배인동무가 당적원칙에서 탈선만 안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것이라는것입니다. 단 한번도… 한데 우리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주신 현지교시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난 지배인동무가 이 원칙에서 단 한걸음도 탈선하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일생동안 내내 업고라도 다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인간 리영진을 믿으십시오.》

《자 이런!…》

이번에는 차정열지배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면 리영진동무, 이 차정열이 절을 한번 하리다.》

《절이요?》

《아, 우리 둘뿐인데 뭐라우. 내 절도 큰절을 한번 하리다.》

퍼그나 당황했던 리영진도 쾌활하게 받았다.

《그렇다면 지배인동무, 내 일생 절이라는걸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디 한번 받아봅시다. 그것도 이상사람의 큰절을 말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들은 손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것은 리영진 당비서가 이 공장에 와서 처음으로 날리는 큰소리의 웃음이였다…

차정열지배인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한지 가슴을 펴며 큰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녀방송원의 목소리가 창문을 쨍쨍 울리었다. 3대혁명붉은기공장관정을 앞두고 태양열온실과 버섯공장을 짓는데 그 건설장에서 울리는것이라고 했다.

3대혁명붉은기공장.

차정열지배인은 또한번 온몸에 힘을 부쩍 주고 나서 말했다.

《우리 당비서동무는 정말 지내볼수록 끌리고 가까이하고싶은 사람입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한번 만나도 정을 주고 속을 나누고싶어지는 사람이지요. 글썄 공장일군들을 다 나처럼 하나하나 일궈세우는데… 우리 당비서동무가 온지 한달쯤 지나서부터 어쨌는지 압니까. 전에는 얼굴도 내밀지않던 사람들이 문턱이 닳게 내 방으로 찾아오는데 과장, 직장장, 작업반장들은 물론이고 정양소, 유치원, 탁아소… 우리 공장 아빠도 인민반장까지 그저 나한테로 밀려드는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배인동지, 지배인동지>하던 말이 언제부터인지 <우리 지배인, 우리 지배인>하는데 정말 날개가 돋는것 같습니다. 난 원체 일욕심이 하늘갈다는 말을 듣던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거꾸로 지배인공정자료가 없으면 당회의 보고서가 구성되지않을것이라는 말이 돌았지요. 팔십로인도 칭찬해주면 좋아한다더니 진짜 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번 몸을 젖히며 웃었다. 소리내여 웃는 지배인의 눈에서 무엇인가 젖어나는것이 있었다. 그는 불바람날리던 로동의 첫시절을 추억케하는 마디가 툭툭 불거진 손가락으로 눈곱을 찍고나서 계속했다.

《아무리 부모앞이래도 갇는것이 있어야 도리일텐데… 난 항시 빛을 진 심정이였습니다. 한데 한번은 말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신 중요대상건설에 30여종의 전선을 무조건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장 생산량의 근 반년분과제를 두달동안에 보장해야하는 아름다운 과업이였지요. 진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최후돌격전에 들어섰지요. 이제 한 열흘만 와짜 내밀면 자랑차게 보고를 올릴판인데 어쨌는지 압니까.》

…신성천역에서 긴급연락이 왔다. 3월26일공장으로 오던 마지막원료를 실은 화차들이 뜻밖의 사고로 멈춰섰는데 빨라도 한주일전에는 출발을 못한다는것이였다. 공장안에는 때아니게 눈보라가 날리는것 같았다. 리영진당비서는 물론 공장의 후방부서취사원들까지 얼굴이 컴컴해졌다.

차정열지배인은 무작정 당비서한테로 뛰어갔다.

《비서동무, 내가 갔다오겠습니다.》

《지배인동무.》

《나한테 다른 말은 말아주. 이거야 비서동무가 지금까지 나한테 말없이 배워준거구 또 요구가 아니요.》

《고맙습니다. 지배인동무, 하지만…》

《글썄 다른 말은 마시라는데.》

마침 평양역에서는 신성천역쪽으로 가는 려객렬차가 출발을 앞두고있었다. 사고현장은 더욱 눈앞을 캄캄하게 했다. 차정열은 철도부에서 나온 정치일군부터 만났다. 그를 통하여 알게 된 일이지만 차정열이 기차를 타고오는 사이에 리영진비서는 전화를 걸어 정치사업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철도부일군들, 역일군들, 로동자, 군인, 인민반녀성들까지 모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차정열은 얼굴을 한번 쓸며 계속하였다.

《300여톤이 넘는 늪피를 몇시간동안에 말짱 다른 화차에 옮겨실었지요. 왕별이 없혀졌던 철도부일군의 어깨에까지 피가 내뻗것을 보았을 때 난 정말 그들을 와락 그러안고 울고싶었습니다. 한데 그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새로 편성된 화차가 금방 세 정거장을 왔는데 난 데없이 우리 공장 후방부지배인이 성큼 올라타는 것이였습니다. 무엇인가 한배낭 지구요. <당비서동무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는 배낭부터 풀었습니다. 두툼한 솜옷을 어깨에 씌워주더군요. 우리 비서동무가 겨울내 입군하던것이였습니다. 부지배인은 이어 목이 긴 술병을 꺼내들었다. <비서동진 지배인동문 틀림없이 화차에 올라앉아 올것이라면서… 지배인동무는 40프로이하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화차가 도착하면 첫 늪피는 비서동지가 제일선참 메겠다는걸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서 한고추 쪽 내십시오.> 초겨울이 박두한 때라 뼈속까지 얼어든것 같았지만 난 정말이지 마실수가 없었습니다. 마실수가…》

지배인실과 잇달린 대기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났다. 공동시설의 파업과 함께 이미 지난해에 착공을 선포한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건설장에 보내줄 전선생산을 토의하기 위해 긴급행정일군 협의회를 하게 된다는것이였다. 나라의 외아들공장… 새삼스럽게 어느 건설이든, 그것이 비록 저 북방산간오지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이나 한두채의 살림집건설이라고 해도 전화선, 조명용전기선에 이르기까지 다 이 공장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지만 당장은 자리를 내어주는수밖에 없었다.

《우리 당비서동무와 관련된 문제라면 어느때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구 누구든지 만나십시오.》

문밖까지 따라나오며 하는 지배인의 말이였다. 마음이 혼 혼했다.

우리는 저녁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3층계단을 내려서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름묻은 작업복차림의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 급히 내뒀을 따라왔다. 《저…》 하며 무례하달만큼 내앞을 막아선 그는 점점 더 바투 다가서며 말했다.

《…우리 당비서동지에 대해 쓴다면 나도 한가지 이야기할게 있습니다.》

어느 직장 누구냐고 물었으나 그는 그거야 상관있느냐는듯 어름어름 넘기였다.

마침 2층에는 조용한 홀이 있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그는 무엇인가 조심하듯 물었다.

《작가선생님, 처음 만난 사람들사이에는 오히려라는게 생기기 마련일가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주지요.》

《생활이겠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나서 좀 빠른 소리로 말했다.

《우리 공장에 고지식하고 대바르고 일단 흥분만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역시 그는 그가 어느 직장 누구라는것은 밝히려하지 않았다.

《한번은 말입니다…우리 당비서동무가 온지 한해후… 년간 초급당위원장사업 결산총회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한 일군으로부터 당비서동무의 뜻밖의 <결함자료>를 알게 됐습니다. 당일군의 품모는 물론 당조직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있는 문제였지요. 한데 회의과정에는 그 문제가 한마디도 언급되질 않았습니니다. 회의결속을 앞두고 주석단에서 의견을 물을 때에야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저도 모르게 와썹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가. 아참,

작가선생, 거 어느 영화인가 비관회의장에서 <홍부위원장동무!>하고 갑작스레 큰 소릴 쳐서 옆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신통히 꼭 그랬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 열어놓았다. 맑고 시원한 대동강바람이 폐부를 찔리게 식혀주었다. 그 사람은 가슴한껏 큰숨을 몰아쉬고나서 계속하였다.

《문제가 초급당비서의 문제인데 무사히 넘길수 있습니까. 상급당에서 근 열흘가까이 구체적인 료해사업이 있었습니다. 료해사업과정에는 그 사람은 그 자료가 어느 한 일군의 개인감정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것이였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될터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죽고싶은 심정이였다. 당장 공장을 떠나야겠지만 어디 가고싶은데도 없었다. 더우기 그는 고급기능공에 한 직장의 당사업을 책임진 당초급일군이였다. 당비서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체중이 폭폭 주는것 같았다.

몇년후 2중3대혁명붉은기직장청호수여식이 끝나자바람으로 그는 더는 참을수가 없어 리영진당비서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후둘후둘 떨리는 손으로 방금전 리영진당비서가 앞가슴에 달아주었던 로력훈장을 떼어 책상우에 내려놓았다.

《비서동지, 날 내쫓든지 량단간에 결판을 내주십시오.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습니다.》

리영진당비서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 여유있게 그 사람과 마주앉았다.

《그 훈장은 집어넣소.》

목소리도 침착하고 위엄있었다.

《그 훈장은 동무의 공로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한테 돌려주시는 배려란 말이요. 그 훈장이 뭐 이 리영진이 제 마음대로 집어주고싶으면 쥐여주는 죄불인줄 아는가!》

속이 뜨끔했다. 리영진은 더 엄하게 말했다.

《내 동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자는지 아오… 명백히 말할건 우린 당원이라는거요.》

붉은 당원증을 이 심장우에 얹은 당원! … 동문 이미전부터 어디 다른곳으로 갈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데 그건 좋을대로 하오. 허나 한가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파업을 한건도 미진된것이 없이 다 관철하기전에는 절대로 이 공장을 떠날수 없소. 단 한발자국도…알겠소?》

《…》

《알겠는가?》

《비서동지!》

그 사람은 그만 책상우에 얼굴을 묻으면서 오열을 터뜨렸다. …

창문을 등지고선 그 사람은 숨결이 높아졌다. 열풍과도 같은 뜨거운것이 내 얼굴에까지 미쳤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해별이 유난스러웠다.

얼마간 사이를 두었던 그 사람은 저으기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당비서동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누구한테나 잊지 못할 사연으로 련결됐다고 할지… 참 우리 공장 로병작업반을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로병작업반이요?》

금시초문이었다.

《예, 우리 당비서동지가 조직한 작업반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직된 작업반이라고 합니다. 이전 기사장, 과장들, 로력영웅… 한마디로 우리 공장과 일생을 같이해온 일꾼들과 공로자들이 다 모인 작업반이지요.》

마음이 확 끝렸다. 이야말로 뜻밖의 횡재가 아닐가?

우리는 행정청사앞에서 헤어졌다.

로병작업반은 공장 후방부서들과 후생시설들이 들어앉은 비교적 조용한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실 때마다 언제나 곁에 가까이 세워주곤하셨다는 이전 기사장이며 직장장, 자재과장, 창고고안명수들… 나는 역시 그들 한사람한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더 쓰지 않는다. 한 일꾼과 그 가족의 장래를 위하여 3년동안이나 온 나라 곳곳으로 당위원회일꾼들을 보내고 또 보냈다는 이야기며 한 녀성연구사의 성공을 위하여 당비서자신이 직접 대학교재를 자습으로 통달했다는 이야기… 새길수록 가슴 후덥고 들을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하많은 이야기중에 나는 다만 로병작업반원들과 함께 보낸 일주일간의 마지막날 공장의 로동과장으로 30여년을 일해왔다는 최문옥이 들려준 말만을 한마디 더 인용한다.

《공장안에 로병작업반을 내오던 날 우리 비서동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동법규대로 하면 동무들은 이제는 편안히 집에 들어가앉아 여생을 보낼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나는 동무들을 공장에서 내보낼수 없다, 왜냐하면 동무들의 일생이자 이 공장이며 더우기는 동무들모두가 바로 이 공장에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몇차례씩 만나뵈웠기때문이다, 이 공장 어느 시대, 어느 설비마다 동무들의 손때묻지 않은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동무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 공장 종업원명단에 이름이 그대로 올라있으면 그것이우리에게는 힘이 될것이다, 물론 동무들한테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을것이다, 그저 당적량심, 공민적량심이 가리키는대로 당비서의 눈이 되고 지배인의 귀가 되어 타이틀것은 타이르고 깨우쳐줄것은 깨우쳐주면 되겠다… 하는것이였습니다. 모두 울었지요, 울었습니다. 그리구는 앞을 다투어 당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동무, 정말 고맙습니다. 초급당비서동무! … 하고 말입니다.》

### 3

공장안에서의 취재를 기본적으로 끝내가던 어느날 나는 문화회관관장 최충근과 마주앉았다.

개성지방특유의 따뜻하고 친근한 말씨를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그는 역시 이 공장터전에 첫말뚝을 박을 때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1세대종업원이었다. 젊은 한시절에는 문학에 뜻을 두고 작품도 몇편냈다는 그는 사근사근하면서 작가의 창작에 필요하게 당비서의 개성적특징을 잘 이야기해주었다.

《당비서동무가 우리 공장에 온건 작가선생도 이미 들었겠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의 교시를 주신지 얼마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시안의 큰공장 당위원회에서 부비서사업을 하했기때문에 우리 공장형편을 대체로 알고있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도 인간인데 해마다 일을 잘 해서 높은 평가를 받곤하던 공장에서 일하다 우리 공장에 오게 됐으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새 당비서가 오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도 처음 한동안은 무척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아, 좋은 당일꾼이구나 하고 마음이 확 끌린것은 우리 비서동무가 온지 한달쯤 되여 쉽니다. 그날 좀 늦어서야 사업보고를 하려 비서동무를 찾아갔는데 당비서동무는 캄캄한 방에 불도 켜지 않은채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불을 켜려하자 비서동무는 《켜지 마오. 거기 좀 앉소.》하지 않겠습니까… 비서동문 한참 더 잠자고 있다가 불쑥 이렇게 묻는것이였습니다. <최충근 동문 군대에서 입당을 했구 또 이 공장 착공당초에 여기서 자원하여 제대배낭을 풀었다는데 어디 말좀 해보오… 수령님께서 여섯차례, 우리 장군님께서 또 두차례나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에는 없는것이 없소. 원료문제와 기대관리, 로력조직, 주택문제, 출퇴근과 후방사업… 공장울타리와 정문공사에 대해서까지 다 가르쳐주셨단말이요. 그대로만 하면 됐을텐데 나라의 귀중한 공장이라고 말들은 곧잘하면서 공장을 왜 이렇게 만들었소? 어째서 공장울타리 하나 제대로 못치고 청소하나 제대로 못해서 눈석이물이 널려져있는 구내길에 우리 수령님을 감히 모셨댔는가 말이요?>… 난 가슴이 얼어드는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정통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최충근관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 이어 그는 그 말은 피하련듯 인차 말머리를 돌려버렸다.

《참, 우리 비서동무한테는 유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출근때면 꼭꼭 종이 한장을 접어 가지고나와 책상배람에 가만히 넣곤하는데 어떤 날에는 무슨 수자들을 적어가지고 나오고 또 어떤날에는 자기만이 아는 략자들을 몇자씩 써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하면 밤사이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한 일감들입니다. 언제인가 비서동무의 집에 가서야 알게 됐는데 비서동무의 침대머리맡에는 아무때나 손만 내밀면 칠수 있게끔 종지와 원주필이 준비되어있었습니다. 비서동

무의 말이 자기는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고 눈까지 꼭 감았을 때 제일 생각이 잘 떠오르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화종이 올랐다. 최충근관장은 지금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중이니 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랑해를 보내고나서 계속하였다.

《그 종이장의 수자 하나, 글자 하나가 어떤 때는 기술과와 새기술발전실 일군들의 무릎을 치게도 하고 한달 두달... 웅근 한해를 벌려야 할 대공사의 설계도를 만들게도 합니다. 한데 우리 비서동무는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 견해를 먼저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술쩍 튀겨만 놓고는 멀찌감치 물러서곤하는데... 사실 우리 당 비서동무가 한마디 튀길 때에는 그의 머리속에는 그 결과와 총화사업까지 말짱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당비서가 압연기앞에 나타나면 제품창고앞에는 벌써 수십대의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줄을 선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하루도 <버럭질>을 하지 않고는 못견디는 사람, 일단 결심을 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일군... 작가선생이 과장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서동무는 아직 자기가 결심하고 종업원들앞에 선포한것을 단 하나도 미진한것이 없습니다.... 하긴 그러자니 누구보다 속을 태우고 머리를 써야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작가선생, 우리 공장사람들이 <우리 당비서>, <우리 공장>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무심히 듣지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삼스레 변동찬을 만났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공지에 넘쳐 하곤 하던 그 말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이제는 리영진당비서- 당자를 직접 만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했다. 별로 인상적인 특징이 없다는, 굳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 침착하게 조용조용히 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머리를 자주 빗고 속이 언짢을 때에는 가만히 눈을 감곤 한다는 그의 어떤 비결이 수천명 종업원들이 <우리 당비서>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나서게 하는것일까, 아니 과연 어떤 힘이 있어 평양시안은 물론 전국적으로 락후하기로 소문이 났던 공장을 그것도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때에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으로 일신을 시켰을가?

마침 모두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던 전당당일군회의와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가 끝나서 리영진당비서가 공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왔다. 인민대학습당에서 필요한 문헌자료들을 취재하던 나는 급기야 공장으로 달려갔다. 누구보다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은 역시 리봉국이였다. 나는 곧 그의 안내를 받으며 리영진초급당비서실로 들어갔다. 겸소한 방이였다. 당비서들의 방이라 하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량수책상과 앞상, 쏘파 한개와 두세개의 서류함 그리고 벽밀으

로 주련이 놓은 보통의자들이 방안의 전부였다. 《충효일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두개의 족자가 유난히 눈에 띄였다. 그 수수한 방의 수수한 책상앞에 두툼한 솜옷을 어깨에 걸친, 진짜 특별한 인상이라고는 나타나지 않는 수수한 한 일군이 단정히 앉아 무슨 문건을 보고있었다. 솔직한 말로 나는 첫순간에 저 사람이 정녕 온 공장이 그렇게 자랑하며 따르는,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은 평가를 주신 그 당비서가 옳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내앞에 마주와앉으며 말했다.

《한데 내가 도움을 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뭐 한게 있습니까.》 했거나 《당에서 다 내세워주었기때문이지요.》 하는 식의 말을 했다면 웃어버리고말았을것이다.

진심에는 진심만이 통하는 법이다.

이번 대회소식을 몇마디 묻고난 나는 내가 가장 알고싶었던 문제를 직방으로 던졌다. 힘겹게 물은 말이였건만 그는 별로 깊이 생각할것도 없는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비결이라... 뭐 비결이라고까지야 하겠냐만 나한테는 몇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진심을 주라, 주되 받기전에 먼저 주라, 무조건 공정하라... 그러구 특히 나자신을 각성시키곤하는것은 이 리영진이는 제일 못살던 집안의 농사군자식이다 하는것입니다.》 《농사군이요?》

《예. 당일군치고 누군들 그런 지론과 경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살말이지 난 열네살에야 처음으로 기차를 구경할수 있었던 저 평북도 창성군 락성리 산골 태생입니다. 아버지는 늘 집떠나 살고 어머니는 장창 산후탈로 앓고 하여 4남매의 맏이인 내가 집안살림을 다 맡아해야 했지요. ... 오죽 베짖으면 평양에 나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옷을 주는 학교부터 찾아다녔겠습니까.》 《예-》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고는 서평양철도공장에 배치를 받았는데 공부를 잘했다고 기술과 사무원으로 대뜸 등용을 했습니다. 한달이나 뻥쳤지요. 내가 무슨 사무원을 하겠는가, 무명잡병이 산골놈을 평양에서 살게 해준것만도 과남하니 제일 힘든데 보내달라 하고 폐질을 했더니 한달만에 제관공을 시켜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영진당비서는 계속하여 현장 로당원들의 적극적인 보증으로 스물세살에 입당을 하던 이야기와 김일성고급당학교를 걸쳐 당위원회 지도원, 비서의 중임까지 지니게 되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

나는 번쩍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농사군의 자식, 제관공!

새해 첫 강행군의 돌파구를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건설장으로 보내줄 전선생산전투로 열어제긴다더니 드디어 강행군의 포성인양 연신직장의 압연기가 지심을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마감단계에 들어선 태양열온실건설장의 방송차에서 울리는 낮익은 방송원의 목소리도 전에없이 더 힘차 보였다. 리영진초급당비서는 철의 웨침과도 같은 그 동음에 귀를 기울이는듯싶더니 다시금 내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왜 별로 자랑할것도 못되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작가선생, 나는 아직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난 아버지수령님을 직접 몸가까이 모셔보지도 못했고 우리 장군님결에도 아직 가까이 서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영광을 지닌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공장만 봐도 어떤지 압니까. 40대이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버지수령님을 몇차례씩 만나뵈웠고 두번 세번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아안은 귀중한 로동계급들이란 말입니다.》

그의 눈에서 감출수 없는 빛이 번쩍했다. 천성이 조용하고 침착한 그였지만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직해야 할 로동계급들이지요. 이런 공장의 당비서라고 할 때 작가선생, 그레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있습니까... 하다면 당비서로서 첫째로 해야 할게 뭐겠습니까. 내 당비서수십년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건 우리 공장 한사람 한사람을 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자기들의 기대앞에 직접 모셨던 그날의 행복, 그날의 감격에서 살게 하자는것이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감정, 길을 걸어도 그 흥분,... 비록 며칠간 출장지에 나가있어도 자기 위치는 항상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셨던 그 기대앞이라는것, 그 기대앞에서 받아안은 파업들을 관철하기전에는 말그대로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을 체질화하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자등받이로 몸을 쫓았다. 어떻게 되어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맞은 피눈물의 그 첫째 정월달, 레년에 없는 강추위속에서도 수령님의 현지교시관과 대형영상작품부터 더잘 모실 방대한 공사부터 작전하게 되었던가를 이야기하던 리봉국의 말이 귀전을 뜨겁게 울렸다.

리영진당비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생 가슴깊이 응축해두었던 그 무엇인가를 비로소 다 쏟아놓기라도 하련듯 큰숨을 한번 들이쉬고 나서 계속하였다.

《다시말해서 작가선생, 우리 공장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삶의 시작도 끝도 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제일 가까운곳으로 되게 하는게 첫째

파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선을 한메터 뽑아도 기대를 한번 닦고 구내길을 한번 쓸고 벽에 회칠을 한번 해도 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켜보고계시는 그앞이다 하는 자각을 항시 잊지 않도록 하는것말입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중요했는가... 나 자신이, 이 당비서자신이 먼저 그 위치에 확고히 서는것이였습니다. 내 한생의 목표랄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삶의 좌표라 할가... 하여튼 내 자신이 먼저 수령님앞에 장군님앞에 제일 가까워서야 한다고 생각했단말입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압연기의 동음이 지심을 울리고 방송차의 선동소리가 구내에 찼찼 메아리쳤다. 리영진당비서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했다. 우리는 먼지 하나 앓을세라 깨끗이 닦은 앞상을 사이두고 서로 오고갔다. 나는 그다음 리영진비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 어떻게 그의 방에서 나왔는지도 몰랐다.

어느사이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있었다. 며칠전에 내린 눈이 별스레 더 희고 그 눈우에 쏟아지는 석양도 유난히 더 사연깊게 느껴졌다.

방금전 리영진당비서가 하던 말중에 마지막으로 하던 말이 다시금 가슴을 두드렸다.

《내 인생도 이제는 룩십이 눈앞입니다. 신임도 컸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한 일은 너무도 적습니다. 내 이제 마지막 목표랄가 기어코 해놓아야겠다고 다짐한 결심이 있는데 뭔가하니...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장자체의 원료해결책을 더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무엇인가 더 대답하고 웅대한것을 구상하시다가... 그러자면 전선이 이만큼 필요하겠는데 하고 걱정하실때 <장군님, 그 전선이 여기 다 있습니다.>하고 제격 말씀드릴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나는 건넌 길을 돌아섰다.

옳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 ...

한생 자기자신을 제일 못살던 집 자식, 성스러운 로동의 첫자욱을 떠던 제관공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 자세, 그가 비록 공장문화회관의 연단에 뛰어올라 토론 한번 못해본 연신공, 열관리공, 운전사일지라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당원들이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이 나라 로동계급들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 자기자신보다 더 아끼고 귀히 여겨주며 저자신도 미처 몰랐던 아득한 구석구석까지 다 헤아려 영생의 좌표로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진정에 제 스스로 량심의 채찍을 들고 따라나선 이 공장 당원들과 종업원들이니 사람들이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과 긍지, 신심에 넘쳐 주고받는 《우리 당비서》라는 말을 다시한번 새겨들으시라.

## 《우리 딸》

강성일

호텔 신문매대에서 조간지를 사든 원래는 중앙홀 쏘파에 몸을 던지고 올림픽보도를 읽고있었다. 신문의 매면마다 통쾌한 득점장면들과 인기있는 체육명수들의 사진이 표현의 생동성을 노린 격렬한 어구들과 자극적인 활자들을 내세워 저저마다 날 봐판듯이 소리치고있었다. 이번 애틀란타 올림픽은 지금 성황중이어서 요즘 신문들은 유명 무명선수들의 특기동작과 새라새로운 기록들을 전하는 류례없는 특보들로 가득차있다. 수영종목에서 인기를 끈 오스트랄리아녀자수영선수의 아름다운 전신을 찍은 사진을 보며 원래는 독일에 두고온 딸애를 생각했다.

(어제 순희가 전화루 이 호주처녀의 수영복과 꼭같은걸 하나 사달라구 했지.)

늦게 장가를 가서 딸자식 하나를 본 원래의 딸에 대한 애정은 피이쩍을 정도로 지극한것이어서 주위사람들은 물론 처한테서까지 비난을 사군했다. 제어머니만큼 큰 딸애를 경태앞에 세워놓고 머리뿔을 꽂아주는가 하면 아침저녁으로 즐겨 딸애의 옷시중까지 들군하는 그였다. 그래서 애치가라는 소리도 듣는 원래이지만 그 처한테서는 《변태적인 부성애》로 물리우는터였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온날부터 딸애의 선물만 고르고있었다.

《저, 계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히죽이 웃으며 안경을 세는것을 보니 전부터 면식이 있는 《동아일보》기자 민학길이다. 체육전문담당이니 이번 올림픽보도때문에 미국에 온 모양이다.

《민군! 정말 오래간만일세. 올림픽덕분에 만나누만.》

원래는 반색하며 학길의 손을 덥석 잡아 옆자리에 앉혔다. 학길이도 반가와 어쩔줄 모르며 안부를 묻고나서 메고있던 사진기로 몇장 찍었다.

《그래 미국에 오래 계시겠습니까.》

《이젠 불만한것들은 다 보았으니 갈 준비나 해야지, 더우기 모래는 우리 딸애 생일이어서 래일은 떠나야겠네.》

원래는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애를 데리고 오시지. 계선생은 워낙 따님에 대해선 끔찍하시겠지요. 이젠 많이 컸겠습니까.》

학길은 15년전 독일에서 류학할 때 원래로부터

1년간 태권도수강을 받은적이 있어 언제나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고있었다. 원래 역시 일찌기 학생시절 도서관에서 일문판도서를 보다가 11차 베를린올림픽 마라손선수권보유자를 일본인이라고 기록한 페이지를 보자 격분하여 와락 찢어서 설음절반, 위협절반의 향의문과 함께 출판사로 보낸 적이 있다는 이 결괏있는 사나이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주군했다.

《여보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오늘저녁엔...》

갑자기 현관문쪽에서 나는 떠들썩한 소리에 원래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일본선수들이 저희 말로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들어섰다.

원래는 골살을 찌프렸다. 과거 일제시대에 살아온 사람은거개 그러하듯 원래도 일본 하면 반사적으로 혐오를 느끼는 사람이다. 그것은 일제경찰의 악착한 고문에 시신경마비로 소경이 된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류랑하던 어린시절의 비참한 체험에서 골수에 사무친것이다. 할아버지의 죄명은 동리아이들에게 《동국사략》을 가르친것이였다. 소학교에서도 조선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벤조소지》(변소청소)를 당하던 그 시절 칙명으로 엄금된 조선력사를 가르쳤으니...

왜놈순사의 무지스러운 격검채에 두눈이 튀어나오도록 뒤통수를 얻어맞은 할아버지의 원한은 그의 어린 가슴에 천추에 못지않을 배일감정을 새겨놓았다. 유년시절에 체질화된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독일공민으로 되어 교포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태권도고단자로서의 유족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

홀 저켠에 몰켜 이야기하던 일본관광객들이 옥밀려와 박수를 짜락짜락 치며 법석거렸다.

《저건 또 어째서 저러나.》

술한 일본사람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왁작 떠든다. 벚꽃무늬가 화려한 알로하샤쓰를 입은 뽕뽕보가 사진기를 들고 육중한 몸을 피뽕째 구부러가며 양각의 촬영각도를 취하느라 무등 애쓰는데 커터샤쓰를 입은 청년은 자기의 샤쓰자락에 수표를 받겠다고 부산을 피웠다.

《아, 료표양이군요.》

《료표가 누구계?》

《모르십니까? 다무라 료표, 일본유술계의 별입니다. 승패가 자주 엇걸리는 일본유술계에서 저 처녀가 불쑥 나타나 4년째 세계선수권을 보유하고있어요. 맹렬하고 맵시난 공격이 특징인

데...》

《그래? 흠... 사무라이냄새가 나는데. 닷즈께를 입히고 닷뿐도만 쥐여주면 낙자없는 무사로군.》

원태는 별챌다는듯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재편 스포츠>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선수들이 모든 종목에서 전패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우승할 최후의 유일한 선수가 바로 저 료표양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보로 취급되고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학길은 큰 비밀이나 대주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조선선수가 저 료표와 맞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원태가 학길이쪽으로 호기심어린 눈길을 돌렸다.

《그 북조선선수 이름이 계순희인데...》

《뭐야?》

원태는 눈을 동그렇게 뜨며 거울진 몸을 등반이에서 땀다.

《왜 그리 놀라십니까.》

《하, 신통하다구야. 우리 딸애하고 성명이 꼭 같군그래.》

《아, 그래서... 그런데 비극은 무언가.》

《비극이라니.》

《이 16살난 소녀가...》

《뭐 16살이야?》

《선생님도 기가 막힙니까?》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신통하군. 우리 딸애도 16살인데.》

학길은 원태의 이 동문서답격의 답변에 입귀를 실그러뜨렸다.

《민군, 험데 그 비극이란건 뭐가.》

원태는 료표의 일행을 사진찍으려는 학길을 제지시키면서 물었다.

《북에서 온 선수들이 몇명 없는데 이 계선수는 아직 중학생이고 국제경기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런데 운수가 좋아 올림픽무대에서 데뷔(첫 출연)를 하게 된겁니다. 다행히도 경기실적은 꽤 높아서 결승에도 올라갈수 있지요.》

《그게 비극이라?》

《이제 료표와 맞서게 되면 단번에 꺾이지겠는데 료표의 인기나 바싹 올려주는 돌리리역밖에...》

《이길수도 있지 않는가.》

원태가 통명스레 말했다.

《예? 누구를 말입니까. 료표를 말입니까?》

학길은 도리질했다.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지요. 료표는 유술계의

너왕입니다.》

원태는 학길이쪽으로 돌아앉아 선언하듯이 말했다.

《북의 사람들은 기질이 있지.》

학길은 입을 비죽이 내밀더니 고개를 가로 저었다.

《지금 그들은 가까스로 마지막호흡을 하고있습니다. <국제공조체제>하의 다년간의 봉쇄, 경제적인난관, 겹치는 재해, 그야말로 삼재팔난속에서 허덕이고있지요. 오죽했으면 겨우 그러모은 몇명 안되는 선수단에 중학교아이를 다 넣어보냈겠습니까.》

《그만두게. 난 동족을 시비증상하는 그런자들을 좋아하지 않네.》

원태가 모서리가 예리하게 날이 선 두손을 꼭 마주쥐는것을 본 학길은 기가 죽었다. 이것은 그가 분을 참을 때 하는 습관이다. 독일경찰당국에 《필살의 주먹》으로 등록된 그 손이 수건에 이 지관수를 먹여 쌍구멍을 뚫어놓는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바가 있었다.

학길이가 조심히 마른 기침을 하는데 마침 울긋불긋한 체육복을 입은 왈패같은 사나이들 한무리가 들썩거리며 지나가다가 학길을 보자 웃으며 두손가락을 벌려 V 자를 그려보였다.

《남쪽선수들인가?》

원태가 묻자 학길은 얼굴에 다시 화색을 띠우며 대답했다.

《예, 끝끝하지요? 서울에서 온 유술선수들이니다.》

원태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왔군.》

《이번 올림픽에 우리 이남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나르는데 비행기가 모두 몇대 동원된지 아십니까.》

분위기를 녹잡히려고 말을 돌린것이 원태를 또 끝나게 했다.

《털도 없으며 복실복실한체한다더니, 노루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텐가. 자네 마치 세살먹은 아이 제하내비네 집에 온것처럼 우쭐렁거리는군.》

학길은 원태가 상스럽게 욕하자 불쾌한듯 잠차코 있었다. 그러다가 원태의 눈길이 가뻐은 료표양식의 아치기동열 벽면에 걸려있는 달리의 그림 《십자가형》을 가리키며 또 입을 일었다.

《살바도르 달리의 천재가 낳은 걸작이지요. 그는 초현실파회화의 거장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적인 원근화법과 색채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생동하는 현실세계로부터 고차원적인 사유의 경지로 몰입케 하는 신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태는 십자가형틀에 못박힌 예수를 쳐다보는

로마식차림의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황혼색조의 그림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나 가혹한 형벌을 받는 수난자를 쳐다보는 소녀의 눈에 비낀것이 공포인지, 존경인지 또 의심인지 분명치 않았다.

《자네 저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나.》

《로마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책형이야말로 노예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구… 또…》

《말해보게.》

《저… 지금 저 소녀의 모습에서 북조선소녀의 모습이 련상됩니다. 그가 이제 경기에서 패한 다음에 일생동안 지고다닐 그 무서운 십자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쪽 사람들은 무섭게 이데올로기, 체제위주여서 적대국가선수들에게 지게 되는 경우 그 처벌이…》

《민군!》

원태의 무게있는 목소리가 그의 말을 중동무이 했다.

《내 이야기를 좀 듣게. 내 어릴적에 본 책들중에 <홍부전>이 아주 재미있었는데 홍부보다 놀부의 성격이 더 인상적이더군. 사람들은 누구나 5장6부를 갖고있는데 놀부는 간옆에 심술부리는것이 하나 더 붙어 5장 7부라나. 어찌나 심보가 교약한지 하는것이란 패는 곡식 이삭뽑기, 상가집에서 춤추기, 이쁜 아씨의 허벅살 꼬집기, 곱사등이 등차주기… 사나운 심술이 잔뜩 내배인 입술은 어찌나 두터운지 썰어놓으면 뭐 한되박이나 된대.》

학길은 원태의 엄한 눈길에 질려 손바닥으로 얼굴만 문댔다.

《심보가 교약해. 영삼이와 꼭 같애.》

그러자 학길은 펄쩍 뿜다.

《무슨 말씀을, 그 량반하고 같다니요 원.》

《그래, 자네 료교와 순희가 붙으면 누굴 응원하겠나?》

원태가 학길을 똑바로 마주본다.

《선생님,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송무백열이라고 동포인데… 그가 이기면 난 절이라도…》

학길의 섭섭한 어조이다.

《이보라구, 북쪽사람들은 기적을 낳는 사람들이구 또 북쪽너자들의 기질이야 잘 알텐데.》

《북조선의 녀자스포츠가 상당한 수준이라는거야 알지만, 그러나 그가 이긴다는것은… 엇그제 절발은 머느리 래일 새벽 손주 낳아주기를 바라는것이나 같다고 할지. 올림픽력사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거겠지.》

학길의 입가에 떠도는 얇은 미소를 본 원태의 시커먼 눈썹이 구뒹했다.

《선생님, 모처럼 만났는데 이거 자꾸… 이젠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저… 참, 술을 좀…》

《아니, 낫술은 안하겠네.》

원태는 언짢게 대답했다.

《저, 그럼 선생님, 류행복전시장에 가보시지 않으렵니까. 여름부인복의 최신모델들이 다 있다고 요란히 광고하던데…》

원태는 그 말에 딸애와 처가 생각났다. 그래서 학길의 권고에 못이기는척하며 관광빠스에 올랐다. 빠스를 타고 달리면서 차창밖을 내다보니 동서양의 모든 인종이 다 모인듯한 거리에 각양각색의 승용차들과 차량들이 도로가 메이게 들어차 있었다.

학길은 원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말을 꺼냈다.

《그래 여기 애틀란타에 오신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세계각국을 력방하셨어도 아마 이곳은 처음일테지요?》

원태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었다.

《애틀란타에 대하여 좀 아십니까.》

《별루. 뭐 네 그로들의 파라다이스(천국)라고 하더군. 로스안젤스올림픽 때 <차이나타운>을 거닐며보니 아시아사람들이 많은것이 특색이던데 여긴 또 흑인들이 많군그래.》

《이번 올림픽개최지를 여기로 택한것도 철도, 도로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점보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것을 선전하자는것이지요. 교통의 발전에 따라 상업이 대단히 발전했고 수력발전의 덕을 입어 유기제조, 타일공업이 또 대단히 발전했는데 전세계에 유명한 코카콜라의 본산지로서 …》

《그저 다 <대단히>로구만.》

《예. 지난 세기 60년대 북군의 샤만장군이 남부련합군의 본거지였던 이곳을 함락시키고 철수할 때 완전히 초토화했었지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다시 이 도시를 세워 오늘은 이렇게 올림픽까지…》

원태는 불쑥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여보게, 자네 평양에 대해서 좀 아나?》

학길은 뜻밖의 질문에 어지간히 놀랐다.

《저, 아직 가보지 못해서…》

《박물관자인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좀 듣게. 지난 세기 60년대에 샤만장군의 이름을 단 미국군함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기여들었지. 총포를 쏘아대면서 강도질을 하려구말이네. 애국심이 강한 평양사람들은 <샤만>호에 불벼락을 안겨 대동강에 처박았네. 침몰된 <샤만>호의 포신이 아직 평양에 있지.

금세기 50년대에 맥아더요, 아이젠하워요 하는 미국의 <거룩한> 원수들이 3년동안 폭탄을 던져 평양을 재더미로 만들고 백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장담했네. 그러나 불사조의 도시 평양은 갱생과 자주화 화신으로 우뚝 솟았네.》

학길은 스승의 타이름을 받는 어린 학생처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하였다.



《이 도시는 팔라와 소비의 도시이지만 평양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도시이거든. 거기에는 박달임금과 동명왕의 성룡이 있네. 수록만 리 떨어진 미국의 어느 주소제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유서깊은 도시에 대하여 모른다는것은 저널리스트<기자>의 수치야.》

학길은 그 말에 정통을 찢린듯 흠칫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성오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데... 선생님은 확실히 친북성향이 강하십니다.》

×

원태는 묵묵히 호텔방의 주단우를 가로세로 오가다가 문득 멈춰섰다.

《친북성향이 강하다구... 그럴수 있지...》

그에게 《적성인물》이란 딱지가 붙은것은 벌써 30여년전 일이다.

...

《원태씨, 당신은 위험한 <적성인물>로서 체포되었소!》

수사관은 아연해서 올려다보는 원태의 얼굴에 체포령장을 휘둘러던졌다. 23살의 애젊은 나이에 《국군》태권도시범단의 일원으로 동남아시아방문을 떠났던 원태는 귀국하여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특무기관의 번호를 단 질차에 실려 이 지하심문장으로 련행되어온것이다.

《나는 이따위 음모에 진저리가 나오!》

원태가 마주 책상을 치자 수사관의 얼굴은 험악하게 이즈러졌다.

《뭘, 음모?》

베람을 열고 외국에서 발간된 영자신문 한장을 꺼내든 수사관의 강파른 얼굴에 얼음장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원태는 그 신문에 며칠전 해외에서 진행된 《아시아반공련맹》창립기념 태권도시범출연후에 가진 기자회견내용이 실린것을 보고 사태를 깨달았다. 태권도시범출연에서 특재를 발휘하고 인기를 모은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태권도는 장구한 민족력사와 강인한 민족정신의 소산이지 어느 한 시기 정치의 부산물이 아니》라는것과 《태권도의 사명은 반공이 아니며 태권도가 정치에 도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용공》의 증거로 제시되었던것이다. 시내중심에서 멀리 벗어진 시골구석에 자그마한 점포를 하나 내오려고 해도 《반공》, 《방첩》의 경표를 착실히 내건 조건에서만 개업신청을 낼수 있던 그 시기 해외에서 열린 국제적인 《반공콩쿨》에서 반공을 시비한 애송이격술가의 어처구니없는 만용을 반공을 제1국시로 선포한 《청와대》로서는 도저히 용인할수가 없다는것이 다.

《적성인물》표리표가 붙어 형무소를 나온 그는 뼈저린 인생의 고배를 체험하게 되었다. 걸음걸음 경찰의 감시가 따랐고 품팔이하러 해도 고용하려하지 않았다. 군시절의 동료들도 옛친구들도 후환이 두려워 그와의 면적을 꺼려했다. 고마운 인정의 줄을 잡이 겨우 벌이가 좋다는 미군기지가 가까이 어느 상점에 취직했는데 또 류치장신세가 되었다. 상점에 뛰어들어 강도질하는 미군병사들을 징벌했는데도 경찰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폭력을 쓰지 않고서도 호신할수 있는 유단자가 적수공권의 미병들에게 《파도한 보복행위》로 《가혹한 상해》를 입혔다는것이다. 원태는 절망에 빠져 몸부림쳤다. 이제는...

복으로 가자!

50년 여름 아버지가 갇혀있던 서대문형무소의 원한서린 담벽이 인민군땅크의 돌입에 부서져나가던 그때 나어린 소년의 가슴에 싹뚫던 공화국에 대한 그리움이 식어버린 채무지속에서 한점의 불꽃이 바람타고 일어나듯 활활 타번지기 시작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대렬을 따라 북행길에 올랐던 부모님들이 미군의 공습에 목사하지 않았더라면...

대종교를 숭상하던 유식한 할아버지는 원태가 어릴적부터 단군왕검과 조상이 물려준 하나의 강토에 대하여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었다.

그렇다. 복으로 가자!

원태는 은밀히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한 제대병들을 통하여 분계선일대의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월북을 시도했다. 그러나 《요시찰대상》인 그에게 성공의 기회는 차례지지 않았다.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민족의 강토에 무겁게 드리운 철의 장막을 끝없이 저주했다. 모든것을 포기한 그는 서독으로 떠나는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남다른 포부와 자신심으로 넘치던 청춘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정신병동의 보이라공으로, 유곽의 문지기로 일해야 했던것이다. 원태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남강선생이 하였다는 말대로 《억누르는자를 원망하지만 말고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깨닫고》 모진 각오를 다지며 고단수련을 강행했다. 원태는 피타는 노력으로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얻었다. 멜보른과 부다뻬슈프, 오사카와 라스베가스... 이르는곳마다에서 그는 무쇠팔다리를 자랑하는 동서양의 우수한 격술가들과 피의 격전을 벌려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열렬한 환영의 인파에 묻히곤하였다.

처절한 《와신상담》은 드디어 성공을 가져와 사회적명성과 직위를 얻었으나 나이가 들며 더해가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늘 그를 괴롭혔다.

가끔 외국에서 만나는 옛지기들이 《금의환향》을 권고했으나 그때마다 일축해 버리던 원태는

《유신독재》가 무너진후 민족통일의 열기가 비등되던 1981년 국제태권도시범단의 일행으로 공화국을 방문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조국의 북녘땅, 거기에는 리승만이 육하던 덩석부리 로씨야병사도 없었고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려진 얼굴색 붉은 빨쟁이도 없었다.

거기에는 얼굴색도 말소리도 똑같은 동포, 후더운 인정에 가슴뜨거워지는 동포가 살고있었다.

8년후 그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초청되어 독일태권도선수단을 이끌고 다시 평양에 갔다.

감동이 컸다. 동포! 동포! ...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동포들의 모습이였다.

서해갑문을 돌아보고나서 점심참에 찾아가 김치한사발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자 해외동포가 왔다면 새로 상을 차리라고 부엌에 대고 호령하던 남포의 할아버지.

동성동본이니 친혈육이나 같다면 그리도 반갑게 부어주는 술잔에 비명에 황사한 량부모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끝내 눈물을 보이고말았다.

두우기 잊을수 없는것은 축전기간에 참관했던 평양 개선인민학교 어린 학생들과의 상봉이였다.

동포손님을 환영하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고 노래부르던 그들의 청고운 목소리, 그들과 한데 어울려 소년단넥타이를 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원태가 시간이되어 학교를 떠나려 할 때였다. 떠나는 그를 붙잡고 《아저씨,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요. 또 오십시오.》 하며 능금빛의 귀여운 두볼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소녀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며 원태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피가 통하고 열이 통하는 이 동포들을 뒤두고 여지껏 어디에서 헤매었던가.

이 강철같은 사나이를 울게 한것은 실로 지워버릴수 없는 민족의 님이였고 동족의 피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나본 북녘동포는 도이첼란드가 통일된후 1993년초에 베를린 훔볼트종합대학에서 만났던 교수였다. 그 교수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수였는데 훔볼트종합대학의 초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학부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있었다.

조선말로 조선력사를 배워준탓에 매를 맞아 소경이 되었던 할아버지의 풀길없는 원한이 가슴에 서려있는 원태는 평양에서 온 교수가 베를린 한 북판에서 조선어를 강의한다는 말을 듣고 격동되어 정월의 사나운 눈보라를 뚫고 질풍같이 차를 몰아갔다. 유럽의 북판, 그것도 과거 세계의 패권을 노려 인류를 전대미문의 재난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고 지금도 유럽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대국의 수도에서 조국의 교수가 우리의 모국어를 세계에 가르친다.

원태는 행복했다. 그는 자기 딸이 크면 이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결심하고 딸애와 함께 다시 《평양선생》을 찾아와 인사를 시켰다. 제13차축전 때 평양에서 만나본 짜마라칸드에서 왔다는 타반머리의 조선족3세가 류창하게 조선말을 하는것을 보고 조선말을 잘 모르는 자기 딸로 하여 낯을 붉혔던 원태였던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양선생》이 귀국하였다. 《핵사찰》소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협이 박두하자 그 선생은 안해와 함께 조선인민군 입대를 탄원하여 귀국했던것이다.

공화국은 특수한 나라였다. 배금주의에 빠져 조국을 버리고 서방으로 물밀듯이 쓸어드는 동구라파사람들과는 달리 국제적압력과 공갈속에서 갇은 고초를 다 겪는 자기 나라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공화국사람들의 모습은 그를 다시한번 놀라게 했다. 물론 원태는 그들이 특수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임을 알고있다. 그러나 그들 특유의 이데올로기와 원태가 생각하는 민족성과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것으로 그는 이해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히 《친북성향》이 강한 사람이였다.

전화종이 울렸다. 학길이란테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얼마후에 <북한>의 계순희선수와 료교사이에 결승경기가 있습니다. 함께 가실가요?》

학길의 목소리는 혼연했으나 원태는 약간 당황했다. 학길이가 억양에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애쓰는것이 알렸으나 원태에게는 의미심장한 도전으로 느껴졌다.

순희와 료교.

원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명무명의 격술가들과 승패를 가르는 죽음의 스파링에 나가면서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위구와 우려, 불안이 갈마들었다. 이 불안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아까 학길이가 주고간 료교의 경기전적을 록화한 테프를 돌려보면서 그는 나 어린 공화국선수, 자기 딸과 나이도 이름도 같아 더욱 정이 가는 그 선수가 료교한테 시달리는 그런 환영이 지못게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불현듯 달리의 그림이 생각났다. 잔뜩 웅숭그리고 서서 가혹한 책형에 상처입은 몸을 괴롭게 뒤틀며 매달려있는 수난자를 울롱하니 쳐다보는 소녀의 모습이.

원태는 맥없는 목소리로 함께 가자고 약속했다.

×

각국의 체육애호가들과 관광객들, 유술전문가들로 초만원을 이룬 공회관은 관중의 열광적인 환호로 떠나갈듯했다. 드디어 료교와 순희가 결

승에 올라온것이다. 승부호기심으로 파열된 수만 관중의 집요한 시선이 결승에 나선 두 선수사이를 엿가로 누볐다. 박력있는 걸음새와 버들같이 유연하면서도 날과람있는 거동으로 하여 더욱 매력적인 료표는 맵시나게 손을 흔들며 세련된 솜씨로 레의를 표하여 관객으로부터 우뢰같은 환호를 불러오는데 타박타박 걸어나와 그와 마주선 순희는 어딘가 장난꾸러기소녀같은 천연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의 발그레한 앵두볼로 하여 더욱 애뵈보이는 소녀는 자기를 기다리는 치열한 싸움을 알거나 하는지 금시라도 해죽 웃을것만 같았다. 나이와 경력, 전적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상대였다. 세계유술계의 강자와 중학생소녀.

원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결이 급해졌다. 이번에 술한 경기들을 보았지만 가슴을 조인적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다.

여기저기에 몰려앉은 일본관광객들이 기발을 흔들며 료표를 환영한다. 원래의 앞쪽에 앉은 일본청년들이 거센 소리로 《유도가》를 부르며 응원했다.

...

나래치는 힘 검은 허리띠  
꽃향기 날리는 푸른 참대는

원래는 이 노래를 알고있었다. 일본에서 유술 보급의 전당인 《강도관》창립 70주년때부터 불리워진 노래이다.

열을 올리는 일본인들쪽에 대고 사나운 눈찌를 갈기고난 원래는 저도 몰래 순희에 대한 솟구치는 연대감으로 분발되어 주먹을 흔들며 고향쳤다.

《순희! 힘을 내라! 이겨라!》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순희야, 제발 지지만 말아다오.) 하고 애원하다싶이 뇌였다.

그와는 달리 경기장을 바라보는 학길의 맹담한 시선은 관조적이었다. 결과는 뻔하지만 멀찍이 앉아서 마지막까지 보아주는 아량쯤이야 베풀지 못하겠느냐 하는 심사이다.

완전공격형인 료표의 맹렬한 기습이 시작되었다. 로련한 유술선수의 맹공격이다. 돌러메고 비틀고 잡아채고 꺾고...

기회를 노리던 료표가 날새게 달려들어 순희를 자빠뜨리고 목조르기에 들어갔다. 관중의 환호 소리가 장내를 뒤흔든다. 원래는 자기의 목이 놀리우는것만 같아 손바닥으로 목을 뺨 쓸었다. 순희가 용케도 조르기에서 벗어났다. 료표가 계속 공격했다. 순희는 침착하게 방어하면서 응수했다. 걸어차면 맞걸어차고 밀치면 통겨버리고.

료표가 혼전을 벌리던 끝에 순희의 오른팔굽과 우측 어깨를 단단히 잡고 돌러메었다. 그러자

또 환성이 터졌다. 료표의 재기가 보여줄 멋들어진 《한판》을 촉구하는 환성이다. 원래는 자기를 제외한 수만관중이 모두 친료표파 군중으로 생각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런데 순희는 료표가 자기 팔을 충분히 끌어당기지 못한 허점을 타서 상체를 좌측으로 비틀어 위험에서 벗어났다.

《순희, 물러서라! 좋아, 잡아넘겨라!》

원래는 흥분으로 몸이 달아 계속 소리쳤다. 그 말이 한마디라도 순희의 귀에 들어갈리 만무하건만 원래는 단독고전을 하는 외로운 용사의 편에서서 칼을 뽑아든 협객의 심정이 되어 온몸을 들썩거렸다. 그때마다 옆에 앉은 일본녀인과 그의 아들이가 상을 찡그리며 고개들 외로 툰다. 그러나 원래의 거방진 체구와 조화롭게 발달된 온몸의 근육에서 내뿜는 준결한 기품에 압도되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료표는 《잇뽕세오이》(한판 돌러메기)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료표의 공격에 부대끼던 순희가 돌연 반격으로 넘어갔다. 그는 료표의 왼팔을 휘잡아 감아끼고 누르기에 들어가 유효하나를 얻었다. 재차 료표와 맞붙어 함께 넘어졌던 순희는 료표가 유술복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 번개같이 량손으로 그 손을 잡고 오른다리의 무릎으로 그의 겨드랑이를 누르며 윈다리로 머리를 제압한 다음 두다리사이에 그의 오른팔을 끼우고 힘껏 잡아당겼다. 료표의 팔굽관절이 위험에 빠졌다. 순희는 조금도 힘을 늦추지 않고 관절을 꺾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료표는 간난신고끝에 치명적인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료표가 약간 수세를 보이자 응원대의 노래소리가 기세를 돋군다.

...

흰구름 흐르는 푸른 하늘에  
빛나게 나래쳐가는 그곳  
유도가 되어 세계에 웅비

열렬한 응원도 료표를 수세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료표는 처음으로 재미없는 적수와 맞다들린 것이다. 순희는 뜻대기가 아니었다. 든든한 배심, 태연자약한 기상 그리고 불가항력의 완력으로 공격과 방어에 준비된 만만치 않은 선수였다.

당황한 료표는 조심스러운 방어에 급급하면서 점수따기만 노렸다. 그러나 순희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료표의 팔을 잡아 돌러메자 환호소리가 터졌다. 학길에도 얼굴이 벌개가지고 《메쳐라! 메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원래는 쌍안경으로 보는것도 성차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앉으라고 야단이다. 그러나말거나 그냥 말뚝처럼 서서 쌍안경만 들여다보는 원래에

게 뒤로부터 초콜레트파워들이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다. 시비를 가릴새가 없다.

《떨귀라. 떨귀! 아이쿠 앞으로 떨어졌구나.》

둘은 한참 맞붙어 돌아가다가 경기장밖으로 나 있어졌다. 둘이 다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린다.

《순희! 시간이 ... 시간!》

원래가 고향치는데... 기만동작으로 료꼬의 긴장을 해이시킨 순희가 료꼬를 불안고 획 다리를 걸더니 통채로 들어 없어뜨렸다.

순간 자리에서 튕겨나듯 일어난 학길이가 《한판이다!》하고 목이 터지게 웨쳐댔다. 뒤미처 장내에 터진 탄성이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공회관에 폭풍이 들이닥친듯 설레인다. 휘파람소리, 박수소리...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원래의 옆에서 구경하던 알락달락한 반바지를 입은 일본소년이 서툰 영어로 다급하게 《왜 그래 어머니, 조선이 졌지? 일본이 이겼지?》 하고 열토당토않은 수작을 한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답변할 사이도 없이 원래와 학길은 약속이나 한듯 《노-》 하고 《으르렁》거리며 불달린 눈으로 그 애 얼굴을 맞구멍 뚫리게 노려보았다.

학길은 덤벼치며 앞으로 내달았다. 순희를 놓치지 않으려는것이다.

순희의 지도원이 관람석의자를 날아넘어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순희를 포옹하는것을 보며 원래는 온몸에 전류처럼 퍼지는 흥분과 눈곱이 찌릿해오는 감격으로 몸을 떨었다. 눈곱이 뜨거워났다. 손바닥도 땀으로 질척하다.

(고맙다. 순희야, 내 일생에 오늘처럼 기쁜 날이 몇날 없었다.)

순희가 시상대로 나간다.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이 울린다. 세계 백수십여개국 공민들의 열광적환호를 받으며 나아가는 순희를 보는 원래의 불그레한 두눈에 물기가 번들거렸다. 공화국기발을 날리며 자랑차게 나아가는 소녀의 모습에서 민족이 낳은 슬기로운 딸들의 모습이 연거퍼 떠오른다.

몇년전 평양, 삼천리에 통일의 열기를 더욱 가열시키며 장장 수십년 민족분단의 원한과 비분이 엉키고 서린 판문점분리선을 티검볼처럼 가볍게 밟고 나아가던 림수경.

공화국기를 날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순희의 모습은 고려의 명장 강감찬장군의 선봉에 서서 장검을 휘두르며 적의 정예기병들을 무찔러버리던 고려의 딸 설죽화의 모습으로 보였다.

3.1운동때 16세 어린 소녀의 몸으로 민중을 걸기시켜 일제에게 항거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류관순렬사가 그때 렬사의 나이와 같은 순희의 저 쾌보를 지하에서 들을수가 있다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조선만세를 소리높이 웨칠것이다.

순희는 날리던 기발을 자기의 목에 휘감고 나

간다. 아, 공화국기! 통일을 웨치던 아버지가 감혀있는 형무소의 피어린 담벽을 썩은 바자 허물듯 부셔버리던 인민군땅크 포탑우에 날리던 기발.

해방된 거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지붕우에 높이 띄웠던 그 공화국기를 목에 감고 순희가 나아간다. 순희의 두눈에 넘쳐나는 눈물, 그것은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친 나 어린 승리자의 고결한 눈물이다.

원래는 목메이는 감동으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올림픽과 여러 체전들에서 계양되는 공화국기를 적지 않게 보아왔으나 오늘의 느낌은 그것들과 완전히 달랐다. 루차에 걸치는 자연재해와 불의의 대국상, 국제적범위에서 악착스럽게 조여대는 교살적인 분위기, 렬사에 전무후무한 가증한 협공을 받으면서도 강인하게 일떠서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멸적의 기세로 원수들에게 육박해나가는 불패의 공화국의 모습으로 안겨왔고 그 기상속에 태권도가 주장하는 《백절불굴》, 《견인불발》의 녀이 호용하고있는듯싶어 더욱 가슴벅차올랐다.

《어텔 갔어, 학길이너석, 목대를 꺾어놓고말테다.》

×

호텔, 원래의 방이다.

자기앞에 고개를 수긋하고 서있는 학길을 부릅 뜬 눈으로 쏘아보던 원래는 팔짱을 지르며 차갑게 내뱉었다.

《회계? 난 자네하고 회계할것이 없네.》

《선생님께 회계할것이 있습니다.》

학길은 큼직한 가방을 열더니 그속에서 타자친 원고사본을 꺼내어 원래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가?》

《래일 <동아일보>에 나갈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방금 본사에 날리고 오는 길입니다.》

원래는 약간 긴장을 느끼며 원고를 받아 펼쳤다.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대뜸 휘둥그레졌다.

《세계유술계의 새별- 만인을 경탄시킨 계순희의 기적!》

(이게 뭐야.)

원래는 흥분하여 단숨에 읽어나갔다.

《...이리하여 전혀 관중의 관심밖에 있던 이 자그마한 낯선 소녀가 세계를 깜짝 놀래우며 단연 챔피언(선수권보유자)의 시상대에 오른것이다. 료꼬의 련승을 추호도 의심치 않던 일본사람들에게 있어서 순희의 승리는 그야말로 <잠든 귀에 쏘아부은 물>이었다. 이 북녘의 새 세대가 일으킨 기적은 경기를 관람한 모든 동포들의 가슴을 민족의 슬기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으로 불타게 했으며 교포사회에 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성해주었다. 이번 올림픽 3대기적중 첫번째로 꼽히

는 계순희의 이 채승은 남북을 막론하고 분명히 우리 민족모두의 영예임에 틀림없다.…」

기사는 시종 호화로운 수식사들과 절대적인 찬양으로 가득차있었다.

원래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떠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셈인가.》

《제나라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한 선생님의 비판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순희가 저의 눈을 바로잡아주었습니다.》

학길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말을 지내 험하게 한 것 같네.》

원래는 진심으로 랑해를 바라며 학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었다.

《아닙니다. 이번에 배운바가 큼니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나십니까?》

선생님한테 혼썰난 그 일본수강생말입니다. 그가 도장에서 아무 생각없이 선생님의 성함을 일본식으로 <가쓰라>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졸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천둥같이 화가 난 원래는 다짜고짜로 그를 번쩍 들어 동댕이쳤는데 단번에 기절해 넘어졌다. 깔개에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갈비뼈가 다 부러졌을 것이다. 동료의 봉변을 통하여 각성된 수강생들은 그후 원래의 이름을 조선말로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 퍼그나 품 들여 노력했던 것이다.

원래는 정이 넘치는 눈길로 학길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이 기사를 그대로 낸단말이지.》

《20승10짜리 원색사진까지 받쳐서 냅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내고 무사할가.》

《이것은 <조선일보>의 제 친구가 쓴 겁니다. 방금 입수했는데…》

학길이가 내미는 다른 원고를 보니 그것도 대번에 눈에 쏙 들어온다.

《일본렬도 돌려메치다. 조금도 기죽지 않은 북녘의 새 세대》

그가 세상에 대고 고향치고싶었던 것이 다 들어 있었다. 원래는 가슴이 다 후련했다.

《나더러 친북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니 자네들은 완전히 친북 데마고그(선동가)들일세. 하하.》

학길은 의연히 깎듯한 태도로 말했다.

《여기에 무슨 데마가 있습니까. 엄정한 객관보도입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그렇게 일변했나. 응? 잘 믿어지지 않누만.》

《기적을 목격했으니까요. 한때 기독교탄압에 혈안이 되었던 파울로가 성령의 음성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나서 180도의 인생전환을 하여 순교성도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쏘파에 끌고가

았했다.

《그런데 <반공법>에 걸리면 <찬양고무죄>에 해당될텐데.》

《전세계가 시청한 것을 글로써 확인했을 따름인데요. 원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쏘파에 끌고가 앉았다.》

원래는 사뭇 흥분을 금치 못하며 샤쯔의 목깃단추를 터놓았다. 그리고는 학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 속삭이듯 말했다 원래는 사뭇 흥분을 금치 못하며 샤쯔의 목깃단추를 터놓았다.

《민군, 우리는 자랑할만한 슬기로운 민족이요. 스포츠분야에서만 놓고봐도 그래. 동양인의 신체적인 핸디캡(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기술을 연마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양사람들을 타승하고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야.》

《자랑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입상의 돌파구를 낸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 동방에서 남먼저 근대문명을 받아들였다고 뽐내던 일본이 각종 미신적술법까지 써가며 조선의 명산마다 산허리를 폭파해서 끊고 쇄말뚝을 박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명산, 명봉의 정기를 타고난다는 장수들이 나지 못하게 하려는 유》

치한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그러나 어떤가 우리 민족은 세계스포츠계에서 룡상, 구기, 력기, 기록을 세우지 않은데가 없거든. 지어 서양사람들이 독판을 치던 세계프로레스링에 무적의 왕자로 군림했던 세상에 비유없는 력사도 바로 조선 사람이었던단말이네.》

학길이가 꽤히 수궁하며 말을 받았다.

《만약 이번에 남북통일림으로 출전했다라면 세계를 경악케 했을 겁니다.》

원래는 바로 그제 안타깝다는 듯 오른주먹으로 왼손바닥을 갈겼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순희에 대하여 일일이 캐여물었다.

《우승한 소감이 어떠냐고 물으니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운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드린다.》라고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셈이냐고 묻자 <더 많은 금메달을 따서 인민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원래는 손뼉을 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학길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선생님, 일개 중학생의 단마디명창이지만 거기에 <아시아적가치관>이 집약된 형태로 표현된 고급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경쟁보다 의리를 중시하며 황금보다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지금 선견지명있는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아시아적가치>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서방의 가치관, 프래그마리즘(실용주의)에 완전히 오염된 이남의 젊은이들속에

순희와같이 이렇게 말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지.》

학길은 주머니에서 사진 두장을 꺼내어 한참 들여다보다가 탁자우에 올려놓았다.

《제가 직접 찍은것입니다. 신문에도 이것을 내려고 합니다.》

원태는 얼른 그 사진을 집어 한참동안 들여다보더니 감개무량하여 말했다.

《내 이번 걸음은 실로 보람이 있네, 보람이. 민군, 지금 평양시간으로 7.27일이야. 내 13차 <평축>에 참가하여 목격한바이지만 그들은 7.27일을 미국과 싸워 승리한 제2의 해방의 날로 기념하고있네. 바로 그런 뜻깊은 날에 순희가 이런 또 승보를 날리게 되었으니...》

학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가방을 들추더니 록화테프 한개를 꺼내들고 왔다.

《순희가 이번에 진행한 모든 경기장면들을 수록한것입니다. 선생님께 이번 상봉기념으로 드립니다.》

《민군, 고맙네.》

원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손으로 테프를 받아 두번세번 쓸어보다가 케이스에 넣고 다시 포장을 하여 자기 트렁크안에 깊숙이 건사했다.

《우리 딸애에게도 보여주겠네. 그애와 이름도 나이도 같은 평양의 중학생이 민족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력투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네.》

원태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물론 우리도 이북에 대하여 다는 모르네. 그러나 이토록 사랑스런 민족의 총아가 바로 평양에서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생각되는바가 크네.》

원태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평양순회를 꼭 만나고싶는데 시간이... 좁전에도 우리 딸애한테서 또 전화가 왔댔소. 살발은 혈육이 없어 그걸 크다 하며 키웠더니 아직 어리광부리는것밖에 모르오. 몹시 기다린다누만. 허허.》

학길은 그 말에 너그럽게 웃으며 대꾸했다.

《딸들이야 아버지앞에선 다 응석꾸러기들이지요. 아까 보니 료표의 부모들도 딸을 위로해주는라 끔찍하더라말입니다.》

《료표의 부모들이 다 왔어?》

《예. 사실 우승하는 딸을 보자고 여기까지 따라와 파티를 준비했더랬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원태는 잠시 주춤했다.

《그럼 우리 순희의 부모들은...》

《다 평범한 사무원들인데 아버지는 어느 출판사가, 어머니는 교원...》

학길은 취재수첩을 꺼내어 펼쳐들었다.

《순희는 모란봉구역 개선고등중학교 6학년 학생...》

개선고등중학교! 원래의 가슴이 쿵하고 울렸다. 감회도 새로운 몇년전 그날이 눈앞에 떠오른다.

《아저씨,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요-》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아이들.

개선고등중학교, 그렇다. 그때의 개선인민학교 학생이었을수도 있다. 애트한 향수를 자아내는 청아한 노래소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아, 귀가에 찌르르 들려오는 그 선율.

원태는 학길이가 탁자우에 올려놓은 순희의 사진을 들고 다시금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귀염성스러운 천진한 모습. 그래 꼭 그때 본 얼굴같기도 하다. 자기의 손을 잡고 막 울던 소녀, 그래서 자기도 얼굴을 마주 부비며 울던 그 소녀가 분명하다.

원태는 쓰아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오락가락하더니 창문을 열고 하염없이 내다본다.

학길은 돌아서는 원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것을 보고 놀랐다.

《왜 그리십니까, 갑자기.》

흥분하여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서두르는 원태를 보며 학길이가 의아해서 꺼따라 일어났다.

원태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렬히 되었다.

《내 한생에... 큰죄를 지을번했소. 순희는 분명 내 혈육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럼 이제 순희를? 비행기표까지 다 사놓으시고서.》

원태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비행기는 래일에도 있소.》

《래일은 따님의 생일인데...》

《생일은 해마다 있소.》

원태는 학길이가 탁자우에 올려놓은 순희의 사진 두장을 나꾸어채듯하여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내게 선사하라우.》

호텔앞에서 택시를 잡은 원태는 학길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차문을 닫았다.

차가 떠나자 원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진을 꺼내들고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얼굴, 금메달을 쳐들고 함뱀 웃는 순진무구한 모습이다.

(순희의 부모대신 내가 축하해주자. 일생토록 오늘을 잊지 않도록 축하해주자.)

원태는 사진을 천천히 자기 입술에 갖다대었다. 더부룩한 수업이 매끈한 인화지에 쏠리는 소리가 귀맛 좋게 들렸다. 그러자 밤빛머리칼이 강굴 강굴한 흑인운전사가 슬며시 넘겨다보며 묻는다.

《따님이신가요?》

원태는 등받이에 몸을 쭉 펴며 긍지높이 대답했다.

《그렇소. 우리 딸이요. 16살난 영웅이요!》

## 이웃집 할머니에게 외 1 편

리찬호

늙지 마시라  
남녘에 고향을 둔 할머니시여  
입에 뚝은 풋살구를 따먹으려  
내 자주 울타리를 뛰어넘던 때  
너그러이 나를 용서해주던 할머니여

혈분이 없던 그 집에  
살발은 인연이 귀해서였던가  
내 군대에 나올 땐  
다 익은 살구를 따들고 나오시여  
두손에 정히 받쳐주던 할머니

허나 그것만은  
무거워 선뜻 꺼내놓지 못했던가  
마음속에 고패치는 부탁은  
심장박을 뛰쳐나오려 했던만

입으로만 읊기기는  
그것이 너무도 커서

열에 끓는 눈빛을 나에게 보냈던가  
삼짇문밖에서 언젠가는  
반가운 웨침이 들려오길 믿으며

그 눈빛이 말해주었노라  
통일을 위해 헌헌히 뛰어온 한생  
소중한 그 념원을 묵묵히 안고  
속에 불을 달며 살아온 할머니

오, 가뻘게는  
입으로 읊길수 없는 통일!  
강쇠처럼 굳센 할머니의 마음에  
용암처럼 끓던 절절한 소원

할머니시여,  
무거워 선뜻 주지 못한 부탁이  
내 가슴에 더 맺히는줄 아시라  
목메인 그날의 기적소리마냥  
귀전에 더 크게 울리는줄 아시라

## 통일에 대한 생각

웃방아래방을  
서로 흠없이 나드는 식솔들  
만약 사이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야 리치는 뻔하지 않는가

×

렬차는 왜 떠나지 못하는가  
임대하는 손자에게  
백발의 로인이 부탁하고싶은것  
그 무게가 아직 실리지 않았다.

×

시계바늘이 어느때든  
환희로운 그 시각을 가리키련만

파연 이 땅의 어느 누가 그때  
시계를 보고있을 겨를 있을가

×

손을 잠근 강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니  
고향생각 찢릿해난다는 로인의 말  
차라리 그가 병사인 나에게  
시간과 책임을 따져물었다면...

×

피나고 눈물나는 겨레의 념원  
세월과 더불어 쌓일대로 쌓였다  
이제 폭발은 불가피하거니  
분렬장벽 그 존재는 끝날 때가 되었다

## 락원은, 태성은 외 1 편

### 곽명철

오래전 그 누군가에 의해  
이미 정해져있었던가  
락원땅이 우리 당의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야  
한다고  
태성땅이 우리 혁명의 력사에 것처럼  
유명한곳으로 돼야 한다고  
  
수령님을 억척같이 받든  
신념의 그 녀당원이 없었다면  
우리 당을 사심없이 량심과 의리로 받든  
의지 강한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락원도 태성도  
조국의 평범한 어느 한 고장에 불과했을뿐  
  
이제는 너무도 낯익은 고장이어서  
아무때나 가고싶으면 가도 되는 땅이던가

우리 장군님의 기억속에 그리도 빛나는곳이어서  
마음의 때묻지 않은 자옥을 간직하지 않고선  
선뜻 들어서기조차 서슴어지는 땅  
  
조국의 무수한 이름들속에 놓여있는  
내 사는 고장의 이름도 조용히 되뇌여본다  
아, 내 고장의 수수한 그 이름  
또다시 우리 당의 력사에  
그렇듯 숭엄히 새겨넣을이는 과연 누구들인가  
  
락원은, 태성은  
조국의 오직 한곳에만 있어야 하는가  
장군님을 신념으로 량심으로 억척같이 받들며  
내 오늘의 락원의 녀당원이 되리라  
내 오늘의 태성의 할머니가 되리라

## 두달

-해놓고보니  
별것이 아니더군요...  
  
제힘을 믿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짧은 두달동안에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공지에 넘친 그대의 말 이 가슴을 친다  
  
두달, 그 두달은 우리에게도 있었건만  
지세 물세가 이보다 유리한 고장에 살면서도  
우린 어찌해  
아직껏 시작한 발전소를 끝맺지 못했던가  
  
겸손해 제자랑 번지긴 멋적어해도

그대들의 땀결은 그 두달은  
이 심장에 속삭여주누나  
장군님 가리켜주신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고  
자력갱생이 그저 제일이라고  
이런 신념, 이런 정신만 지니면  
그 두달도 어찌 보면 길수 있다고  
  
당의 뜻을 남먼저 꽃피워  
전기덕, 자력갱생덕을 톡톡이 보게 된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 시각 안고가라고  
이 가슴에 묵직히 얹어주고있지 않는가  
제힘으로 복을 안아온  
투쟁과 열정의 숨결 뜨거운 그 《두달》을